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삼공본풀이>의
어린이책 변용 양상 연구

송 순 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문학교육전공

2016년 8월

<삼공본풀이>의
어린이책 변용 양상 연구

A Study of the Adaptation of the Cheju Orgin Myth of Samgong into the children's Literature

지도교수 김 상 욱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문학교육전공

송 순 희

2016년 8월

송순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6월

국문초록

<삼공본풀이>의 어린이책 변용 양상 연구

A Study of the Adaptation of the Cheju Orgin Myth of Samgong into the children's Literature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문학교육전공
송 순 희
지도교수 김 상 욱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무가 <삼공본풀이>가 어린이책으로 수용되면서 재화되고 있는 양상을 살피고 바람직한 재화를 위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무가 채록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보편 서사를 추출하고 이 신화가 지닌 전승적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간된 이야기책 8권과 그림책 6권에 이러한 가치가 담겨 있는지 고찰하여 변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재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채록 자료 중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채록된 박봉춘 본, 해방 이후 한국인에 의해 채집된 고대중 본, 김계림 본, 안사인 본을 기본 서사로 분석하였다. 이 때 감은장아기의 전기적 일생을 풀어내는 신화라는 점에서 반겐넵의 '통과의례'를 적용하였다. <감은장아기> 이야기책과 그림책을 살펴보니 재화 양상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 중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대표 작품을 각각 세 권씩 골라 채록본과 재화본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삼공본풀이>는 '감은장아기'라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분리, 전이, 통합의 의식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류 보편의 서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신화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 지녀야 할 배려, 존중, 나눔, 포용의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이 신화에는 봉건적 가부장제 문화에 맞서 주체적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영웅적 여성원형이 남아있다. 이렇듯 현재 사라지고 있는 무속의 무가인 <삼공본풀이>가 아동문학에 수용되어 전승되어야할 가치가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책을 통해 감은장아기 신화를 적극 알리고 전승하려는 노력은 198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삼공본풀이>가 어린이책으로 변용된 양상을 이야기책과 그림책으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결과 글 서사는 신화 전통 상징체계의 변형, 여성성과 주체성의 약화, 전체적 서사 짜임새의 불균형, 신성성의 왜곡이 발견되었다. 그림 서사는 자료에 대한 불철저한 고증으로 인해 글에 의존하면서 이야기를 한층 풍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구전자료에 충실하지 못하고 선행 작가에게 의존한 재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 보편의 삶과 가치를 담고 있던 신화가 교훈과 재미를 중시하는 이야기로 변형되었으며 이렇게 변용된 신화를 접한 어린 독자들이 그것을 “옛사람들의 이야기”로 알면서 자라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 중에도 감은장의 여성성과 주도성을 살리려고 노력한 이원수·손동인본의 발견은 이야기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책에서는 몬테소리 본의 글이 감은장의 여성적 주도성을 담아내려고 하였으며, 봄봄 본의 그림이 인물과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각 장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어린이책 작가와 편집자는 우리 신화를 널리 알리고 전승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통한 이해와 숙고의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그래서 재미와 함께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갖는 가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재화를 하여야겠다.

감은장아기에 매력을 느낀 작가들의 재화와 변용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맞춰 <삼공본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를 변용한 어린이 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한층 바람직한 재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핵심어 : <삼공본풀이>, <삼공본풀이> 변용 양상, 감은장아기, <감은장아기> 이야기책, <감은장아기> 그림책)

목 차

국문초록 ····· i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범위 및 방법 ····· 9

Ⅱ. <삼공본풀이>의 서사가 지닌 통과의례 양상과 가치 ····· 14
1. <삼공본풀이> 서사 내용과 핵심 화소 ····· 14
2. <삼공본풀이>의 통과의례 양상과 문학교육적 가치 ····· 25

Ⅲ. 이야기책 <감은장아기>의 변용 양상 ····· 38
1. <감은장아기>의 변용 양상이 보여주는 세 가지 양태 ····· 40
2. 평가와 제언 ····· 59

Ⅳ. 그림책 <감은장아기>의 변용 양상 ····· 63
1. 글 서사의 변용 양상 ····· 63
2. 그림 서사의 변용 양상 ····· 79
3. 평가와 제언 ····· 95

Ⅴ.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부록 <감은장아기> 다시 쓰기 ····· 108
영문초록 ····· 113

<표 목 차>

<표 1> <감은장아기> 출판 현황 ····· 11
<표 2> <삼공본풀이> 무가본의 서사 비교 ····· 15
<표 3> <삼공본풀이> 무가본의 화소 비교 ····· 22
<표 4> <감은장아기> 이야기책 서지 목록 ····· 39
<표 5> <감은장아기> 이야기책 재화 비교 ····· 40
<표 6> <감은장아기> 이야기책 화소 비교 ····· 44
<표 7> <감은장아기> 그림책 서지 목록 ····· 63
<표 8> <감은장아기> 그림책 재화 비교 ····· 65
<표 9> <감은장아기> 그림책 글의 화소 비교 ····· 68
<표 10> 서정오의 이야기책 글과 그림책 글의 서사 비교 ····· 73
<표 11> 그림책의 펼침면 비교 ····· 86

<그림 목 차>

<그림 1> 표지, 면지, 속지 비교 ····· 80
<그림 2> 그림책 인물 그림 비교 ····· 82
<그림 3> 그림책 배경 그림 비교 ····· 84
<그림 4> 제주 배경의 그림과 올레 사진 ····· 85
<그림 5> 그림책 축출 장면 비교 ····· 88
<그림 6> 마·쌀밥 나누는 장면 비교 ····· 90
<그림 7> 금 발견 장면 비교 ····· 91
<그림 8> 거지 잔치 장면 비교 ····· 92
<그림 9> 몬테소리 본의 결말 장면 ····· 93
<그림 10> 봄봄 본의 결말 장면 ····· 94
<그림 11> 을파소 본의 결말 장면 ····· 94
<그림 12> 몬테소리 본과 을파소 본의 부록 ····· 100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초자연적인 신과 사람의 운명에 관심이 많았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우리는 신화라고 하면 단군신화와 같은 건국신화 또는 시조신화 등의 문헌신화를 생각해내며 그보다도 그리스·로마신화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지배자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신화가 이용되었기 때문이며, 후자는 우리 신화에 대한 인식이 빈약했던 시기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가 천백만 부가 넘게 팔리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우리 출판시장의 역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신화 열풍에 자극을 받은 우리 연구자와 작가들은 우리나라에도 흥미로운 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민속학자에 의해 기왕에 발굴 연구되었던 무속 무가 속에서 흥미롭고 풍부한 신들의 서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특히 제주도의 <본풀이>가 고립무원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고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화의 통합체임을 알게 되었다.

본풀이는 제주에서 심방(무당)들이 굿을 할 때 제상 앞에 앉아서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이다. '본'은 '근본'을 뜻하고, '풀이'는 '해석·설명하다'의 명사형으로 신의 출생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할 때까지의 내력을 들려준다.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특수본풀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수는 무려 500여 편에 이른다(진성기, 1991 : 머리말)고 한다.

일반신본풀이 12편 중 <삼공본풀이>는 '내 덕에 삶'을 보여주는 '감은장아기'[1]가 주인공이다. 감은장아기는 '전상신'으로 흔히 '전생 인연의

1) <본풀이>의 자료는 제주 심방의 무속 말을 글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구술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삼공본풀이> 주인공의 이름도 감은장아

신', '운명신'으로 일컫는다.[2] 감은장이 태어나서 좌정하기까지의 일생을 담은 서사무가(敍事巫歌)가 <삼공본풀이>라면, 무가를 아동문학으로 수용한 것이 <감은장아기>이다.

<감은장아기>는 1980년 '창비아동문고' 전래동화집(전 15권 중 4권, 이원수·손동인 엮음)에 신화로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여러 작가에 의해 <감은장아기> 또는 <가믄장아기>라는 제목으로 재화 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로는 그림책으로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3] 또 어린이청소년 연극으로 2004년 극단 '북새통'에서 초연되고 호평을 받은 이래 10여 년간 전국 순회공연과 세계 초대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뒤늦은 신화의 발견이지만 여러 형태로 꾸준히 변용되고 있는 이유는 <감은장아기>에서 아동문학에 적합한 구조와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감은장의 서사는 어린이들에게 선험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감은장은 세 딸 중 막내이다.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층에 해당한다. 그리고 감은장과 부부가 되는 마퉁이도 막내이다. 어린이들은 자식으로, 형제로, 여성으로 또는 남성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부당함, 소외감, 불안함, 두려움 등의 고비마다 감은장을 통해 얻은 선험적 경험은 그들의 삶에 지혜와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에게 '감은장아기'는 낯설다. 이는 무속을 미신이라 치부하고 저평가한 근대적 사고와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근대

기, 가믄장애기, 가믄장아기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원수·손동인이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논문이나 글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감은장아기를 주인공 이름으로 택했다. -아기는 여신의 어릴 적 이름에 붙여지는 어미이다. 본문에서는 -아기를 생략하고 '감은장'으로도 쓰겠다.

2) 장주근은 『풀어쓴 한국의 신화』에서 감은장을 전생 인연의 신(113쪽)이라 했으며 현용준도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에서 전상을 '전생(前生)'으로 해석하였다. 『제주도 무속 열두 본풀이 자료집』에 문순실 구송본을 정리한 문무병은 삼공본을 전생의 업보를 풀이한 본풀이라고 설명한다. 이수자는 박사논문에서 감은장은 운명신적 성격을 가진 신(134쪽)이라고 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효정은 운명신(53쪽)으로 규정하면서 이때의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감은장을 '효행신'(김태곤), '직업신'(문무병)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3) 현재까지 이야기책 8권, 그림책 6권이 출간되었다.

신교육을 받은 우리나라의 지식인층에게 무속과 무가는 관심권 밖에 있었으며 아동문학의 소재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교육현장은 문학·출판계보다도 더 완강하였다. 2000년을 전후로 뒤늦게 우리 신화에 눈뜨고 구비문학의 신화 관련 출판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 이후로도 10여 년 후에야 초등학교 교과서에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가 겨우 실렸을 뿐이다.[4] 그나마도 교육과정의 잦은 개편 속에서 다시 사라졌다. 무가 중 유명 성인작가의 소설 덕분에 '바리데기'가, 애니메이션 <오늘이>가 교과서에 실렸던 덕분에 '오늘이'가 잠깐 알려졌을 뿐 '감은장아기'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 신화에 자부심을 품게 하고 그리스·로마 신화 못지않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민속, 문학, 아동문학, 종교 등 다각적인 본풀이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앞서 말했듯이 연극 <감은장아기>가 국내외에서 호응이 좋았다니 문화콘텐츠로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 모색도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본다. 이에 <삼공본풀이> 서사가 지닌 특성을 분석하고 감은장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치를 규명하는 일은 바람직한 전승을 모색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삼공본풀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크게 네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본풀이> 연구
2. <삼공본풀이> 연구
3. <여인발복설화>와의 비교 연구
4. 인물(여성성)에 초점을 둔 주제적 접근의 연구

---

4)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3학년 1학기 <읽기> 7. 이야기의 세계

본풀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연구는 1960년대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이수자로 이어지고 있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아카마쓰 지죠[赤松智城]와 1930~1933년에 제국학사원(帝國學士院)의 연구 지원비를 받아 우리나라 전국의 요지를 답사하고, 복부보공회(腹部報公會)라는 사회단체로부터 편찬·출판비를 받아 『朝鮮巫俗の研究』를 간행하였다. 1937년에 발간된 『朝鮮巫俗の研究·上卷』에는 서귀포의 남무 박봉춘(朴奉春)이 구술한 16편의 본풀이를 '제주도신가(濟州島神歌)'란 이름으로 채록하여 놓았다(제주발전연구원, 2011 : 471). 하지만 이 자료집은 구전 문화에 대한 선각적 인식과 자료 조사의 철저성 등 그 선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 수행을 위한 종교 사회학적인 기초 연구의 결과물이었으며 따라서 고의로 왜곡된 점이 많이 발견되는 등 그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5)]

국내 학자로서 체계적인 학문적 관심을 갖고 제주도 무속과 무가를 수집·정리한 이들로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이 있다. 이들은 56년 이후부터 직접 구연자를 찾아다니며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등 많은 연구 성과물을 이루어냈다. 이들의 방대한 자료와 선구적 연구는 이후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참고할 정도로 유용한 학문적 바탕이 되고 있다.

이수자의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수자, 1989)는 장주근·현용준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주도 무속과 무가에 관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 연구는 종래 행해지는 제주도 큰굿의 의식 순서가 원래적 모습에서 변모되어 있다고 보고 구조적 원리에 따라 순서를 재조정하여 원래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의식의 순서를 새롭게 추출한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그리고 신의 직능에 따른 위계를 갖추면서 본풀

5) *www.kll.co.kr/lib/newBook/S5-1.hwp , 2쪽*

이 구조가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 큰굿은 제주도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본토에서 이입·수용된 것이라는 점과 섬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고문화가 잔존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연구자는 전상을 불교적 성격이 짙은 전생으로 보는 기존의 논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은장의 직능을 운명신적 성격을 가진 신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삼공본풀이>를 단독 연구대상으로 삼은 안효정(2010)은 「삼공본풀이 서사와 전상의 의미」에서 조현설의 의견(조현설, 2006 : 291)을 인용하면서 삼공본풀이가 육지의 설화와 민담을 차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전상이란 '전생'의 뜻이면서 '운명'을 일컫는다고 보고 다만 결정된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감은장이 '전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운명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의되지 않은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전상의 의미를 규정한 데 대한 한계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현승환(1993 : 31-50)도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에서 <삼공본풀이>신화가 본토의 <내복에 산다>계 설화로 전승되었다고 보고 전승 집단의 의식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는 두 집단 간의 공통의식을 집안에서의 복이 여성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인간의 행·불행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운명관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두 설화의 부분적 공통성을 전체로 확대하여 <삼공본>과 <내복에>를 거의 동일시하며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과 감은장의 신성을 한 집안의 흥망을 좌우하는 존재로 축소하는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연구자 중 많은 수가 <삼공본풀이>와 <내복에 산다>계 설화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대숙(1995)은 「여인 발복 설화의 연구」에서 서사의 많은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무가가 갖는 신성이 차이점이라고 하

며 이에 대한 설명을 마련하고 있다. 샤먼과 대장장이가 최고 신분이었을 고시대에 만들어진 신화가, 농경사회로의 전환을 겪으면서 샤만과 대장장이의 지위가 더 이상 지배계층이 되지 못하자 신성을 잃고 민담의 '복 많은 여자'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속신화에서는 여전히 신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 여성신화에 나타난 남방문화적 요소」(1995 : 18-33)에서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삼공본>에 남방문화적 요소가 많음을 주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인 발복 설화와 별도로 신성을 띤 삼공본풀이가 형성되었고 육지의 온달·마동 설화에 기원이 되는 한편, 제주에서는 신화성을 지닌 채 <삼공본풀이>로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두 연구 모두 제주의 신화가 본토의 제 설화의 기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현승환(1992)도 「내복에 산다계 설화연구」를 통해 <내복에 산다>계 설화가 신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육지의 운명 관장신을 위하는 의례에서 불렸을 고대 신화가 오랜 세월 구술되는 동안에 한 줄기는 제주에 정착되어 삼공본풀이로 남아있고, 다른 한줄기는 본토에서 전승되다가 의례에 의한 신성성이 사라지면서 민담으로 민간에 유전(流傳)된 것이라 보았다. 이는 <삼공본풀이>가 육지의 설화와 민담을 차용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자들과 방향을 달리하는 논의로 앞서 소개한 김대숙의 연구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논거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황인덕(1997 : 115-127)은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의 상관성」에서 <삼공본풀이>가 전기적 형식성에 가까우며 막내딸의 구원자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는 <삼공본풀이>가 굿판의 문학으로 형성·수용되어 나간 결과라고 하였다. 즉 <내복에>가 <삼공본풀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내복에>와 마동설화, 심청전과 무가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불교계 한국민담 연구」(1988)에서는 불전 설화[6]와 <삼공본풀이>

6) <波舍匿王女善光緣>로 위 논문(황인덕, 「불교계 한국민담 연구」) 304~305쪽 참고

서사의 공통성을 밝히면서 불교의 전래와 대중화 단계에서 불전설화가 <삼공본풀이>로 변이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서사의 공통성과 '전상(前生 또는 前世로 해석됨)'이 지니는 불교적 성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이유경, 정아용, 김정숙, 윤교임은 신화 속 여성 인물의 여성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유경(2006)은「여성 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적 의미」에서 신화와 설화 속 영웅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청비와 더불어 가믄장아기를 개척과 성취의 여신으로 설정하였다. 가믄장은 관습적 여성상에 대한 도전과 독립적 자아 성취의 여성 영웅의 형상이라고 하였다.

정아용(2001)의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성격 연구」에서는 전국 각지의 무속신화 12개를 선정하여 그 속에 등장하는 20명의 여신을 대상으로 여신의 성격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믄장아기를 성장하는 딸 신으로 분류하며 정짓간의 불과 솥이 가믄장의 여성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가믄장의 부모에 대한 반항(불효)을 여신들의 보편성과 대비되는 특수한 경우로 보는 한편 반항하여 추방당한 여신의 자립과 성공이 신력의 발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감은장의 여성성을 '배또롱(배꼽) 아래 선그믓'(여성의 성기 또는 임신선)이라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서사의 핵심 화소라 보기 어려운 불과 솥이 감은장의 여성성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2000)은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에서 연구범위를 제주도로 좁히면서 제주의 다양한 여성 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가믄장아기는 자립적-개체적 여성 원형 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가믄장아기는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자기 삶을 주도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추진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의 원형이며 도전적 기질의 여성 원형이라고 하였다.

윤교임(1996)은 「여성 영웅 신화 연구-초공, 삼공,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 기호학적 해석」에서 여성 영웅 신화에는 무속신화의 형성 주체들이 현실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던 상징체계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여성을 부정하는 지배 질서에 대한 주인공의 도전은 그 문화가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린 삶의 한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 결국 문화의 역동성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가믄장아기는 그녀가 속한 사회의 성적 터부를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공동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존재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녀는 여성을 부정하는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여성도 자신의 성성과 개아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였다.

감은장의 여성성을 주목하여 살펴본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감은장에게서 여성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으며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 영웅의 형상을 발견하였다.

그 밖에 <삼공본풀이>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된 논문으로 고순덕의 「아동극에서 제주 무속신화의 희곡화 과정 연구」, 김명희의「제주 무가 중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 방안」, 정진의 「유아에게 적합한 구비설화의 특성 및 교육적 가치 연구」가 있다. 이는 <삼공본풀이>가 민속·문학을 넘어 예술과 교육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삼공본풀이>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풀이> 연구 속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연구, <삼공본풀이>를 단독 대상으로 삼아 서사의 형성과 전상신의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 여인발복설화 연구 속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정도, 인물(여성성)에 초점을 둔 주제적 접근의 연구가 그것이다. 일련의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5·60년대 진행된 민속학적 접근의 신화수집과 연구가 이후 본풀이 연구, 신화 연구, 신화와 민담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 문학적 주제 접근

의 연구 등의 토대가 됨을 알게 된다. 하지만 비교 연구보다 단독 연구의 수는 적었으며 더욱이 <삼공본풀이>가 어린이책으로 변용되는 양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술 분야로의 변용과 유아 교육적 가치가 연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삼공본풀이>의 어린이책으로의 변용 양상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도 하겠다. 이에 현재까지의 <삼공본풀이>의 어린이책 변용 양상을 살피는 본 연구는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전승의 방향을 잡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삼공본풀이> 무가가 실려 있는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아키바 다카시・아카마쓰 지죠,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민속원, 2013)
3)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4)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각, 2007)
5)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 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각 자료를 구술에 참여한 심방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박봉춘 본(1937년, 아키바 다카시 외 채록)
2) 고대중 본(1962년, 46세, 장주근 채록)
3) 김계림 본(1968년[7], 67세, 진성기 채록)
4) 안사인 본(1980년[8], 현용준 채록)
5) 문순실 본(1997년, 문무병 채록)

---

7) 채집한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료를 묶어 출판된 시기가 1968년이다.
8) 현용준은 앞의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개정판을 내면서'의 서두를 "이 책은 1969년에 탈고되었다"로 시작한다. 또한 '일러두기'에서는 1956년 3월부터 1963년 7월까지 수집하였음을 밝혀 두었다.

이 중 1)~4)를 본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삼겠다.[9]

위의 채록 본을 비교해 보면 참여하는 구술자에 따라 다소 화소의 변이와 탈락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서사구조는 비슷하다. 그 이유는 <삼공본풀이>가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불리어졌고 당신본풀이와 달리 일반신본풀이는 제주 큰굿 제의에서 공통으로 구송되어지는 것으로, 심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면 위신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심방 전수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구술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갖는 만큼 화소의 변이와 탈락을 중심으로 이본을 비교 분석하여 기본 서사 단락을 추출하고 주요 모티프를 찾아보겠다.[10]

<삼공본풀이>는 신화로서 '전상신' 감은장아기의 전기적 일생을 풀어내는 서사이다. 이때 감은장이 겪는 일련의 경험과정을 보면, 인간은 출

---

9) 5) 문순실 본(1997년, 문무병 채록)의 구술자 문순실씨가 수집에 참여한 시기는 칠머리당굿보존회의 회원으로 이중춘씨에게 굿을 배우는 중이었지만 이전에는 안사인 심방에게서 굿을 배웠다고 한다.(『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1997, 칠머리당굿보존회) 자연 안사인 본과 유사성이 예상되며 실제 자료를 비교해보아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여러 대목에서 탈락도 보인다. 안사인 심방에게 전수 받은 후 세대 심방의 문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 자료에서 제외하겠다. 당시 모계성을 따르던 문순실씨는 이후 아버지 성을 따라 서순실씨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제주굿보존회 회장이며 김녕리 마을 당맨심방으로 제주굿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10)이 글에서 신화 분석에 사용한 모티프, 화소, 에피소드, 서사 단락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톰슨에 의하면, **모티프**는 매우 간단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범세계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妖精 *fairy*, 마술사 *witch*, 龍, 괴물, 악한 계모, 말하는 동물 등등과 같은 것은 모티프가 될 수 있다. 또한 모티프는 신비스런 세계나, 혹은 呪寶 *magic object,* 신비스런 현상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모티프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란 결코 모티프가 못되지만, '계모'는 그녀가 적어도 범상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티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설화의 최소 단위로 흔히 국내에서는 '화소'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화소에 대한 서구어가 'motif'인지 아니면 'element' 또는 'zug'인지 분명하지가 않다."(S. Thompson, 1961, 조희웅, 1996 : 4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는 모티프와 화소를 각각 다른 의미의 용어로 사용한다. 모티프는 톰슨의 모티프를 원어 그대로 수용하면서 **화소**에 대해서는 최래옥이 말한 '모티프보다 그 아래 들어갈 작은 설화 단위'(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에서 재인용)로서의 화소(話素, tale element)를 어의로 수용하겠다. 그리고 에피소드(episode)는 라이엔(F. von der Leyen)의 말을 빌면 모티프가 몇 개 모인 것(조희웅, 1996 : 1에서 재인용)이라고 한다. 그는 이어 에피소드가 모여 하나의 설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 **서사 단락**이란 서사의 기본 단위로 행위자가 하나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완결한 것을 하나의 단위로 나눈 것(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편)이다.

생에서 죽음까지 다양한 의식 과정을 거친다는 반겐넵(Arnold van Gennep)의 통과의례[11]와 유사성이 많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삼공본풀이> 기본 서사와 모티프를 반겐넵의 통과의례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겠다. 이 과정을 통해 감은장에게서 인간 삶의 보편 모습이 발견될 것이라고 본다. 감은장의 서사가 아동문학에 수용된다면 어린 독자들은 인생의 고비마다 감은장이 보여준 지혜를 선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삼공분풀이>가 아동문학에 수용되어 많이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감은장아기>의 전승적 가치를 규명하고 어린이책 속에 그 가치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감은장아기 이야기가 실려 있는 어린이책을 찾아보았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공본풀이>를 재화하여 출간된 이야기책과 그림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1> <감은장아기> 출판 현황

	이야기책[12]			**그림책**				
출판 년도	작가 (엮음)	도서명	출판사	글	그림	도서명	출판사	비고
1980	**이원수. 손동인**	**한국 전래동화집(4)[13]**	**창비**					
1995	김종상	새로 찾은 우리 신화	예림당					
2003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현암사**					
2004	김원석	삼신할미가 된 당곰애기	대교출판	**이산하**	**김정화**	**감은장아기**	**몬테소리**	**전집**
2009	**최정원**	**(내복에 산다) 감은장아기**	**교학사**	조호상	최선경	가믄장아기	한솔교육	전집
2010	현동훈	아빠가 들려주는 제주 설화	스토리하우스					
2010	이승직외	가믄장아기	아동문예					
2011	우리누리	이야기가 술술 우리 신화	중앙북스					
2012				**서정오**	**한태희**	**감은장아기**	**봄봄**	**단행본**

11) 반겐넵, 『통과의례』, 전경수역, 1985, 을유문화사

2013				김영란	심수근	가믄장아기	대교	전집
				이안	**이윤선**	**감은장아기**	**을파소**	**단행본**
2014				고순덕	주미혜	감은장아기	이수	전집

위의 이야기책 목록 중 1) 이원수·손동인 본 2) 서정오 본, 3) 최정원 본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1)은 신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이전 감은장아기가 최초로 재화된 모습이라는 점과 아동문학사에서 이원수·손동인이 갖는 위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 아동문학 작가는 <삼공본풀이>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화했는지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2)는 현재 옛이야기를 활발하게 재화하고 있는 대표 작가이자 연구자의 재화라는 면에서 관심을 끈다. 서정오 본은 동일 작가의 글이 그림책(봄봄 본) 글로 변하는 양상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이 글의 후반부에서 두 재화 글의 상호 비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3)은 단편으로 구성된 다른 글들과 달리 168쪽의 장편에 가까운 분량이다. <감은장아기> 한 편만으로 구성된 단행본으로 현재 인터넷상에 관련 글도 많이 보이는 책이다. 작가는 신화의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꾸몄다고 밝히고 있는데 160여 쪽의 장편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그 외의 재화에 대해서는 변용 양상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짚어보겠다.

그림책은 이야기책보다는 늦게, 대형 출판사에서 전집으로 출간을 시작하였다. <감은장아기> 그림책 총 여섯 권 중 단행본은 2012년 봄봄 본과 2013년 을파소 본 두 권뿐이다. 많이 알려진 다른 이야기 그림책에 비하면 발행된 <감은장아기> 그림책의 절대적 수효도 적지만 그나마 전

12) 『살아 있는 우리 신화』(신동흔, 한겨레신문사, 2004)에도 '감은장애기' 이야기가 실려 있지만 이 책은 어린이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13) 창비에서 1980년 출간한 이원수. 손동인 엮음의 『한국 전래 동화집4』는 개정1판(1990년), 개정2판(2001년)을 발행하는 동안 제목을 『황금대들보』로 바꾸었다. 그 중 감은장아기의 본문 내용은 바뀐 곳 없이 그대로 이다.

집류 위주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단행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전집류의 비중이 크므로 전집류 중 최초의 그림책인 몬테소리 본을 함께 살펴보겠다.

그림책의 글은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축약시킨 형태로 서로 거의 비슷하다. 최근의 이수 본을 제외하고는 저본을 밝히지 않았으며 각 그림책의 글 속에는 무가본의 이본 내용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책보다 선행되었던 이야기책 재화본의 내용도 들어있다. 그래서 2장에서 추출하는 주요 서사 단락의 핵심 화소를 기준으로 무가본, 이야기책 재화본을 함께 비교하면서 그림책 글로의 변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을 살피는 방법은 그림 서사의 독자적 독해 가능성,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형상화와 관계의 표현 방식, 시·공간의 가독성, 주요 화소의 유무와 표현방법, 미적 아름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개별 텍스트 안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살펴보고 선정한 그림책끼리 상호 비교를 통해 본보기가 되는 예를 찾아보겠다.

본 연구는 <삼공본풀이>의 가치 규명을 통해서 어린이책 <가믄장아기>가 신화를 제대로 전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과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위해 본론에서 다음의 연구 과정을 보이겠다.

1. 현재까지 알려진 네 편의 <삼공본풀이> 무가 자료를 통하여 핵심 서사 단락을 추출한다.
2. 그 서사의 의미를 해석하고 상징을 분석하여 추출한 서사의 보편성과 가치를 입증하겠다.
3. 현재 옛이야기 전승의 주요 매체를 이야기책과 그림책으로 보고 변용 양상의 실태를 분석하겠다.
4. 분석을 통해 보이는 작품들의 장단점을 통해 어린이책 <감은장아기>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하겠다.

Ⅱ. <삼공본풀이>의 서사가 지닌 통과의례 양상과 가치

1. <삼공본풀이> 서사 내용과 핵심 화소

현재까지 수집·채록되어 문헌에 실린 <삼공본풀이> 자료는 박봉춘 본, 고대중 본, 김계림 본, 안사인 본이 있으며 그 외 문순실 본, 정태진 본, 오춘옥 본 등이 있다.[14] 자료의 구연자들은 모두 제주도의 심방이며 특히 문순실, 정태진, 오춘옥 심방은 앞의 큰 심방에게서 전수받은 차세대 심방들이다. 당의 매인심방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큰 심방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선생들의 문서가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더 크다고 본다. 하여 박봉춘 본, 고대중 본, 김계림 본, 안사인 본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겠다.

박봉춘 본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채록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료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변질 가능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고대중 본, 김계림 본, 안사인 본은 문헌에 실린 시기는 다르지만 저자들이 머리말이나 후기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수집된 자료임을 알게 된다.[15]

고대중 본은 장주근에 의해 수집되었는데 그는 구술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배경, 가문, 경력과 성실성 등을 숙고하여 고대중 씨를 선정하였다(장주근, 2013 : 81). 그리고 그의 성실하고 엄격한 구연과정을 덧붙이면서 믿을 만한 자료임을 강조하였다.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는 하나의 일반본풀이에 대해

14) 이외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에는 이용옥심방과 양창보 심방의 본풀이가 요약되어 실려 있다. 하지만 다른 자료에 비해 짧으며 요약본이어서 자료로서 활용되기에는 미흡하다.

15) 셋 중 수집한 연도를 밝힌 자료는 고대중 본(1962년 채록) 이 유일하다. 김계림 본은 1968년 발간된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 실려 있으므로 그 이전에 채록되었을 것이며 안사인 본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의 일러두기를 통해 1956년 3월부터 1963년 7월까지의 사이에 수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여러 구술자의 각 편이 실려 있다는 것이 특기할 점인데 아쉽게도 <삼공본풀이>와 관련해서는 김계림 본 한 편만 실려 있다.

안사인 본은 현재 본풀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다른 이본에 비해 서사가 풍부하다.

연구 범위에서 전술한 것처럼 각 이본의 서사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심방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므로 구술자의 능력과 처한 환경(성별·나이·채록 시기), 성향에 따라 가감이나 각색되는 부분은 있다. 또 음성을 문자화하는 과정에서도 변이가 나타난다.

네 편의 이본을 비교가 수월하도록 표로 정리하였다.

<표-2> <삼공본풀이> 무가본의 서사 비교

	박봉춘 본	고대중 본	김계림 본	안사인 본
부모 이름	한림수사, 구에궁전너설부인	강이영성이수불 홍문소천구애궁전	웃상실, 젯상실	강이영성이서블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
부모 살던 곳	웃상실, 알상실	웃상실, 젓상실		
세 딸 이름	인장, 놋장, 감은장	은장, 놋장, 감은장	은장, 놋장, 감은장	은장, 놋장, 가믄장
동네 사람들의 도움	언급 없음	첫째는 은장아기 태어나고 둘째는 놋장아기 태어나고 셋째는 감은장애기가 태어나서 동네 집이서 밥 주라고 그릇에 밥을 가져다주어서 아니 찾아가고 불쌍하다고 근근히 생활을 하는 중에	처음 낳은 것이 은장애기 두 번째 낳은 것이 놋장아기 그 딸 성제 솟아나난 아침인 밥을 먹고 저녁인 죽을 쑤니까 동냥하기를 그만두고 그 형제를 키워두고서 난 것은 감은장애기로구나	일가친척 없고 먹을 쌀 입을 옷 없었으나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여 살려주니 은장아기로 이름삼자 지어놓고… 동네 사람 모여들어 놋그릇에… 동네 사람 모여들어 남박새기에…
부모의 부자 원인	끝에 딸 감은장아기가 나온 후에	감은장아기가 솟아난 후에	이 애기가 커가난	세형제가 솟아나 차차 발복되어
집 떠나는 나이	×	15세	십여남은	15세

아버지의 질문 계기	×	비오는 날 호강에 겨운 소리로	비오는 날 심심하여	비오는 날 심심하여
묻는 말	누구 덕으로 사느냐	누구 덕에 밥을 먹고 은대야에 세수하고 놋대야에 세수하느냐	누구 덕에 사느냐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 발신하느냐
큰딸, 둘째딸의 대답	부모님 덕	아버님+어머님 덕	하느님+지애님+아방왕+어멍왕 덕	하늘님+지애님+아바님+어머님 덕
셋째 딸의 대답	하느님+따님+부모님+뱃동아래 선금은 덕	하늘님+지애님+아바님+어머님+나 배또롱아래 선 그믓 덕	하느님+지애님+아방왕+어멍왕+뱃똥아래 선 그믓이 덕	하늘님+지애님+아바님+어머님+배또롱 아래 선 그믄 덕
들고 나오는 것	검은 암소, 의복행장, 계집하님	검은 암소, 십오세 이전 옷, 하녀	검은 암소, 입던 의복, 하녀	검은 암소, 입던 입성, 먹을 군량
다시 불러들이기	차마 미안하여 진짜 가고 있는가 보고 와서 일러라	불러오라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	식은 밥에 물 말아먹고 가라고
두 언니의 거짓말	어서 속히 도망가라. 너를 죽이려나오실 모양이야	빨리 가라, 어머님 아바님 성질을 모르느냐	어서 빨리 가라. 아버님 어머님이 때리러 나오고 있다.	빨리 가라, 부모님이 때리러 나온다
두 언니의 변신	지네, 말똥버섯	용달버섯, 풋버랭이(순서 다름)	청주넹이, 말똥버섯	청지네, 용달버섯
변신과 막내의 관련성	나쁜 마음이 미워서 도술부려	×	×	주문(~로 환생합서.)
부모 실명 원인	감은장이 가루 한줌 뿌려	부-창문으로 내달리다가 풍챗작대기에 눈찔려, 모-대문으로 달리다가 문 윗턱에 있는 닫을 때 거는 고리에 눈을 찔려	모-부엌문에 부딪혀, 부-대문 벽선에 쏘아서	문 웃지방에 눈이 걸려서
폐망 원인	오방신장 불러내서 집안 망하게 됨	가옥은 천화가 나서 멸망, 두 소경이 한지팡	얻어먹는 신세가 됨	앉아서 먹고 입고 써 재산 탕진

		이 들고 다시 걸바시가 됨		
길 물음	인간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면 인간처를 가오리까	언제면 인간처가 보입니까	×
길 물음에 세 아들의 반응	두 형- 욕함(별 고약한 년 처음 본다.) 막내-아랫녁에 초막사리 늙은 할망사는 곳이 있다고 친절히 대답함	두 형-욕함(여자는 꿈에 봐도 사물이다.) 막내-이 고개 저 고개 넘어 비서리초막에 청태산 마고할망 사는 데가 있다고 알려줌	두 형- 욕(그 년으 십에 남은 년 때문에 마모가지만 잃어버렸다. 돌로 닥닥 마쳐버릴까) 막내-이쪽으로 가면 오막살이가 있으니 빌려보고 안되면 문밖에라도 있으십시오.	×
유숙 청하기 문답	초막사리 집이 좁고 사람이 많이 있어서 곤란하나 어서 잣다가 가시오	집이 좁아 빌릴 데가 없다/ 마당구석이라도 빌려 달라./ 허락	아들이 욕해서 안된다./ 문밖에라도 있겠다./허락	우리 집엔 아들 삼형제 있고 빈방도 없다./ 부엌이라도 묵어가게 해 달라./허락
손님에 대한 반응	두형- 먹일 것도 없고 집은 좁은데 쓸데없이 손님을 들었다고 불평, 막내- 잘 유숙케 하였다고 함	두 형- 마 파다 먹였더니 길거리 가는 여자 들였다고 욕함 막내- 잘 빌렸습니다고 말함	두형- 여자는 꿈에 봐도 사물인데 망하겠구나하며 욕함 막내- 소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와서 부자 되겠다고 함	두형- 마파다 잘 먹이니 길가는 계집애 데려다 놀고 있다. 막내-하늘에서 돕는 일이라 함
마 나누기	두형- 한잔동은 자기네, 모가지는 어멍, 꼬리는 손님 막내- 한잔동은 모친 윗목은 손님, 자기는 꼬리	두 형- 복판은 자기, 목은 어멍, 꼬리는 손님 막내- 목과 꼬리 자기, 복판은 어멍과 손님	두 형- 머리는 어머니, 꼬리는 손님, 가운데는 자기들, 막내- 꼬리 나그네, 한잔동 어머니, 머리는 자기	두형- 잔동은 자기네, 목과꼬리 어머니 막내- 잔등 부모,
쌀밥 대접	밥을 지어 주인 가족들에게 모두 대접	솥을 빌려 연세 번을 닦아 밥을 지어 대접함	솥 빌려서 밥 대접	밥 대접
세 아들 반응	×	두 형-버랭이	형 들 - 조 상 적	노인부부-할아

		밥 안 먹는다. 막내- 메추리가 먹는 만큼씩, 병아리가 먹는 만큼씩 먹음. 두형도 나중엔 얻어먹음	부터 굼벵이밥은 먹어본 적 없어 안 먹겠다, 막내- 고맙다고 하며 먹음 직스럽게 먹음. 형들도 나중에 얻어먹음	버지 때도 안 먹었다며 거절, 두 형-조상도 안먹던 버렁이 밥이라고 거절 막내-크게 떠 먹음
신랑 요청	×	발막음 아들 보내달라 요구	발 시려서 아들 보내달라고 함.	
잠자리 요청에 반응	막내아들 불러서	두형- 죽이려느냐며 거절, 막내- 부모 말이라면 무엇이든 듣겠다며 응낙	두형- 길 가던 여자에게 보내어 죽여 먹으려느냐며 거절, 막내-그렇게 하지요. 죽더라도(생략)	언약이 되어
혼인의식/다음날	목욕시키고 의복 한 벌 입힘/부러워함	물 끓여 목욕, 새 옷 단장/ 형들이 몰라보고 절을 함. 부러워 함	목욕, 새 옷 단장/ 아침 형들이 절을 함, 부러워함	목욕, 새 옷 단장
마 파러 가자 형제 물음/아내 물음	거절/ 긍정	거절/ 긍정	× / 제안	×/ 제안
금 획득	말잿아덜 마파던 곳마다 황금이 가득가득	두 형 - 나뭇잎·자갈 막내- 금덩이, 옥덩이	물개똥, 쇠똥, 은덩이-장에 가서 팔아, 줄 만큼 달라	똥, 지네·뱀, 금덩이·은덩이
걸인 잔치/ 기간	걸인 잔치/ 연석달	걸인 잔치/ 이레	걸인 잔치/ 두이레	걸인 잔치/ 백일
대접 늑장 부리기	한 쪽으로 인도하여 두었다가 밤이 되어 사랑으로 청함	대접 늑장부리기, 아궁이지기 해달라고 함.	대접 늦추도록 지시함.	자리 대접 늑장 부림
과거 내력 말하는 주체	전후 사실 모두 말하여(어떤 사실인지, 누가 말했는지 모호함)[16]	강이영성과 홍문소천이 말함	주인이나 하십시오. 라는 말을 받아 감은장아기가 함	살아난 말은 말 할 거 있수다 라며 부모가 말함
부모 눈 뜨기	제가 말잿아기	살아온 이야기	나가 감은장애	감은장아기 소

	감은장아기씨…깜짝 놀래여 할 때 폐망된 부모 눈이 펄쩍 깨여	들은 후에 아버님 어머님이 술한 잔 받읍소서 잔 받으며 눈 번뜩 뜸	기 딸이우다하는 소리에 양손 주먹으로 양 눈을 치니 밝아짐.	리 듣고 들었던 잔 떨어뜨리며 눈이 팔롱하게 밝아짐
두 언니 후일담	마음이 나빠서 죄를 받아 지네, 말똥버섯으로 환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부자로 살게 된 것도 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알려주는 말)	×	×	×
신으로 좌정[17] (마무리)	저는 전상차지로 인간의 … 어떤 것이냐 물으니 전상은 다름이 아니라 … 인간살이 모든 일이 전상입니다.	부모자식이 만나 잘 삼	얻어먹던 습관으로 손도 검고 이가 나서 감은장이 따로 모시고 나와 살음	(굿의 제의과정인 '들어가는 말미'에서 전상에 대한 설명 있음[18])

표-2의 <삼공본풀이> 이본의 서사 비교표에 보이는 서술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감은장의 부모 살던 곳과 이름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모의 이름이 길기도 하지만 심방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보인다. 세 딸 중 두 언니의 이름은 은장·놋장으로 같지만 막내는 감은장과 가믄장으로 다르게 표기되었는데 이는 음성자료를 글자로 표기하

16) 김태곤, 『한국의 무속 연구』에서 채록 자료를 표준말로 옮겼는데 '~청하여 앉히고는 부모님께 "제가 바로 막내딸 감은장아기입니다."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생략)'으로 적었다. 274쪽

17) 원 채록 본들은 제의과정 속에서 신을 불러들인 후 그 신의 내력을 푸는 서사이기 때문에 "훗날 신이 되었다"는 식의 언급이 없다.

18)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167쪽 제의과정에서 이공본풀이에 이어지는 삼공본풀이는 '공선가선-날과 국섬김-집안 연유닦음-들어가는 말미-본풀이-비념-산받아 분부시뢈-주잔넘김-다음 재차로 넘김'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들어가는 말미'에 실린 내용은 '올라 웃상실 내려 젯상실 강이영성이서불 궁에궁신산마투리 가믄장아기 놋장아기 활하기도 전상 글하기도 전상 상업 농업 해업하기도 전상입네다. 나님 같은 나님전상 드님 같은 드님전상 신구산 대전상 난산국이외다.'이다.

는 데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은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검다'의 제주도 방언 '감다'에서 파생된 낱말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누구 덕에 사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언니들이 열거하는 대상이 이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감은장의 답은 하늘, 땅, 부모, 자기 배꼽 아래 선그믓 덕으로 모두 같다.

감은장이 집을 떠날 때 지니고 나오는 것이 안사인 본에서는 하녀 대신 먹을 군량(쌀)으로 바뀐다. 쫓겨나는 딸이 불쌍하여 다시 불러들이는 부모의 마음은 공통으로 나타나 있다. 거짓말한 언니들이 변신하는 대상도 지네·청지네, 말똥버섯·용달버섯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지네와 버섯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같다. 고대중 본에서는 순서가 달라지고 지네 대신 벌레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넓게 해석해서 벌레와 버섯으로 변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때 변신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박봉춘 본은 언니들의 나쁜 마음이 미워서 감은장이 도술을 부리며 안사인 본은 주문을 외운다. 하지만 고대중 본과 김계림 본에서는 감은장의 관여 없이 거짓말한 후 저절로 벌레와 버섯으로 변하게 된다.

박봉춘 본은 부모 안맹과 집안 몰락의 원인을 감은장이 가루 한 줌을 뿌려 실명하게 하고 오방신장 불러내어 일시에 망하게 하였다고 풀어 가는데 다른 이본의 자료는 급히 문을 넘어오다 다쳐서 실명하고 그 후로 집안도 몰락하는 거로 풀어냈다.

안사인 본에는 감은장이 길을 찾아 헤매다가 마퉁이들을 차례로 만나 길을 묻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유숙을 청하는 문답 부분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박봉춘 본은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거절과정 없이 곧장 들어오게 한다. 거절과 허락의 과정을 거치는 이본끼리도 마당·문밖·부엌 등으로 들이는 장소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방인인 감은장을 방으로 덥석 들이지 않는 공통점은 있다.

손님 대접과 마 나누기, 쌀밥 제공과 가족의 반응 양상을 모든 이본에서 언급하는데 다만 밥 대접과 관련해서 박봉춘 본은 밥을 대접했다는

설명으로만 지나간다.

발막음 아들을 요청하고 부정-부정-긍정의 문답 과정을 거치는 이본은 두 편이지만 목욕 후 새 옷을 입고 결혼하는 것은 무가본 서사의 공통적인 양상이다.

고대중 본은 세 번의 반복 구조가 특히 두드러져 결혼 다음 날 막내 마퉁이는 형-형-아내의 순차적 물음에 부정-부정-긍정으로 답을 한다.

막내 마퉁이가 마파던 곳에서 금이 나오는 것은 모두 같으나 형들의 구덩이에서는 나뭇잎·자갈, 물개똥·쇠똥, 똥·지네와 뱀으로 약간의 변이가 나타난다.

모든 이본에서 걸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기간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부모가 이리저리 앉을 때마다 부모 차례 바로 앞에서 음식이 떨어진 것처럼 하면서 늑장을 부리는 것은 한결같다. 김계림 본에 한 장면이 더 삽입되어 있는[19]외에 살아온 내력을 말하다[20] 감은장 소리에 눈을 번쩍 뜨는 마지막 장면도 같다 .

대부분의 이본에서 눈을 뜬 부모와 감은장이 상봉하는 장면으로 본풀이가 끝나는 것과 다르게 박봉춘 본은 전상에 관해 묻고 대답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21]

---

19)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102쪽 “아이고! 아이고! 두 이레 열 나흘째 왔지만 밥도 한술 못 얻어먹는 팔자.”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감은장애기가 말을 하되 “가지 맙서. 오늘 하루 종일 밥이 부족하여 못 먹였으니 밤에는 잘 먹게 하겠습니다.” 하며 사랑방으로 청합니다. 감은장애기가 밥상을 차려 들고 가니까 두 소경은 “개가 오고 있다.”하면서 지팡이로 와싹 때리니까 차려 놓은 상이 다 부서졌구나. “애이구! 우리 부모는 팔자가 그래서 밥 한상도 못 받아먹고 있구나.” 이제 물밥으로 바가지에 차려가서 “오늘 종일 못 먹었으니 잘 먹으십시오. (생략) ”라고 한다.

20) 같은 책 102쪽을 보면 김계림 본은 이 장면에서도 사연을 풀어내는 화자를 감은장으로 설정한다. “할머니네는 늘 동냥을 하였습니까? 전에는 잘 살았습니까? 살았던 말이나 하십시오.” “들은 말도 본 말도 없습니다. 주인이나 그런 말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과거 내력을 감은장이 풀어낸다.

21)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애기씨 하는 말이 인장애기셋장아기두형님은
마음이납바서죄를바다,큰형은지내로환생하고
셋형은말똥버섯으로환생하엿슴니다
저는전상차지로인간의나왓사오니
부모님이부자로살게된것도
제가잇기때문이엿슴니다말을하니

이상 서사의 흐름에 따라 이본에서 보이는 서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삼공본풀이> 무가본의 화소 비교

주요 화소 \ 이본	박봉춘 본	고대중 본	김계림 본	안사인 본
거지 부모	○	○	○	○
은장, 놋장, 감은장의 출생	○	○	○	○
동네 사람들의 도움	×	○	×	○
부모의 부자 되기	○	○	○	○
부자 되는 원인	끝엣딸	감은장	감은장	세 형제
복 문답	○	○	○	○
내 배꼽 아래 선그믓 덕	○	○	○	○
집 떠나는 나이	×	십 오세	십 여남은	십 오세
하녀	○	○	○	×
검은 암소	○	○	○	○
의복	○	○	○	○
쌀	×	×	×	○

부모궁말삼이,전상차지는엇떤것이냐하니
전상은다름이아니오라
인간세상장사하는것도전상이요
목수일도전상이요,농사지음도전상이요
술먹음도전상이요,담배먹음도전상이요
노름함도전상이요,밥먹음도전상이요
인간살이모든일이전상임니다
전상군줄은이러하옵니다
학겜미,족겜미,단단춘이옥년네,단년네
허와덱이,서천득이,막덱이,서덱이
청사록,백사록,나무광대,정적궁
불도신면,시왕수미,대사록
남산들머리임니다

다시 불러들이기	○	○	○	○
두 언니의 거짓말	○	○	○	○
두 언니의 변신	지네, 말똥버섯	용달버섯, 폿버랭이	청주넹이, 말똥버섯	청지네, 용달버섯
변신과 주술 관련성	도술 부려	×	×	주문 (~로 환생합서.)
부모 실명	○	○	○	○
세 마퉁이에게 길 물음	○	○	○	×
초막에서 묵는 장소	집 안	마당 구석	문 밖	부엌
손님에 대한 두 형의 불평과 막내의 호의	○	○	○	○
마 나누기	○	○	○	○
쌀밥 대접	○	○	○	○
밥에 대한 마퉁이네의 반응	×	○	○	○
발막음 아들 요청(동침)	막내아들 을 불러서	○	○	언약이 되어
목욕과 새 옷 입기	○	○	○	○
금 획득	○	○	○	○
걸인 잔치(기간)	○(석 달)	○(이레)	○(두 이레)	○(백일)
대접 늑장부리기	○	○	○	○
내력 문답	전후 사실 모두 말하여	○	○	○
부모 눈 뜨기	○	○	○	○

셋 이상의 자료에서 발견되는 보편 화소를 중심으로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2]

22) 표-2에서 보이는 차이점 중 언니변신 대상, 초막에서 머무는 장소, 잔치 기간은 소소

1) 거지 부부가 길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마을에 머물러 산다.
2) 은장아기, 놋장아기, 감은장아기 세 딸을 낳고 부자가 된다.
3) 부모의 복 물음에 막내딸만 “내 배꼽 밑의 선그믓 덕으로 잘 산다”고 대답하여 검은 암소에 입던 행장을 싣고 하녀와 함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4) 동생을 불러들이라는 부모의 말과 반대로 거짓말을 한 언니들은 지네와 버섯으로 변신한다.
5) 부모는 문에 눈을 찔려 장님이 되고 또다시 얻어먹으러 다니는 신세가 된다.
6) 길을 묻는 감은장에게 큰형과 둘째는 욕을 하지만 막내는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7) 마퉁이[23]네 초막을 찾아가 유숙을 허락받는다.
8) 형들은 감은장을 집에 들인 부모를 나무라고 마를 삶아 자기들 욕심부터 채우지만, 막내는 부모와 손님에게 깍듯하게 대접한다.
9) 감은장이 쌀밥을 지어 대접하자 버러지 밥이라며 모두 거절하지만, 막내는 맛있게 먹는다.
10) 감은장이 발막아주면서 같이 잘 아들을 청하자 두 형은 거절하지만, 막내는 수락한다.
11) 막내 마퉁이를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 둘은 부부가 된다.
12) 막내의 마 파던 구덩이에서 금덩이가 나와 큰 부자가 된다.
13) 걸인잔치에 찾아온 부모에게 음식대접을 늦추고 따로 남긴 뒤, 사랑방으로 모셔 대접한 후 살아온 내력을 들려달라고 청한다.

한 차이로 서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길 떠나면서 양식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안사인 본뿐인데 모든 이본에 등장하는 검은 암소와 하녀, 의복에 비해 양식이 갖는 의미의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언니변신에 직접 관여하는 감은장의 주술성이 두 편의 이본에만 보이는 것은 이 신화의 성격이 감은장의 주술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세 딸의 출생과 동네사람들(공동체사회)의 관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두 편의 이본에만 나오지만 중요화소로 수용하겠다.

23) 마퉁이는 마캐는 남자를 일컫는 말로 마동(麻童)이의 의미이다.

14) 내력을 듣고 감은장임을 밝히자 부모의 눈이 번쩍 떠진다.

2. <삼공본풀이>의 통과의례 양상과 문학교육적 가치

반겐넵은 인생의 고비에 겪게 되는 의식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과의례(1908, 전경수역, 1985 : 6)라고 불렀다. 그리고 의식의 질서와 내용을 따라 분석해 보면 분리, 전이,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분리, 전이, 통합과정은 일직선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식 유형에서는 그 순서가 반복되기도 한다(같은 책 : 41)고 설명하였다.

<삼공본풀이>는 감은장의 출생에서 좌정까지의 내력이 담긴 인생담으로 서사 속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통과의례가 그대로 들어있다. 위의 서사 단락 1) - 5)는 출생에서 15세 성인이 되어 집을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로 분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 10)은 감은장이 새로운 집단을 만나 인연을 만들어가는 전이의 과정이다. 11) - 14)는 감은장이 마퉁이와 통합하여 이룬 부(富)로 중생 보시와 부모 구제 및 화합을 이루는 이야기로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은장의 서사가 지니는 보편성을 반겐넵의 통과의례에 적용하면서 <삼공본풀이>에 함축된 문화기호와 상징을 살펴보겠다.

(1) 분리-출생과 축출

>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라는 남자 거지는 윗마을에 살고, 홍은소천이라는 여자 거지는 아랫마을에 살았다. 흉년이 들어 얻어먹기가 어려워진 해 강이영성은 아랫마을이 시절이 좋다고 듣고, 아랫마을의 홍은소천은 윗마을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떠나는 중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딸이 태어나자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가루를 타 먹여 키워주어 은장아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모여 놋

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이고 놋장아기라 이름을 지었다.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검은 나무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여 살려주니 감은장아기로 이름을 지었다. 감은장이 태어난 뒤 살림이 좋아져 논과 밭을 사고 소와 말도 사고 천하 거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감은장의 출생은 부모와의 신체적 분리이며 동네 사람들이 먹여주고 키워준 것, 이름 지어준 것은 사회로의 전이인 동시에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은장의 부모가 거지였을 때는 낮은 신분의 가난하고 개별적인 존재였지만 결혼 후 정착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된다. 흉년, 풍년, 밭, 논, 말과 소, 가루 등의 낱말을 통해 부모가 정착한 사회는 농경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사회이며 따라서 부의 축적도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이 아닌 세 딸의 출생에 온 마을이 관여했음에 주목하면 그 사회는 적어도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가부장적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게 된다. 감은장은 출생을 통해 부모와 신체적 분리를 겪고 여성 중심적 문화가 남아있는 농경사회로의 전이와 통합을 이루었다.

감은장이 십 오세가 되던 해 어느 비 오는 날, 부부는 딸을 불러 놓고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고 물어보았다. 큰딸과 작은딸이 부모님 덕으로 잘 산다고 대답하자 기뻐하였으나 막내딸은 부모님 덕도 있지만 내 배꼽 아래선 그믓 덕으로 잘 산다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에 화가 난 부모는 검은 암소에 입던 옷을 실어서 하녀와 함께 쫓아낸다. 그러나 곧 큰딸을 불러 동생더러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 이르라고 시켰다. 큰딸이 대문간에 나가 “어서 도망가라. 부모님이 널 때리러 나오신다.”라고 말한 뒤 말팡돌 아래 내려서자 지네로 환생하고, 둘째 딸에게도 시켰으나 언니와 똑같은 소리를 지른 뒤 두엄더미에서 내려서자 버섯으로 환생하였다. 딸들이 모두 소식이 없자 부부는 서둘러 나서다 문간에 눈을 찔리고, 장님이 되어 재산도 잃고 다시 거지가 되었다.

모든 문화권의 개인은 부모의 보호 아래 키워져 일정 시기가 되면 성년식, 입사식을 치른다. 유교에서 관혼상제를 중시한 것도 이 시기를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십 오세를 성년이 되는 시기로 보았다. 감은장도 십 오세가 되었을 때 부모 앞에 불려 나와 아버지의 물음에 답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인식의 문답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십 오세가 된 감은장은 부모와의 정신적인 분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핍 또는 시련을 경험할 수 있다. 감은장이 집을 떠나는 표면적 원인은 '부녀갈등'이다. 이때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과거 지향적 인물이며 언니들은 부모에게는 아첨으로 의존하고 동생에게는 거짓말로 핍박하는 인물이다. 부모님의 "누구 덕에 사느냐?"는 물음에 두 언니는 부모 덕이라고 답하지만 감은장은 "내 배또롱(배꼽) 아래 선 그믓 덕에 삽니다."라고 답하여 집에서 쫓겨난다. 부모를 기쁘게 해주었지만, 의존적 삶의 자세를 보인 언니들은 인간의 삶을 지속하지 못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감은장은 비록 쫓겨나는 처지이지만 인간의 삶을 지속한다. 결국, 감은장은 성인식의 통과의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상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감은장이 과감히 내 덕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배꼽아래 선 그믓'이라는 여성성 때문이었다. '배꼽아래 선 그믓'은 여성의 성기, 자궁, 임신선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는 모두 여성성을 상징한다. 최래옥은 여성의 성기는 '여성의 복'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성숙한 여근의 소유자는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으므로, 자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라고 풀이 하였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윤리 규범을 강요하는 아버지에 대해 자신의 여성성으로 맞선 감은장은 성숙한 여인으로 독립적인 제주 여성의 원형이다. 제주에는 여신의 이야기가 풍부하다. 자청비, 당금애기, 선문대할망, 여산부인, 궤네깃또 등. 육지보다 제주에 여신이 특히나 많은 이유는 신들의 이야기인 본풀이가 여성 중심의 굿이라는 제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제주 여성은 독립적이며 강인하다. 일 년 사철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면서 논밭에 나가 농사일을 한다. 제주가 여다도(女多島)로 불리는 이유가 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섬의 경제적 주체인 여성이 섬을 떠나면 살아가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제주 여자는 육지로 나갈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였다.[24]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는 모계 중심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으며 육지보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공고해지는 데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육지 신화에 비해 제주 신화에는 여신이 많이 등장하며 주인공은 독립성이 강하다. 『제주문화 상징』(제주특별자치도, 2008)에 의하면 제주의 해녀와 고팡 분리를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한다. 해녀는 '삶의 어떤 악조건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삶의 지난한 여정을 헤쳐 가는 제주 여성의 상징'이며, '고팡[25] 분리'란 '결혼 시기부터 시어머니 세대와 분리된 독립적 주방, 고팡 소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녀로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는 제주 여성은 일찍이 경제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적인 주방과 고팡의 소유 및 관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제주 여성이었기에 감은장은 가부장적인 억압에 맞서서 '선그믓'이라는 여성성을 당당히 선언하고 아버지 또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감은장은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유교 봉건사회의 허위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이며 제주 여성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나이가 차도록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언니들은 "부모덕에 잘 산다."고 대답한다. 진심 여부를 떠나 개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므로 통과의례에서 탈락한 존재가 된다. 결국 벌레(지네)와

24) 조선 중기 조정은 제주도민이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을 내렸다. 특히 여자가 육지로 시집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25) 고팡(방)은 제주도 방언으로서 방 뒤쪽에 위치하며, 주로 곡류, 두류, 유채 등을 담는 항아리를 넣어두는 저장 공간이다.

버섯으로 전락하여 미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한국문화 상징사전』(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위원회, 1992)은 지네를 우리 고유어로 '습지의 벌레'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 우리 민담에서는 땅속이나, 굴, 또는 음침한 사당에 살며, 안개와 구름을 일으키고 농사와 기후 조절, 인간의 생명과 질병을 다스리는 조절자, 지하계의 신이나 지배자로 등장한다. 그 예로 <지네 장터>에서 지네는 마을에 우환을 끼치는 악신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부영은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지네는 인간의 무의식에 도사리며, 정신 기능을 조절하고 인격변환을 일으키는 자기 원형의 그림자, 즉 파괴적이고 반창조적인 측면의 상징이다. 이는 감정 표현의 억제와 희생을 강요해 온 우리의 경직된 전통 인습이며,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지배욕, 탐욕이다.'라고 설명한다. 문학상징사전에서는 '융에 의하면 벌레는 생명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본능적 충동의 세계를 상징한다.'면서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결국 벌레(지네)는 탐욕과 어리석음의 상징이며 지네로 변신한 큰딸은 부모 슬하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미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버섯도 '죽음, 몰락'을 상징한다. 버섯은 포자식물로 독자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기생식물이다. 포자는 균류로 식물도 동물도 아니다. 즉 작은딸이 버섯이 되는 것 또한 부모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로서 인간성을 상실한 미물과도 같은 삶을 상징한다.

버섯이 몰락을 상징하는 이야기는 <천지왕본풀이>(고대경, 1997)와 <두고도거지>(서정오, 2006)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천지왕이 쉬멩이에게 흉험을 내리자 집이 폐가가 된 듯 습기가 차고 용달버섯이 무수히 생겨나는 대목이 있으며 <두고도 거지>에서는 두 딸이 지붕에서 떨어져 죽은 자리에 쌍버섯이 나온다. 이때 용달버섯과 쌍버섯은 폐가, 죽음을 상징한다.

지네와 버섯은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생하려는 딸의 검은 마음과 욕심을 상징한 것이며 나쁜 전상의 인간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집안이 몰락할 것을 암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면서 부모의 안맹과 집안 몰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부모의 안맹은 분별력과 지혜의 상실을 상징한다. 자식이 크면 스스로 살도록 내보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하지만 감은장의 부모는 과거 거지였을 때의 힘들었던 경험에 매여 다 큰 딸들을 슬하에 두고 자족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키워놓은 막내가 자기 주체성을 드러내자 화를 내며 '어디 네가 부모 없이도 잘사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쫓아낸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시 집안(문안)으로 불러들이고자 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되어 버선발로 뛰어나오다 문에 찔려 소경이 된다.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진실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는 궁극적으로 앞 못 보는 소경과 같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과 어려웠던 과거를 잊고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 과시를 위해 딸들을 불러 공로를 인정받고자 한 부모는 자기중심적인 부모의 전형이다. 분별력과 지혜를 잃은 부모와 그들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딸들만 남아 있는 집안의 몰락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소경이 된 부모는 결국 다시 거지가 되고 만다.

어린 시절과의 분리를 완벽하게 이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은장에게 주어진 것은 검은 암소와 의복 행장과 하녀이다. 검은 암소는 생산성과 신성을 상징한다. '검은 암소'와 '감은장(검은 나무그릇)'에서 흑(검다)의 공통 상징을 찾을 수 있다. 흑(黑)은 오행 가운데 수에 상응하며 북쪽이고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 제주 방언인 '검다'라는 뜻은 신령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6] 그리고 농경시대의 제주 사람들에게 흑우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존재였다.[27] 제주 신화인 <초공본풀이>에도 검은 암소는 등장한다.

> "제집자식은 열다섯 시오세 출가외인이 되어 진다. 네가 갈 곳으로 나가라."
> 검은 암소 내어 놓고 행장거리 실어서 "어서가라." 하는구나.

---

26) http://storyjeju.com/3540
27)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경신인쇄사, 2009.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가 한 살적 두 살적 열다섯 십오세 전에 입던 의복 의장 속속들이 주워내고 검은 암소에 실어서 나아간다.

생산력과 주술력을 상징하는 암소는 하늘에서 내려와 콩쥐를 도와주기도 한다. 검은 암소는 주인공의 생산성과 신성을 상징하며 감은장에게 다가올 부와 행운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은장, 놋장, 감은장으로 점차 검어지는 색의 변화도 막내의 신성성을 극대화하면서 민중성을 담보하기 위한 진행이 아닌가 여겨진다.[28] '나무 그릇'의 나무는 소박한 이미지이지만 예로부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으며 민간신앙에서는 나무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지금도 산신목, 당산나무, 서낭나무, 신단수라는 낱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나무와 신성을 어렵잖게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렇듯 감은장(검은 나무 그릇)과 검은 암소는 생산력과 주술적 신성을 상징한다. 검은 암소와 감은장아기의 결합은 폭발적인 생산력과 신성의 상징이므로 쫓겨나는 상황과는 반대로 엄청난 부를 만들 것을 역설적으로 암시한다.

지금까지 감은장의 분리 의례 과정에 담겨있는 문화적 의미와 상징을 살펴보았다. 감은장의 출생이 부모와의 신체적 분리의 과정이라면 입사(入社) 시기 부모로부터의 축출은 정신적 분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정(부모)에서 사회로의 전이와 통합이 이루어지며 분리는 혹독한 결핍과 시련을 수반한다. 되돌릴 수 없으며 거부할 수도 없다. 이에 저항하면 징치가 이어진다. 감은장의 언니와 부모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검은 암소와 함께 길을 떠나는 감은장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진다.

---

28) 이 글의 맥락과는 다르지만, 채록 본 중에는 '동네 사람들의 성의가 식어져'라고 설명하는 이본도 있는데 이는 반겐넵의 통과의례에서 첫 출생에서 둘째 세 번째로 갈수록 중요도가 감소한다고 한 설명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2) 전이-여행 및 이주

감은장은 재를 넘고 산과 들을 지나면서 인간처를 찾다가 마를 파고 있는 사람이 보여서 하녀에게 사람 사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오라고 한다. 첫 번째 마퉁이는 욕설만 해대는 통에 그냥 돌아왔고, 다음에 만나는 두 번째 마퉁이에게도 욕설만 들었다. 그런데 세 번째 마퉁이는 집을 가르쳐 주면서 주인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면 문밖에라도 앉아 있으라고 한다. 가르쳐준 집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쉬어갈 것을 청하자 아들들이 있어 안 된다고 거절하여 밖에라도 있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마퉁이들이 차례로 돌아왔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손님과 어머니에게 욕을 하면서 들어오고 막내 마퉁이는 잘됐다고 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마를 삶아서 가운데 토막은 자기네가 먹고 나머지를 어머니와 손님에게 준다. 하지만 막내아들은 마를 삶아서 가운뎃부분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손님과 나누어 먹는다.

감은장이 솥을 빌려서 밥을 하고 상을 차렸는데 큰아들은 '굼벵이밥(버랭이밥)'이라고 하며 조상 때부터 그런 밥을 먹어본 적 없으니 안 먹겠다고 하였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다. 막내아들은 고맙다고 반색하며 쌀밥을 맛있게 먹는다. 그제야 형님들도 먹어보겠다며 얻어먹는다.

밤이 되자 감은장은 할머니에게 발이 시렵다고 하면서 발막음 할 아들 하나를 보내달라고 한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욕을 하면서 싫다고 한다. 막내아들은 "어머니 하는 말이니까 따르겠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 편안했던 가족의 품을 떠난 감은장은 새로운 사회를 만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감은장은 묻고 답하기를 통한 탐색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재를 넘고 산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던 끝에 마캐는 사람을 발견한다. 하지만 거듭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길을 묻는 이방인을 경계하고 욕을 하면서 쫓아낸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듣고 길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곳의 주인도 아들들이 있어 방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밖에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허락을 얻어낸다. 길고 험난한 일련의 과정은 감은장의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감은장은 지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 가까이 접근하여 전이와 통합을 위한 탐색을 계속 이어간다.

이윽고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나그네를 경계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니 그들은 부모에게도 공손하지 않고 홀대하는 인물이었다. 감은장 일행에게 친절히 길안내를 해주었던 막내는 유숙하는 일행을 환영하였으며 부모 공양도 극진했다. 경계하는 형들과 화합하려는 막내 사이의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대접하는 마를 받아먹은 감은장은 쌀밥을 지어 제공한다. 쌀밥은 농경문화의 상징이며 마만 채취해서 먹고 살던 그들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문화이다. 통합과 수용을 거부하는 두 형은 먹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성껏 지어 올린 쌀밥을 거부하며 나그네라는 이유로 여인도 거부한다. 형들과 달리 화합과 수용의 미덕을 보이는 막내가 결국 감은장과 결합하게 된다.

이 신화는 서사의 시작부터 3이 수없이 발견된다. 하늘·땅·마을, 세 딸, 세 번의 문답, 세 가지 변신, 세 마퉁이, 세 차례의 마 나누기와 쌀밥 대접, 세 번의 동침 문답 등. 그리고 일련의 서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부정-부정-긍정의 3단계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것은 감은장의 지난한 전이와 통합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복적인 3단계 화법을 통해서 감은장이 마침내 독립적 개체로 성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계속되는 3의 반복은 창조적 사유 법칙인 정·반·합의 3단 화법이다(문무병, 2013 : 185). 이 신화의 전승자들은 세상 모든 것들이 세 단계를 거쳐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통합'될 때 진정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인 마퉁이와 셋째 딸 감은장의 결합은 거대한 부를 이루어 이후 근원적인 통합을 실현하는 동력을 갖추게 된다.

감은장은 발이 시려 우니 발막음 하면서 함께 잘 아들을 보내달라고 집 주인에게 요청을 한다. 남성중심의 사회와 반대로 여성에게 남성을 보내 동침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삼공본풀이> 전승 집단의 여성 중심적

문화가 반영된 부분으로 보인다. 여성중심의 성생활은 모계 중심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섬으로 고립되었으며 일찍부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제주지역은 모계 중심 문화가 육지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게 한다.

(3) 통합-결혼과 화합

> 막내아들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힌 뒤 둘은 부부가 되었다. 형들은 다음 날 새 옷을 입은 동생을 몰라보고 절을 하면서 부러워한다. 이후 감은장 부부는 형제들이 마파던 곳에 가 보았다. 형들이 마파던 구멍에는 나뭇잎이나 똥이 차 있고 동생이 마파던 구멍엔 금덩이, 은덩이가 있었다. 감은장 부부는 천하 거부가 되었다.

결혼은 통합의례가 뚜렷한 의식이다(반겐넵 앞의 책 : 40). 감은장과 결합하기 전 막내아들은 목욕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의식을 치른다. 목욕은 물로 상징되는 재생을 암유하며 물의 정화력으로 신과 교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의식과도 연결된다. 새 옷을 입은 마퉁이는 과거를 벗고 새로운 인물로 탈바꿈하였다. 새사람(절세미남, 대장, 신선)으로 변한 동생을 형들도 몰라보고 꾸벅 절을 한다. 이는 혼례를 통하여 아이에서 어른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화소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감은장과 결합한 셋째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막내 마퉁이가 아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절을 하는 형들에게 동생임을 알려주자 마 캐러 나가려던 형들은 놀라면서도 곧이어 같이 가겠느냐고 묻는다.

> 족은 마퉁인 마 파레 아니 갈 테냐? / 아니 가쿠다.
> 아시야 마 파레 아니 갈 테냐? / 나는 아니 가쿠다.
> 낭군님아 낭군님아 어젯날 마 파단디 촞앙가 보기가 어찌ᄒᆞ오리까? / 걸랑 그리ᄒᆞ라. (고대중 본)

형들의 반복되는 물음에는 부정으로 답하지만, 아내의 제안에는 긍정으로 대답한다. 결혼 이후 감은장을 중심으로 통합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셋째와 셋째의 결합은 1+1 이상의 비범함을 발휘한다.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고 은이 되어 천하 거부가 되어간다.

살림이 좋아지자 부모가 거지가 되었을 것을 예견한 감은장은 거지 잔치를 크게 벌이고 부모를 기다린다. 잔치 마지막 날 어떤 두 소경이 들어서는데 분명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감은장은 하녀에게 “저 할망 할으방에게는 날이 저물 때까지 밥을 주지 말고 밥이 떨어졌다고 해라.”라고 당부한다. 부부가 위로 가 앉으면 아래부터 차려내어 음식을 떨어뜨리고 가운데 앉으면 양 끝부터 차려내어 떨어뜨린다.

잔치가 끝나 모두 돌아간 뒤,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두 소경을 사랑방으로 따로 모셔 후하게 대접한다. 그리고 감은장이 옛말이나 들은 말을 해보라고 청하지만 들은 말도 본 말도 없다고 한다. 그럼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자 그거라면 할 말이 많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살아온 내력을 털어놓는다.

감은장이 술잔 가득 술을 담아 올리며 자신이 바로 셋째 딸 감은장이라고 하자 두 소경은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린다. 그 순간 눈이 팔롱하게 밝아졌다.

감은장은 출생 이후 여러 가지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개인의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상신’의 신격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혼과 부가 감은장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도 아니다.

부자가 된 감은장은 남편과 상의하여 걸인잔치를 크게 연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들여 필요한 것을 나누어준다. 감은장이 태어났을 때 먹여주고 키워주던 마을공동체보다도 더 높은 경지의 화합을 도모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도착을 알게 된 감은장은 하인들에게 교묘하게 대접을 늦출 것을 당부한다.

“절로 오는 게와시랑 우으로 앚건 알로 멕여가당 떨어불곡, 가온디 앚건 양

끗으로 멕이당 떨어불라” (안사인 본)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부모가 겪게 되는 기다림과 서러움의 경험과정은 감은장의 지배질서 안으로 부모가 통합되는 전이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부모는 네 힘으로 잘 사는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감은장을 내쫓았지만 딸은 혼자서는 밥도 못 얻어먹음을 깨달은 부모를 불러들여 극진히 모신다. 잔칫집에 와서도 밥상을 못 받고 기다리는 동안 겪는 배고픔과 내처짐의 서러운 경험은 부모의 시련을 상징한다. 부모는 문답을 통한 자기 이력의 점검과 반성 후에 눈을 뜨게 되는데 부모의 개안은 무지로부터의 깨달음이며 자아와 타아가 통합되는 ‘세상으로의 눈뜸’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은장은 걸인잔치를 벌여 많은 대중을 먹이고 입혔으며 자신의 질서 안에서 부모와 화합을 이루었다. 공동체를 향한 공헌과 부모와의 진정한 통합을 거친 후에야 신화의 전승자들로부터 신격을 인정받고 ‘전상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전상’을 ‘전생’이라고 한 연구자들의 풀이를 주석 20)에 인용한 감은장의 말에 적용하면 ‘인간살이의 모든 일이 전생’이 된다.[29] ‘전상차지’ 감은장을 ‘전생인연의 신’으로 풀이한 장주근의 해석과 <삼공본풀이>의 근원설화를 밝히고자 한 황인덕의 연구는 맥이 닿아있다. 황인덕은 <삼공본풀이>의 근원설화가 불교설화인 석광공주설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 그 설화는 현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이 과거 전생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감은장의 ‘인간살이 모든 일이 전상’이라는 말은 석광공주설화의 주제와 비슷하다. 전생의 인연 또한 스스로 지은 업보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감은장은 ‘전생을 관장하는 신’이 아닌 ‘전생의 인연을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

29) 주석 20)의 하단에 나오는 전상군줄은 전상군졸의 방언이다. 무속에서 군졸이란 잡귀와 비슷한 뜻을 지닌 말로 잡귀는 저승도 못가고 이승도 못 오고 중천 허공을 떠도는 귀신이다. 전상군졸은 전상신이 거느리는 잡귀를 일컫는다.

그런데 장주근과 달리 ‘운명신적 성격의 신’으로 본 이수자의 연구 이후 감은장의 신직에 대해 ‘운명신’으로 보는 견해가 통념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감은장의 행적은 남의 삶을 주관하거나 강제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다른 인물들이 겪는 일도 원인 행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그 행위 또한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감은장의 ‘전상차지’는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전생의 인연을 아는 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감은장이 겪은 통과의례 양상 고찰을 통해 살펴본 <삼공본풀이> 서사가 갖는 문학적·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삼공본풀이>는 인생의 고비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치러야 할 보편적 의식이 함축되어 있는 신화이다.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겪어야 할 인간살이를 문학적 상징을 통해 보여준다.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태나 상호관계에는 전승되던 시대마다의 의식과 문화가 드러난다. 이야기는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그때 그 시대의 삶과 의식이 배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신화에는 원시공동체의 모계 중심적 문화도, 가부장 중심의 유교 문화도 들어있어 다양한 문화를 상징하는 체계를 담고 있다. 이 모든 문화적 기억은 또한 우리 DNA를 통해 전수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삼공본풀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신화라 하겠다.

<삼공본풀이>는 시대와 개인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삼공본풀이>는 윤회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물의 조화와 화합을 추구한다. 이를 구현하는데 개인에게는 자주, 배려, 이타 등의 인간 기본 품성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만인 행복을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과 부의 분배라는 사회적 가치도 보여준다. 감은장은 윤리와 규범을 달리하는 오랜 시기를 지나왔음에도 세상의 절반인 여성으로서 지향

해야 할 주체적 여성 원형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자는 감은장을 통해 도전과 성취의 여성 영웅의 형상, 자립적-개체적 여성 원형을 발견하였고 그 도전과 전복으로 시대마다 문화적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삼공본풀이>에는 부모자식 간, 남녀 간, 개인 간이라는 관계로 맺어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가치와 덕목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아동문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중첩되며 바람직한 사회상(像)이기도 하다.

Ⅲ. 이야기책 <감은장아기>의 변용 양상

우리 신화가 어린이 책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기가 한창이던 1990년 전후부터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신화 열풍에 각성한 연구자와 작가들은 '우리 신화'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신화를 찾아 알리기 시작하였다.

1995년 김종상은 『새로 찾은 우리 신화』의 책머리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우리 것을 귀히 여기자**
> 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있던 것은 시시하고 남의 것은 모두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중략)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는 민담이나 설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신화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남의 것을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버릇 때문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뜻에서 펴내는 책입니다.

서정오(2003)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에서 "우리 겨레는 그 어떤 민족보다 넉넉한 신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우리 신화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씌어졌다"고 하였고, 신동흔(2004)도 놀랍고 벅찬 사연의 우리 신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살아있는 우리 신화』(이하 『우리 신화』)를 저술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책을 살피는 의도도 위 작가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작가들이 왜 알려(가치)야 하고 어떻게 알려(방법)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친 후 올바른 관점을 갖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 논의를 위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감은장아기> 이야기책을 찾아보았다. 감은장이 등장하는 도서의 서지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감은장아기> 이야기책 서지 목록

출판 년도	작가	도서명	이야기 제목	출판사
1990	**이원수.손동인(엮음)**	**전래동화집(4)**	**가믄장아기**	**창비**
1995	김종상	새로 찾은 우리 신화	감은장아기	예림당
2003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감은장아기**	**현암사**
2004	김원석	'김원석 선생님의 다시 쓰는 우리 신화' 삼신할미가 된 당곰애기	감은장아기	대교출판
2009	**최정원**	**(내복에 산다)감은장아기**	**감은장아기**	**교학사**
2010	현동훈	아빠가 들려주는 제주 설화	가믄장아기	스토리하우스
	이승직외	가믄장 아기[30]	가믄장 아기	아동문예
2011	우리누리	이야기가 술술 우리 신화	가믄장 아기	주니어중앙

<감은장아기>는 1980년 창비에서 출간한 『한국 전래동화집』 제4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책은 이원수·손동인이 엮었으며 민담 26편, 신화 1편, 전설 3편으로 민담이 중심을 이룬다.

서정오 본는 어른아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신화를 재화한 것이다. 하

30) 모든 글이 이름인 '감은장'과 접미사 '-아기'를 붙여 '감은장아기'로 표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였다. 이 문제는 다음 칸의 우리누리의 글에서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58쪽 4) 그 밖의 이야기책들에서 다시 언급하였다.

지만 그림이나 삽화 없이 글만으로 구성되었고 활자도 여느 어린이책의 글씨보다 작다.[31] 서정오 본은 자료들을 여럿 대놓고 견주어보고, 좀 더 좋은 이야기가 되도록 화소들을 알맞게 늘어놓고 깎고 보태며 다듬어서 만들어졌다(서정오, 2003 : 5).

최정원 본은 168쪽으로 구성된 장편으로 12~13쪽 분량인 여타의 재화 본과 견주어 볼 때 기본 서사에 상당한 내용의 삽화나 에피소드가 추가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1. <감은장아기>의 변용 양상이 보여주는 세 가지 양태

위 세 작가의 글에 핵심 서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이후 그들의 재화 본에 대해 분석을 하겠다. 이미 밝힌 것처럼 세 작가의 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미가 있다.

1) 이원수·손동인 본 : 아동문학의 글로서 가장 먼저 선보인 이야기
2) 서정오 본 : 옛이야기 연구자이자 대표작가가 고쳐 쓴 이야기
3) 최정원 본 : 신화의 재창작을 시도한 이야기

다음 표는 Ⅱ장에서 추출한 바 있는 공통 화소를 기준으로 위 이본의 재화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표-5> <감은장아기> 이야기책 재화 비교

이본 / 주요 화소	채록 자료	재화 자료		
	안사인 본	이원수·손동인 본 1980년	서정오 본 2003년	최정원 본 2009년
거지 부모	강이영성이서블 홍운소천궁에궁전	강이영성, 홍은소천	강이영성이서불, 구에궁전너설궁	강이영성이서불, 홍운소천궁에궁전

31) 『우리 신화』를 이 글에서는 어린이 책으로 보고자 한다. 이미 이지호도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에서 어린이 책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서정오 본은 근래 나오는 <감은장아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궁납			
은장, 놋장, 감은장의 출생	은장, 놋장, 가믄장	은장, 놋장, 가믄장	은장, 놋장, 감은장	은장, 놋장, 감은장
동네 사람들의 도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와줄 때 죽을 담아주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	동네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먹여서, 전번처럼 정성들이지 않고 놋그릇에~, 성의가 식어서 나무 바가지에 ~	이웃의 도움 거론 없음. 이름 짓는 주체도 부모(첫딸이라 귀하다고 은그릇에 밥을 주고 씻겨줘도 모자란다고, 둘째라 아무래도 덜 귀해서 ~ 위에 딸 둘이 있어서 훨씬 덜 귀여워서~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은그릇을 만들어 암죽을 담아주어 은장, 끼니 걱정 없으니 놋그릇을 만들어~, 남의 도움 없이 잘 사니 검은 나무그릇 만들어~
부모의 부자 되기	딸 세 형제 태어난 후 차차이 발복되어	세 딸이 자라자 이상하게도 살림이 나날이 펴나서	막내딸이 태어나고부터 살림이 불어남	감은장의 친구인 청룡의 구슬을 팔아서 많은 논·밭을 산 뒤
복 문답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 발신하느냐/ 하늘님, 지애님, 아바님, 어머님 덕 하늘님, 지애님, 아바님, 어머님+배또롱 아래 선그믄 덕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출세하느냐/ 하느님, 땅님, 아버님, 어머님 덕 하느님, 땅님, 아버님, 어머님 +제 배에 그어진 금 때문에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 아버지,어머니 덕 하느님, 부모님, 저의 복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 하늘, 아버지,어머니 덕/ +조상님 하느님, 조상님, 부모님+제 배꼽 아래 검은 선
집 떠나는 나이	15세	언급 없음	15살	언급 없음
같이 떠나는 것	검은 암소, 입던 입성, 먹을 군량, 하녀	검은 암소 등에 입던 옷, 얼마간의 양식 싣고	남자 옷, 여자 옷 한 벌 , 쌀 서 되를 보퉁이에 싸고	검은 암소, 먹을 양식, 옷가지, 하녀(소 등에 싣고 감은장 태우고 하녀가 고삐 잡고)
다시 불러들이기	식은 밥에 물 말아먹고 가라고	식은 밥이나마 먹고 가라	밥이나 먹고 가라	찬물에 밥이라도 말아먹고 가라
두 언니의 거짓말	빨리 가라, 부모님이 때리러 나온다	동기- 사랑이 옮겨지고 재산을 나누어야 해서, 시기심이 많아 말- 아버지 어머니가 널	동기- 재산·사랑을 나누어야해서 쫓아내려고 말-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오니 도망가라	아버지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너를 때리려고 뒤따라 나오신다.

		때리려고 나오신다		
두 언니의 변신	청지네, 용달버섯	노둣돌 아래 지네, 두엄 아래 버섯	노둣돌 아래 청지네, 두엄더미 아래 말똥버섯	마루 밑 청지네, 담 밑 용달버섯
변신과 주술 관련성	주문(~로 환생합서.)에 의해	대답/중얼거림(~로 변해 잘사소)	진언을 침(~나 되십시오)	말함(~나 되십시오)
부모 실명	문지방에 눈이 걸려서	급히 나오다 상인방에 눈을 부딪쳐, 장님 거지됨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장님 거지됨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감은장이 뿌려놓은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장님 거지됨
세 마퉁이에게 길 물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사람 사는 집이 어디냐고 물음/ 퉁명하게 대하며 가르쳐 주지 않음/ 싹싹하게 잘 가르쳐줌	인가를 일러 달라/ 여자라고 무시하면서 성냄/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줌
초막 주인	할망, 하르방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초막에서의 문답과 묵는 장소	우리 집엔 아들 삼형제 있고 빈방도 없다./ 부엌이라도 묵어가게 해 달라./허락	우리 집엔 아들 삼형제 있어 잘 방이 없다./ 부엌에서라도 자고가게 해 달라./허락거절하다 부엌에 들임	방이 좁다고 하며 어서 들어오게 함	우리 집엔 아들 삼형제 있어 좁아 안 된다/ 마당에서라도 밤 지내게/ 허락하면서 방으로 들임
손님에 대한 두 형의 불평과 막내의 호의	두형- 마 파다 잘 먹이니 길가는 계집애 데려다 놀고 있다. 막내-하늘에서 돕는 일이라 함	두 형- 배불리 먹이니까 남 들여서 논다고 불평 셋째-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	두형은 화내며 소리지름 막내는 웃고 반가워하며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다고 말함	두 형- 집안에서 놀면서 계집애를 불러 들였다. 셋째- 집안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다,
마 나누기	두형- 잔동은 자기네, 목과꼬리 어머니 막내- 잔등 부모,	두형- 복판:자기네, 목과꼬리:부모와 손님 막내- 가운데 부모,	두형- 잔동:자기네, 목과꼬리: 어머니,손님 막내- 잔등:부모, 목과꼬리: 손님, 자기	두형- 가운데:자기들, 양 끝:어머니 막내- 부드럽고 맛있는 쪽:어머니, 감은장은 할머니의 마를 거절하고 밥을 지음
쌀밥 대접	쌀밥 대접	쌀밥 대접	쌀밥 대접	쌀밥 대접
밥에 대한 세 아들 반응	노인부부-할아버지 때도 안 먹었다며 거절, 두 형-조상도 안 먹던 버렁이밥이라고 거절 막내-크게 떠먹음	노인부부-어릴 적부터 먹어 본 일 없다. 두형- 조상님도 안 먹던 버러지 같은 밥 막내-씽긋 웃으며	할머니-언급 없음 두 형-맛없는 버러지밥 막내-맛있는 꿀밥	할머니-구더기 보는 것 같다. 두 형-하얀 벌레가 바글, 조상 때부터 먹어본 적 없다. 막내-맛있게 먹음

		맛있게 먹음		
발막음 아들 요청(세번 묻기)	언약이 되어 (×)	혼자 자는 것이 싫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누워 잘 아들 요청(○) →부부되자고 약속만 함	남자 옷 한 벌 내어 장가들겠는가 물어보라(○)	막내마퉁이가 청혼을 하여 결혼
목욕과 새 옷 입기	목욕, 새 옷 단장	목욕, 새 옷 단장, 갓(결혼 성립 언급 안 됨)	목욕×, 새 옷 입고 물 떠 놓고 백년가약	언급 없음
금 획득	똥, 지네·뱀, 금덩이·은덩이	똥, 지네·뱀, 금덩이·은덩이	똥, 뱀, 금덩이	숯막 고임돌이 황금→ 내다 팔라하여 흥정 후 팔음
걸인 잔치, 기간	걸인 잔치, 백일	거지 잔치, 석 달 열흘	거지 잔치, 석 달 열흘	거지 잔치, 백일
대접 늑장부리기	자리 대접 늑장부림	언급 없음	대접 일부러 늦춤	대접 일부러 늦춤
감은장의 내력 문답	옛말 해 달라- 없다 들은 말 본말 -없다 살아온 말 하라- 있다	옛이야기, 들은 거 없다 요새들은 말 없다 살아온 지난 일 있다	옛이야기, 요새들은 말 없다 살아온 이야기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본 것도 없다 살아온 야야기 많다
부모 눈 뜨기	감은장아기 소리 듣고 들었던 잔 떨어뜨리며 눈이 팔롱하게 밝아짐	감은장아기 소리 듣고 들었던 잔 떨어뜨리며 눈이 팔롱하게 밝아짐	내쫓는 대목에서 막내딸 여기 있다고 하자 놀라 소리치다가 눈 떠짐, 옛 집 찾아가 **언니를 사람으로 환생시킴**	고생했다며 술 한 잔 올리고 감은장이라고 하자 놀라 소리치다가 눈 떠짐, 언니들 환생시켜 형들과 결혼
신되기	풀이 중에는 없고 제의과정 앞의 '들어가는 말미'에서 전상에 대한 설명 있었음	언급 없음	운명신이 되었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운명신이 마련해 준 운명 때문이래.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주관하는 운명신의 자리에 올랐다.

재화된 이야기를 기본 서사와 비교하기 위하여 안사인 본을 함께 제시하였다. 안사인 본을 비교 기준으로 삼은 것은 원형서사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 아님을 밝혀둔다. 채록된 문서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뿐더러 <삼공본풀이> 이본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많은 연구물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위 작가들의 서사와 공통

점이 많기 때문이다. 안사인 본도 길 물음, 발 막음 아들을 요청하는 장면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다른 이본에 비해 표준어로 쓰여 있어 독해가 쉬우며 서사가 풍부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원수·손동인 본은 안사인본과 유사하다. 다만 쫓겨나는 나이가 언급되지 않고 잔치에 찾아온 부모를 따돌리면서 대접을 늦추는 장면도 탈락하였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약속만 언급된다. 목욕과 새 옷 입기도 이튿날 이루어지므로 결혼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유일하게 발막음 화소를 그대로 살렸다.

서정오 본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이 생략되었다. 검은 암소도 등장하지 않고 목욕의식 대신 물 떠놓고 백년가약을 맺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발막음 요구 대신 남자 옷을 꺼내놓고 청혼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유숙 요청에 대번 허락 하는 것은 안사인 본과는 다른 내용으로 박봉춘 본과 유사하다.

최정원 본은 많은 화소와 에피소드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나이, 목욕과 새 옷 입기 화소가 탈락되었다. 오방신, 구슬, 숯막 고임돌, 언니 구제 등은 안사인 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화소이며 막내아들과의 결혼도 막내 마퉁이의 청혼 때문에 이루어진다. 화소 구성면에서 서정오 본과 비슷하며 운명신으로 좌정하는 내용도 닮았다.

위의 내용을 화소 비교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6> <감은장아기> 이야기책 화소 비교

이본 / 주요 화소	채록 자료	재화 자료		
	안사인 본	이원수·손동인 본 1980년	서정오 본 2003년	최정원 본 2009년
거지 부모	○	○	○	○
은장, 놋장, 감은장의 출생	○	○	○	○
동네 사람들의 도움	○	○	×	○
부모의 부자 원인	세 딸	세 딸	막내딸	구슬

배꼽 아래 선그믓 덕	○	○	×	○
집 떠나는 나이	15세	×	15살	×
같이 떠나는 것	검은 암소 옷 하녀	검은 암소 옷 양식	남 녀 옷, 쌀	검은 암소 양식 옷 하녀
다시 불러들이기	○	○	○	○
두 언니의 거짓말	○	○	○	○
두 언니의 변신	청지네 용달버섯	지네 버섯	청지네 말똥버섯	청지네 용달버섯
변신과 주술 관련성	○	○	○	○
부모 실명 원인	문 에 찔려	문 에 찔려	문지방에 넘어져	문지방 , 가루
세 마퉁이에게 길 물음	×	×	○	○
초막 주인	노인부부	노인부부	할머니	할머니
초막에서의 문답과 묵는 장소	거절-허락, 부엌	거절-허락, 부엌	허락	거절-허락, 마당
손님에 대한 두 형의 불평과 막내의 호의	○	○	○	○
마 나누기	○	○	○	○
쌀밥 대접	○	○	○	○
밥에 대한 세 아들 반응	○	○	○	○
발막음 아들 요청, 세 번 묻기	언약으로, ×	발막음 요청, ○	옷 놓고 장가물음, ○	막내아들이 청혼 ×
목욕, 새 옷 입기	○, ○	이튿날 : ○, ○ 결혼 의미는 아님	×, ○ 물 떠 놓고 결혼	×
금 획득	구덩이에서	구덩이에서	구덩이에서	숯막 고임돌
걸인 잔치(기간)	○	○	○	○
대접 늑장부리기	○	×	○	○
감은장의 내력 문답	○	○	○	○
부모 눈 뜨기	○	○	○+언니재생	○+언니재생+ 형들과 결혼
신되기	×	×	운명신	운명신

채록 자료와의 비교표를 보면 작가들의 옛이야기를 고쳐 쓰는 방식이 드러난다. 이원수·손동인 본은 다시 쓰기로, 서정오 본은 고쳐 쓰기로, 최정원 본은 새로 쓰기로 재화하였음을 알게 된다[32]. 각 본의 재화 양상을 한 편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이원수·손동인 본 : 신화 다시 쓰기

이원수·손동인 본의 최대 장점은 발막음 화소를 그대로 살렸다는 점이다.[33] 이 화소는 안사인 본에는 없는 것으로 작가가 발 막음 화소를 중요한 화소로 여기고 다른 이본(고대중 본 또는 김계림 본)에서 수용한 것으로 예상한다. “저하고 같이 바람을 막아 주면서 누워 잘 아들이나 하나 보내 달라”는 말은 성(性)적 요구가 담긴 표현이지만 성이 노골적으로 겉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어린이 책에 나타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서정오를 비롯한 다른 작가들은 ‘발막음 아들 요청’ 부분을 아예 빼거나 남자 옷을 꺼내놓고 그 옷을 입을 아들을 골라달라든가 허혼을 요청하는 장면 등으로 변형하였다.

그러나 이원수·손동인 본의 작가는 바람 많은 제주의 부엌에서 혼자 자야하는 감은장이 발 막음 할 아들을 보내 달라는 말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기 민망하여 삭제해야 할 말이라고 여기지 않은 듯하다. 성이 감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막내 마퉁이와 부부가 되는 서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 막음 요청’ 화소는 두 편의 채록문서에 등장하는 보편 화소라 볼 수 있으며 상징적 의미가 담긴 상징 화소라고 여

32) 서정오는 『옛이야기 들려주기』에서 이야기를 글로 적을 때 나타나는 꼴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① 받아 쓰기-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 ② 떠올려 쓰기-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떠올려 쓴 것 ③ 다시 쓰기-말투나 곁가지를 조금 손질해서 쓴 것 ④ 고쳐 쓰기-줄거리를 군데군데 고쳐서 쓴 것 ⑤ 새로 쓰기-이야깃거리나 분위기만 빌려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

33) 이 밖에 이원수·손동인 본의 ‘제 배에 그어진 금’도 ‘배꼽아래 선그믓’의 표준어 표기로 무가 본의 내용을 최대한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겼을 것이다. '문자로서가 아닌 구전(口傳)으로 전해져 온 우리 민화, 전설 들을 문자로서 고정시키는 일은 조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 하면서 '자유로운 변형이나 픽션의 첨가를 피'한 초기 감은장 작가의 자세는 후속 작가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 여겨진다.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발막음을 목욕·새 옷 입기, 결혼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가는 목욕과 새 옷 입기를 단순하게 의관 갖추기의 과정으로 파악한 것 같다. 목욕·새 옷은 막내 마퉁이의 새로운 탄생과 재생을 상징하는 중요 화소이다. 물은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원초적인 생명수, 재생(再生), 역경, 고난, 세례, 청정, 정화, 여성, 풍요, 생산력, 신의 공물, 안식(安息), 신수(神水), 무의식, 무상(無常), 등 각이한 비유의 상징으로 표상된다. 목욕재계는 물의 정화력을 빌려 신과 교응할 수 있는 자질 또는 심신 상태를 갖추고자 함[34]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목욕과 새 옷 입기는 감은장의 신성과 막내 마퉁이의 재생을 상징하는 의식인 셈이다.

신화의 상징에 대한 이해 부족은 길 묻기와 대접 늦추기를 탈락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 세 형제에게 되풀이하는 길 묻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이것은 감은장이 집을 떠나 겪는 시련의 깊이를 상징한다. 또한, 감은장이 만나는 새로운 세계가 원시적이고 무지한 세계임을 보여주면서 그들과의 통합으로 이어질 전이의 여정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접 늦추기는 부모가 배고픔과 설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박복함을 깨닫고 과거 감은장이 느꼈을 고통에 대한 공감의 계기가 된다. 그 깨달음은 감은장과의 화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길 묻기는 감은장의 시련이고 대접 늦추기는 부모의 시련이다. 이 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은 이야기 전체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원수·손동인은 신화의 전승에서 비교적 채록본에 충실하였으나 신화적 요소인 전상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신화는 주인공의 출생과 사후 신이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전기적 형식을 갖춘

34) 『한국문화상징사전』, 285쪽

다. 하지만 이원수·손동인 본은 앞에서 주인공의 출생 내력을 밝히지만, 부모의 눈뜨기로 이야기를 맺으면서 신으로의 좌정 내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담식의 마무리는 <삼공본풀이>가 신화라는 사실을 자칫 잊게 할 수도 있다. 실제 본풀이는 신을 불러들이는 의식 후에 구연이 되므로 "나중에 신이 되었다."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신화'를 알리는 목적으로 쓴 글에서는 신으로의 좌정을 밝혀 신화에 맞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원수·손동인 본은 목욕·새 옷 입기에 대한 이해 부족, 길 묻기·대접 늦추기의 탈락과 전기적 형식의 미비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1980년 최초로 무가 속 신화를 어린이 책으로 수용하면서 '다시 쓰기'에 충실했던 재화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서정오 본 : 신화 고쳐 쓰기

서정오는 이 신화가 가지는 공동체성을 간과한 듯하다. 이 서사는 대동 놀이적 성격이 강한 '굿'이라는 제의 속에서 구연이 되던 신화였고 그것을 채록한 문서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그는 신화에 나오는 세 딸의 성장을 돕는 동네 사람의 관여를 걸러내 삭제하였다. 고대중과 안사인 본에는 거지 부부가 낳은 딸들을 먹여주고 키워주는 주체가 동네 사람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세 딸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김계림 본에는 동냥으로 딸 형제를 키우는 동안 살림이 나아져 죽과 밥으로 아침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동냥을 그만두었다고 나온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걸식에 호응해주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 사회가 어느 정도 역할과 책임을 담당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던 오랜 과거에도 공동체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그것이 사라지고 개인의 책무만 강조되는 이 시대 가치에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서정오 본은 이를 삭제시킴으로써

부모의 역할 만을 강조하는 불합리한 시대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삼공본풀이 이야기 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는 현대인과 미래를 살아갈 어린 독자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한 오류라고 생각한다. 이야기에 시대정신이 담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날 개인에 의해 바뀐 이야기가 작가의 명성을 믿는 독자들과 고민하지 않는 후속 작가에 의해 변형된 채로 고착·전승될까 염려된다.

또한 서정오 본은 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변경하여 재화하고 있다. “배꼽 아래 선그믓 덕”은 “저의 복”으로, “발막음 아들을 보내라”는 “이 옷을 입고 저한테 장가들려는지 물어보십시오.”로 바꾸었다. 앞의 말은 여성의 성을 상징하며 뒤의 것은 남녀의 동침을 상징한다. 이렇듯 성적인 요소를 삭제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변경된 듯하다. 하지만 그 결과 이 신화의 재미와 특성이 약화되고 ‘내 복에’ 민담과의 차별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선그믓과 발막음 화소는 이 신화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여성성’과 ‘여성의 주도성’을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상징 화소라 할 수 있다. 중요한 화소임에도 작가의 가치관에 의해 여지없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의 재화에 작가의 가치관이 투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재화본이라 하겠다.

유숙 요청에 단번 허락하는 것은 세 번씩 반복되는 이야기 리듬에 파열을 불러온다. 거절-사정-허락의 구조를 갖는 다른 이본이 있음에도 박봉춘 본을 따른 결과이다. 보편 서사도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고 거절을 당한 후 다시 사정해서 허락받는 구조이며 이것이 제주 신화의 특징인 3의 반복구조에도 잘 어울린다. 문학적 가치가 높은 이야기를 발견하여 일반 대중과 어린이에게 알리기 위한 재화를 할 때, 이본 간 화소의 차이가 있다면 보다 보편적인 화소를 수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검은 암소의 탈락도 좋은 재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검은 암소는 신화의 신성과 주술성을 상징하고 부유와 풍요를 기원하는 전승 집단의 의

식이 표현된 화소이다. 그것의 탈락 또한 이 신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겨진다.

또 막내 마퉁이는 목욕 후 새 옷을 입고 감은장과 결혼하는 대신 '물 한 그릇 떠놓고' 부부가 된다. '물 한 그릇'은 가난한 살림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감은장과 결합하는 마퉁이의 환골탈태를 보여주지 못한다. <삼공본풀이>에서 마퉁이의 '목욕'은 지금까지의 무지와 원시적 문화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이며 가부장적 문화의 때를 벗고 감은장의 신성의 세계로 전이·통합되기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목욕' 화소를 빼고 '물 한 그릇'으로 대체한 것은 상징체계에 대한 작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서정오 본은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고자 원 서사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 아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한 해가 지나니 논밭이 생기고 두 해가 지나니 마소가 생기더니, 서너 해가 지나서는 언덕 위의 움막도 헐고 제법 번듯한 집을 지어서 살게 됐어. 이제는 얻어먹는 일도 그만두고 남들처럼 농사짓고 마소 먹이며 사는 거야. 집안에 온갖 살림 다 갖추고 말이야. 그러다가 한 십 년이 지나서는 큰 부자가 되었어. 푸른 기와집에 풍경 달고 비단옷 입고 온갖 살림 다 갖추고 살게 된 것이지.

한 해, 두 해, 서너 해, 10년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작가가 덧붙인 설명이다. 안사인 본에서는 "차차이 발복되어", 이원수 본에서는 "살림이 나날이 펴나서"로 간단히 표현되는 내용을 위와 같이 길게 표현한 것이다. 서사에 대한 이해는 높일 수 있으나 구비전승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정오는 『옛이야기 들려주기』에서 옛이야기 전승현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들려주기'라고 하였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장황한 묘사나 설명 없이 줄거리를 따라 성큼성큼 나아가야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데, 이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는 듣는 사람의 상상이 자연스럽게 끼어들게 된다."(서정오, 2014 : 108)고도 하였다. 구비현장에서 자세한 서술과 사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서사에서 이것 말고도 반복구조는 무척 많이 등장하며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부자 됨에 따르는 변화는 누구든 상상할 수 있다.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런데 언니 구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 눈 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전에 살던 집으로 가봤더니, 노둣돌 틈에 청지네가 그대로 있고, 두엄더미에 말똥버섯도 그대로 있어. 감은장아기가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지언을 쳤지.
>
> " 큰언니, 작은언니, 이제 마음 고쳐먹고 잘 살려거든 청지네 탈도 벗고 말똥버섯 탈도 벗고 사람이나 되십시오,"
>
> 그랬더니 청지네와 말똥버섯이 도로 은장아기, 놋장아기가 됐어. 그래서 온 식구가 다시 만나서 잘 살았대.

서정오 본에서는 결말 부분에서 언니를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후 후속작가의 재화 본에서 언니재생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언니 구제'화소의 시작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서정오 본이 있다. 서정오 본은 언니들의 '몰락'을 '재생'으로 탈바꿈시킨 시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옛이야기 어린이책의 표준텍스트로 자리매김한 서정오 본은 후속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니의 몰락이 갖는 의미는 앞 장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글자 그대로 언니들이 미워서 감은장의 주술로 지네, 버섯이 되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아첨하며 쫓겨나는 동생을 동정하지 못하는 성정이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미물로 화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35] 흔히 민담에서 "모두 잘 먹고 잘살았다"로 결말을 맺듯이 <감은

35) 삼공본풀이 무가 채록 본을 보면 주술에 의한 변신이 두 편, 저절로 변신하는 것이 두 편으로 언니들의 변신이 감은장의 주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아기>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며, 독자들은 '등장인물 모두 잘되는' 좋은 결말만을 원하지 않는다. 또 언니 구제가 없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옛이야기는 권선징악이 미덕이다. 악인도 선인도 모두 잘 살게 된다는 결말은 현실을 살아가는 독자에게 진부함과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 제의 속에서 심방이 풀어내는 본풀이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삶의 위안을 얻어서 힘겨운 삶으로 돌아갈 때 힘을 얻었을 우리 옛사람들처럼 지금의 독자도 선명한 권선징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서정오 본은 감은장을 운명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 뒤로 감은장아기는 운명신이 되었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운명신이 마련해 준 운명 때문이래.

운명신의 성격을 '주관하는 신'으로, 운명은 '누군가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자신을 믿고 주도적으로 운명을 개척한 감은장의 형상과 상반된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누군가가 결정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감은장 신화를 수집했던 초기 연구자들은 '전생신', '전생의 인연신'이라고 했지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1989년 이수자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내복에 산다> 민담이 '제 복은 타고난다.', '팔자대로 산다.'로 해석되는데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정오 본은 작가가 많은 민담을 재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공본>을 재구성하여 재화한 이야기이다. 제목은 '감은장아기'이지만 본디 어린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무가를 어린이 문학으로 수용하면서 작가는 깎고 보태고 다듬는 고쳐 쓰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삼공본> 고유의 신화적 상징들이 탈락되고 변질되면서 민담적 성격이 강해지고 우애와 효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변용되었다.

(3) 최정원 본:신화 새로 쓰기

최정원 본은 신화와 민담의 무리한 혼합, 신화성의 확대, 서사에 나타난 가치관의 변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민담과 신화의 무리한 혼합은 제목에서부터 글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내 복에 산다>는 육지의 광포 설화이며 <감은장아기>는 제주의 신화이다. 공통 화소가 많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민담과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내 복에 산다) 감은장아기』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어린 독자나 이 책으로 감은장아기를 처음 접하는 어른 독자들이 장차 내복에 민담과 감은장 신화를 동일 이야기로 알게 되는 오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정원 본에서는 감은장의 금발견이 막내 마퉁이의 구덩이가 아닌 숯막의 고임돌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내복에 산다> 민담의 화소를 수용한 것으로 고임돌을 빼내서 파는 과정도 민담에 나오는 내용이다. 마퉁이를 민담과 혼합하여 '숯 굽는 마퉁이'로 변신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최정원 본은 짧은 민담을 160여 쪽의 장편동화로 재구성하는 동안 줄거리의 필연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과 민담 화소 끼워 넣기를 많이 하였다. 강이영성의 집에 연못을 만들어 거북이 살게 하고 부자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며 복 문답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도 에피소드 삽입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언니들과의 갈등이 어릴 때부터 누적된 것임을 보여주며 하녀와 검은 암소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되는 필연의 서사도 마련되어 있다. 청룡의 구슬을 흥정하는 장면은 민담에서 금 흥정하는 그것과 닮았다. <삼공본풀이>를 새로 쓰기 하면서 기존의 민담 화소를 그대로 끼워 넣기 한 양태는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삼공본풀이>를 장편 동화화 하면서 새로 쓰기를 시도한 작가의 자세는 높이 평가될 만하지만 무분별한 화소의 끼워 넣기 식 변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삼공본풀이>는 오랜 전승을

거치면서 탄탄한 구조를 갖춘 서사로 완성되었다. 다른 화소를 많이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서사의 짜임을 흐트러뜨리게 할 수 있다. 제주 신화 중 <초공본풀이>나 <이공본풀이>는 서사가 더욱 복잡하고 장편에 가깝다. 이에 비해 삼공본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보인다. 삼공본의 내용을 살리는 재창작이라면 장편보다는 단편이나 짧은 중편으로의 변용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 이때 비슷한 유형의 기존 이야기를 뒤섞는 식의 재화는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옛이야기 전승에서 위험천만한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신화성의 확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작가는 <삼공본풀이>가 신화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전통 신을 가르치고자 한 듯하다. 청룡, 주작, 백호, 현무, 황금 구렁이를 감은장의 친구이자 조력자로 등장시켜 오방신을 설명하기도 한다.[36] 그 결과 신화적 허구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신화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확대해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앞서 말했듯이 <삼공본풀이>는 앞이나 끝부분에서 전상신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올 뿐 서사에서는 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신화이지만 그리스·로마 신화처럼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며, 사람들의 그것도 지극히 평범하고 신분이 낮은 민중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이다. 그래서 청중이나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신화성의 확대는 독자들의 몰입을 저해하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 번째는 여성중심의 주체적 운명 개척담인 <삼공본풀이>의 성격과 가치관이 변질된 것에 따른 문제점이다. 최정원 본에서 감은장의 부모 중 홍운소천은 본래 거지 신분의 여자로 강이영성은 원래는 귀족 신분이었던 남자로 묘사된다. 귀족 신분의 남자라는 설정은 <삼공본풀이의>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삼공본의 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불전 설화

36) 박봉춘 본에는 감은장아기가 집을 나서며 오방신장을 불러내어 집이 폐망하였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波舍匿王女善光綠>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광 공주의 거지 신랑도 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는데 아버지 대에서부터 집안이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어렸을 때 양친이 급살로 일찍 돌아가셔 천지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렇듯 선광 공주 설화는 공주 신분의 여자와 상류층이었던 남자의 결합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최정원 본은 낮은 신분의 여자와 높은 신분을 지녔던 남자의 결합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투영된 듯 보이는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독자에게 남녀 불평등적 관점을 교육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능하게 한다.

최정원 본에서 부모가 부자 되는 원인은 감은장의 친구인 청룡의 구슬을 팔아 논·밭을 사고 내리 풍작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끼워 넣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첫째, 부모의 부(富)가 여성성을 바탕에 둔 세 딸 또는 감은장의 복 때문이 아니라 외부 조력자의 물건과 좋은 토지를 사들인 부모의 통찰력 덕이었음으로 바뀐 것이다. 둘째, <삼공본풀이>에서 감은장이 쫓겨난 이후의 서사는 감은장의 복이 여성의 생산성과 주도성에서 왔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복의 근본을 청룡과 구슬로 대체하여 설명을 끝냈으니 이후 서사의 필연성이 힘을 잃는다.[37]

최정원 본에서는 서정오 본에서 보이던 두 언니의 제 모습 찾기에 그치지 않고 마퉁이의 두 형이 두 언니와 결혼을 한다. 이는 신화의 원형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감은장의 신성과 대비되는 물성의 소유자인 언니들은 그들의 속성 때문에 물화(物化)되는 것이 <삼공본풀이>의 공통된 내용이다. 그런 인물을 단순히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으로 되돌리는 것은 신화에 대한

37) 이러한 끼워 넣기와 설명은 86쪽의 '눈물을 흘리며 주위를 더듬거리던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그제야 자신들의 집이 감은장아기의 복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에도 나타난다. 부모의 반성과 깨달음은 시련과 자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때 이미 깨달았다는 것은 이후 서사의 필연성에 어울리지 않으며 전체 구조의 균형을 깨는 섣부른 설명이다.

몰이해라 할 수 있으며 게다가 감은장의 선택에서 제외된 두 형과 결합하여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옛이야기의 특징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며 어린이 책을 단순하게 보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 그 뒤 감은장아기는 부모님에게 온 정성을 기울여 지난날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하고, 모든 사람의 얽힌 인연을 풀어 주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그리고 타고난 수명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주관하는 운명신의 자리에 올랐다.

이 부분은 감은장의 직능에 대해 효행신[38], 전생의 인연 신, 운명신 등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자식과 부모의 통합에서 작가는 효도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긴 듯하며 여러 연구자의 '전상(전생의 인연)신'에 대한 해석을 수용한 듯하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들을 모두 수용하여 감은장의 행적과 사후 직능을 설명하는 것은 작가가 감은장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살핀 결과라는 면에서 보면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 감은장의 신직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운명신의 성격은 서정오 본에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주관하는 운명신'의 모순됨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최정원 본의 작가는 여성신 감은장과 내복에 민담 속 막내딸의 비슷한 경험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다. <삼공본>을 좀 더 풍부하고 새롭게 장편화하면서 신화 곳곳에 민담을 섞어 놓았다. 그리고 새로 쓰는 이야기에 기존의 <삼공본>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이야기 줄기 속에 이본의 화소와 모티프를 무분별하게 꿰어 넣은 듯한 느낌이다. 그 결과 삼공본도 아니고 창작도 아닌, 고쳐 쓰기라 하기는 과하고 다시 쓰기라 하기는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변용되었다.

---

38) 김태곤 외(1988 : 271)에는 "이 신화는 효행신화로 제주도에서 굿할 때 부르는 '삼공본풀이'무가이다."라는 해석이 있다.

(4) 그 밖의 이야기책들

표-4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은장의 재화 본으로 김종상, 김원석, 현동훈, 김봉임, 우리누리의 작품이 더 있다.

김종상 본은 저학년 어린이들이 읽을 것을 고려해서인지 과감한 생략이 많이 보인다.[39] '신화'라고 소개하면서 탄생과정과 신으로 좌정하는 후일담이 모두 없다. 전래동화집 속에 실린 이원수·손동인 본보다도 신화로서의 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문에 부딪히며 눈이 멀게 되었다는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딸이 그리워 매일 울다가 눈이 먼 것으로 이야기를 바꿨다. 이는 구전 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작가의 창작을 끼워 넣은 내용이다. 성인으로 인정받는 15세 이후 자녀는 부모로부터 마땅히 독립해야 하므로 내쫓김을 당해 부모와 단절되는 것은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린 독자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혜와 현명함을 잃은 부모의 안맹은 상징적 의미가 더 크긴 하지만 징벌의 의미로서도 옛이야기의 성격에 비추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오히려 부모・자식의 정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비록 내쫓는 실수를 했지만 부모의 자식 사랑이 눈이 멀 정도로 지극함을 보임으로써 감은장의 효를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면서 보이지 않게 효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목욕, 새 옷 입기와 대접 늦추기의 화소도 생략했다. 목욕 후 새 옷 입히기는 과거를 벗고 새사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거지 부모에게 대접을 늦추는 것은 단순 놀려먹기가 아닌 예전의 상하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주체적 존재로 당당히 섰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화소가 등장의 이유가 있고 상징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다만 독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화소들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서사 속에서 버려도 될 군더더기는 아닌 것이다.

김원석의 <감은장아기>는 두 언니를 다시 사람으로 살려내는 결말을

39) 출판사는 2005년 2판본에서 표지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보인다. 이는 2003년 서정오의 재화에 새롭게 등장했던 화소로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원석 선생님의 다시 쓰는 우리 신화'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원서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듯하다.

현동훈의 『아빠가 들려주는 제주설화』는 서사의 축약과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다른 작가의 이본은 대부분 8~9쪽인데 반해 이 책에서는 4쪽 분량으로 줄었으니 대폭으로 축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도 가믄장이 막내 마퉁이를 만나 부부가 된 후 형들에게 다시 쫓겨나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늘이 감동하여 벼농사에 성공하는 이야기이다. 전상신 이야기가 아니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벼농사의 성공담, 쌀의 유래담이 된 것이다. 현동훈의 이야기는 2004년 극단 북새통에서 공연한 연극<가믄장 아기>[40]의 줄거리와 비슷하다. 2010년 재화된 현동훈 본은 고순덕 작가의 극본을 동화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봉임의 <가믄장 아기>는 창작의 기본 틀 속에 신화를 삽화형식으로 들어가게 새로 썼다. 작가는 "원상을 절대 보전하면서 간간이 해학적인 창작을 섞으면 재미있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창작된 신화'를 만들었다. 딸보다는 아들을 더 원하는 부모, 남에게 지기 싫어해서 어려서부터 밭일·물일을 척척 해내는 억척스러움, 지혜로운 판단으로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해주는 일화, 엉뚱한 익살로 남을 웃게 해준 일화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원 서사의 내용은 생략 또는 축약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탄탄한 서사와 체계적인 구조를 지닌 <삼공본풀이>가 조밀한 짜임과 체계의 균형을 잃게 되었다. '가믄장아기'는 신의 이름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믄장 아기"라고 표기된 자료나 연구서는 없다. 이 책에서 '가믄장 아기'라고 표기한 것은 이본에 따른 차이가 아닌 문법상의 오류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오자나 잘못된 띄어쓰기 같은 오류가 계속해서 눈에 띈다.[41] 작가와 편집자가 신화나 <삼공본풀이>에

---

40)남인우, <감은장아기> 연출 노트, 공연과 이론, 2014, 겨울호 통권56호 ; 고순덕,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희곡화 과정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2004. 참고

41) 듣기~~-위서아다~~→듣기 위해서이다. ~~산방~~(무당)→심방(무당). ~~악사들의~~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악사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심한 고려 없이 “창작”을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누리 본은 2011년 만들어진 가장 최근의 이야기이다. 시작은 차분하게 기본 자료에 충실하나 ‘제 복’이라고 대답하며 빈 몸으로 쫓겨난다. 고개만 넘고 넘어 마퉁이네 집을 스스로 발견하여 찾아가며 마 나누기만을 지켜볼 뿐 받아먹지도 않는다. 쌀밥 대접도 없고 발 막음 할 아들 요청도 없이 직접 청혼을 하며 찬물 한 그릇만 놓고 결혼식을 올린다. 잔치에 참여한 부모님을 그저 늦게까지 따로 뒀다가 모신다. 부모와의 화해로 끝나며 신으로의 좌정담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누리 본도 앞의 김봉임 본처럼 <가믄장 아기>라고 썼다.

2. 평가와 제언

위의 분석 결과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전통 상징체계의 변형

동네 사람, 검은 암소, 길 묻기, 발 막음, 목욕과 새 옷, 대접 늦추기 등 서사의 핵심 화소가 탈락하거나 변이되었다. 이들은 모두 감은장의 통과의례와 신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화소이다. 이들의 탈락과 변이는 이 신화 이해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덧붙여 획일적인 화소 수용[42]도 보인다.

(2) 여성 주체성의 약화

여성의 주체성, 주도성을 상징하는 선그믓과 발 막음 화소를 생략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 신화는 감은장이 드러낸 여성성과

42) 채록 자료에는 구덩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뭇잎·자갈, 물개똥·쇠똥, 똥, 지네·뱀, 옥덩이, 금덩이·은덩이 등의 다양한 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책에는 똥, 지네·뱀, 금덩이(은덩이)만 등장하는 획일적인 모습을 보인다.

부모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남성성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선그믓은 제주 여성신화에서 여성성을 드러내는 화소로 <초공본풀이>에도 'ᄀᆞ믓질'이라는 말로 표현된다(윤교임, 1996 : 50-51 재인용). '내 배꼽 아래 선그믓 덕'이라는 말을 '저의 복'으로 바꾼(서정오 본, 최정원 본)것은 강한 여성성을 부정 내지는 감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막을 아들 요청'도 감은장의 여성성과 주도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옷을 매개로 한 청혼(서정오 본)이나 남자에 의한 청혼(최정원 본)으로 바꿈으로써 여성성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남성을 주도적인 인물로 내세우려한 가부장적 잠재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 서사 짜임새의 불균형

언니들의 재생, 두 형과 언니들과의 결합, 사신 화소, 숯막의 이맛돌 등 무분별한 에피소드의 삽입은 감은장 신화의 성격 변형과 더불어 이야기 구조의 변형을 가져온다. 원 서사는 감은장 통과의례 과정인 갈등과 해결의 구조가 뚜렷하다. <감은장아기>는 부녀갈등으로 시작하여 부녀화합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여타의 끼워 넣기와 설명으로 서사의 짜임새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하였다.

(4) 신성성의 왜곡

언니들이 지네와 버섯으로 변하거나 부모가 장님이 되고 집안의 몰락을 겪는 것, 막내 마퉁이와의 결혼, 금을 발견하는 것 등은 감은장의 통찰력과 예지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문맥 그대로 해석해서 감은장을 언니들에게 도술을 부려서 모습을 바꾸어 놓고 부모의 운명에도 관여하는 운명신으로 나타냈다. 이는 감은장의 통찰력과 예지력을 왜곡한 것으로 그 결과 주술성과 절대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장구한 세월 불리던 무가 속의 신화가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지기는 3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며 그 수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작품만을 중심으로 재화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세 작품은 모두 글쓴이의 말을 통해 감은장아기 알리기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전되던 감은장을 온전히 알리고 있는 책은 찾아낼 수 없었다. 구전본의 이야기를 다시쓰기, 고쳐쓰기 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변형의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옛이야기 연구자인 김환희는 폴젤린스키라는 미국 그림책 작가를 예로 들면서 어떠한 설화자료를 참조했고 왜 변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밝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9세기 작가 그림 형제와 제이콥스도 자신들의 옛이야기 책 말미에 주(註)형식으로 이야기들의 출처를 상세히 밝혀놓았을 뿐만 아니라 독자가 개작 양상을 알 수 있게 부연 설명까지 해놓았다(김환희, 2009 : 8)고 한다. 또 옛이야기 책 제작의 주요 목적이 옛사람이 남긴 이야기의 매력과 가치를 어린이 독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라면 작가와 편집자는 당연히 옛사람이 남긴 이야기들을 두루 찾아 읽을 필요가 있으며 작가들이 옛이야기 전복을 시도한 페러디 동화나 창작옛이야기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면 옛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취학 전 유아가 '변형된 옛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읽고 자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을 '옛사람들의 이야기'로 착각할 위험이 크며 우리 이야기들이 일그러진 형태로 후손들에게 전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환희, 2009 : 9)면서 현재의 다시 쓰기와 고쳐 쓰기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사 비교와 분석 결과 발견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의 세 편의 이야기 재화 본 중 알리기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은 이원수·손동인본이라 하겠다. 어린이책으로 수용하면서 비록 신화의 독특한 상징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지만 비교적 서사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주 신화의 여성성과 감은장의 주도적 역할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작가와 책들이 우리 땅에서 생겨나고 전승되는 신화가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에 담긴 작가

들의 공과 노력이 많고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의 내용은 다만 변용의 양상을 살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밝혀둔다.

위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싶다. 첫째, 작가 나름의 재화를 시도하더라도 핵심 화소와 상징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첨삭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환희는 작가와 편집자는 “옛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두루 찾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다 보면 옛사람들이 들려주고 싶어 한 이야기의 형상이 그려진다. 완성도가 뛰어난 각편 하나가 뚜렷하게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가져다줄 수도 있고, 여러 각편의 보편적인 화소들이 어우러져 한 편의 옛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러한 울림이나 떠오름에 충실한 다시 쓰기나 고쳐 쓰기만이 옛사람들의 삶과 꿈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다.”(김환희, 2009 : 9)는 말을 새겨 재화하기 바란다. 둘째, 시작 부분의 감은장의 갈등이 결론에서의 통합과 연결되도록 이야기 구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화 새로 쓰기를 모색한다면 여러 이본이나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에서 화소들을 끌어 모아 짜깁기와 끼워 넣기를 하는 방식이 아닌 온전히 작가의 상상이 동원된 진정한 의미의 창작이어야겠다. 셋째, ‘전상신’이라는 고유의 신격을 제대로 살리는 재화가 이루어져야겠다. ‘전상차지’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격인 만큼 지금의 이 자리에서 역할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전상신’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근래 들어 감은장을 한결같이 ‘운명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획일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감은장의 신격에 대해 더 연구하고 고민하여 감은장 서사와 잘 어울리는 신격이 제시되기 바란다.

Ⅳ. 그림책 <감은장아기>의 변용 양상

1. 글 서사의 변용 양상

무가가 어린이 책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1980년이 최초라면 그림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감은장아기> 그림책은 약 1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다. 그나마도 전집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2012년 이후이다. 전집류는 가정에서 쉽사리 사기 힘들며 공공도서관에서도 찾기 어렵다. 2004년에 처음 출간되고 2007년 다시 선보인 몬테소리 본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국립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감은장아기> 그림책은 단행본이 나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까지 출간된 그림책의 목록을 시기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를 보면 최근 활발하게 전승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림책이다. 그래서 그림책에 대한 비교 고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표-7> <감은장아기> 그림책 서지 목록

순	출판년도	글	그림	도서명	출판사	비고
1	**2004**	**이산하**	**김정화**	**감은장아기**	**한국몬테소리**	**전집**
2	2009	조호상	최선경	가믄장아기	한솔교육	전집
3	**2012**	**서정오**	**한태희**	**감은장아기**	**봄봄출판사**	**단행본**
4	2013	김영란	심수근	가믄장아기	대교	전집
5	**2013**	**이안**	**이윤선**	**감은장아기**	**을파소**	**단행본**
6	2014	고순덕	주미혜	감은장아기	이수미디어	전집

위의 그림책을 살펴보면 6편의 이본마다 글과 그림 서사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그림책으로의 변용 양상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모든

작품을 언급하기보다는 세 편의 그림책을 주요 작품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 시기와 독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림책은 다음의 세 편이다.

1) 몬테소리 본 - 이산하(글), 김정화(그림), 2004년
2) 봄봄 본 - 서정오(글), 한태희(그림), 2012년
3) 을파소 본 - 이안(글), 이윤선(그림), 2013년

몬테소리 본은 <감은장아기>가 그림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책이다. '최초'라는 의미는 후속작가들이 그림책으로의 변용을 시도할 때 참고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최초의 변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다.

봄봄 본은 옛이야기 대표 작가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신화』에서 <감은장아기>를 쓰기도 한 작가가 글을 썼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책이다.[43] 동일 작가의 글이 이야기책(2003)과 그림책(2012)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으므로 뒤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림 작가는 감은(검은)장의 이미지에 맞춰 그림자 책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을파소 본은 단행본 중 가장 최근의 그림책이다. 작가는 앞서 출간된 다섯 편의 그림책을 선행 자료로 살펴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른 이본과 상호 비교분석의 필요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세 편의 글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하였다. 이때 현재 원서사라 할 수 있는 채록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서 안사인 본을 표의 앞에 제시하였다. 안사인 본을 선택한 것은 이야기책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이며 그림책의 글 내용과

43)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현재 필자가 거주하는 대전광역시의 도서관에는 <감은장아기> 그림책으로 봄봄 본만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표-8> <감은장아기> 그림책 재화 비교

이본 / 주요 화소	채록 자료	그림책 글 텍스트		
	안사인 본	몬테소리 본 2004	봄봄 본 2012년	을파소 본 2013년
거지 부모	강이영성이서블,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	강이영성이서불, 궁에궁전궁납	가난한 부부로 시작	강이영성이서블, 홍운소천궁에궁전
은장, 놋장, 감은장	은장, 놋장, 가믄장	은장, 놋장, 감은장	은장, 놋장, 감은장	은장, 놋장, 감은장
세 딸의 출생과 동네사람들의 도움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와줄 때 죽을 담아주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	동네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먹여서, 전번처럼 정성들이지 않고 놋그릇에~,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나무 바가지에 ~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쌀죽을 담아주어 먹고 살아남. 이듬해 둘째 놋그릇에 보리죽 담아주어, 그 이듬해 셋째 검은 나무그릇에 겨죽	동네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메밀가루 타 먹여, 놋그릇에 메밀가루 타 먹여, 검은 나무 그릇에...
부모 부자의 원인	딸 세 형제 태어난 후 차차이 발복되어	막내딸이 태어나고부터 살림이 불어남	세 해 지나 소꿉놀이 배울 무렵 되니 작은 부자, 여섯 해 지나 바느질 배울 무렵 되니 중간부자, 아홉 해 지나 부엌일 배울 무렵 되니 큰 부자	감은장이 태어난 뒤로
복 문답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 발신하느냐/ 하늘님, 지애님, 아바님, 어머님 덕 하늘님, 지애님, 아바님, 어머님+배또롱 아래 선그믄 덕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 아버지, 어머니 덕/ 하느님, 땅님, 부모님, 저의 복	누구 덕에 사느냐/ 아버지,어머니 덕/ 하느님, 땅님, 아버님, 어머님, 내 덕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 아버지,어머니 덕/ 하늘 덕, 부모덕, 내 복
집 떠나는 나이	15세	15살	언급 없음	언급 없음
같이 떠나는 것	검은 암소, 입던 입성, 먹을 군량, 하녀	검은 암소 등에 입던 옷, 얼마간의 양식	옷 몇 벌, 쌀 몇 되 챙겨서 암소(검은×) 등에 싣고	검은 암소, 옷, 식량

다시 불러들이기	식은 밥에 물 말아먹고 가라고	밥이나 먹고 가라	어머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
두 언니의 거짓말	빨리 가라, 부모님이 때리러 나온다	사랑이 옮겨지고 재산을 나누어야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오신다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몽둥이 들고 나온다, 홍두깨 들고 나온다.	먹을 음식, 입을 옷 나누어야 해서- 부모님이 너를 때리러 나오신다.
두 언니의 변신	청지네, 용달버섯	지네, 버섯	노둣돌 아래 지네, 거름더미 아래 버섯	청지네, 말똥버섯
변신과 주술 관련성	주문(~로 환생합서.)에 의해	하늘에 빌었음-~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나 되십시오.	~가 되게 하소서.
부모 실명	문지방에 눈이 걸려서, 장님, 거지됨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장님, 거지됨	문설주에 눈을 부딪쳐 장님, 거지됨	문밖으로 나서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문고리에 눈이 찔려 장님, 거지됨
세 마퉁이에게 길 물음	언급 없음	사람 사는 집이 어디냐고 물음/ 퉁명하게 대하며 가르쳐주지 않음/ 싹싹하게 잘 가르쳐줌	과정 없음 한 고개 두 고개 넘어 깊은 산, 움막 발견	깊은 산속에서 세 총각(한번에)만나 세 번 길 묻는 문답
초막 주인	할망, 하르방	할머니	산 속에 움막, 수수깡 기둥에 나무 돌쩌귀, 거적문을 단 볼품없는 움막, 할머니	수수깡 기둥에 거적문을 단 초가집, 할머니
초막에서의 문답과 묵는 장소	우리 집엔 아들 삼형제 있고 빈방도 없다./ 부엌이라도 묵어가게 해달라./허락	방이 좁다고 하며 어서 들어오게 함	문답과정: 없다-부엌이라도-그러라	문답과정 없음 방이 좁다고 하며 괜찮다면 들어오게 함
손님에 대한 두 형의 불평과 막내의 호의	두형- 마 파다 잘 먹이니 길가는 계집애 데려다 놀고 있다. 막내-하늘에서 돕는 일이라 함	두형은 화내며 소리 지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다고 말함	두형은 화내며 소리 지름 막내는 함박웃음, 하늘이 보내신 귀한 손님 들였으니 복 받겠습니다.	두형은 화내며 소리 지름 막내는 웃고 반가워하며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다고 말함
마 나누기	두형- 잔동은 자기네, 목과꼬리 어머니 막내- 잔등 부모,	두형- 잔동:자기네, 목과 꼬리:어머니, 손님 막내- 잔등:부모, 목과꼬리: 손님, 자기	두형- 실한 가운데 토막:자기네, 목과 꼬리: 어머니 막내- 실한 가운데 토막잔등:어머니, 양끝:자기	두형- 몸통:자기네, 목과 꼬리:어머니 막내- 몸통:어머니, 양끝:자기

			(손님 대접 언급 없음)	(손님 대접 언급 없음)
쌀밥 대접	쌀밥 대접	쌀밥 대접	쌀밥 대접	쌀밥 대접
밥에 대한 세 아들 반응	노인부부-할아버지 때도 안 먹었다며 거절, 두 형-조상도 안 먹던 버렁이밥이라고 거절 막내-크게 떠먹음	두 형-버러지밥 막내-맛있다.	할머니-드리지만 반응에 대한 언급은 없음 두 형-버러지밥, 구더기 밥 막내-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형-벌레밥 막내-맛있겠다.
발막음 아들 요청(세번 묻기)	언약이 되어 (×)	발이 시려 못자겠으니(**김계림 본**) 저랑 같이 누울 아들을 보내달라→결혼	이것도 큰 인연이니 막내 며느리 되어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할머니 허락→막내아들 합의→혼례	남자 옷 한 벌 내어 장가들겠는가 물어보라(○)
목욕과 새 옷 입기	목욕, 새 옷 단장	목욕, 새 옷 모두 없음	목욕×, 새 옷 입고	목욕, 새 옷 남-늠름, 여-미인
금 획득	똥, 지네·뱀, 금덩이·은덩이	똥, 뱀, 금덩이	똥, 지네·뱀, 금덩이	똥, 지네·뱀·흉측한 짐승, 금덩이·은덩이
걸인잔치, 기간	걸인 잔치, 백일	거지 잔치, 석 달 열흘	거지 잔치, 석 달 열흘	거지 잔치, 백일
대접 늑장부리기	자리 대접 늑장부림	대접 일부러 늦춤	음식을 주지 말고 끝날 때까지 잡아두게-일꾼들은 일부러 그릇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내고 음식을 안 줬지.	대접 일부러 늦춤
감은장의 내력 문답	옛말 해 달라- 없다 들은 말 본말 -없다 살아온 말 하라-있다-부모화자	살아온 이야기 있다-부모 화자	옛이야기-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살아온 이야-(네 단계 문답), 부모화자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나 해보시오.(문답 반복은 없음)-부모화자
부모 눈 뜨기	감은장아기 소리 듣고 들었던 잔 떨어뜨리며 눈이 팔롱하게 밝아짐	내가 막내딸이라고 하자 소리치다가 눈 떠짐- **따로 집을 지어 잘 살았대(김계림 본)**	막내딸 여기 있다고 하자 놀라 소리치다가 눈 떠짐, 때맞춰 **언니를 사람으로 환생시켜**	감은장아기 소리 듣고 들었던 잔 떨어뜨리며 눈이 팔롱하게 밝아짐, 옛 집 찾아가 **언**

			함께 살음.	**니를 사람으로 환생시켜 다시 만난 가족을 집으로 모셔서 ~**
신되기	풀이 중에는 없고 제의과정 앞의 '들어가는 말미'에서 전상에 대한 설명 있었음	운명신이 되었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운명신이 마련해 준 운명 때문이래.	그 뒤로도 천년 만년 잘 살다가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단다.	훗날 감은장아기는 죽어서 사람의 복과 운명을 돌보는 운명신이 되었다는구나.

중요 화소의 유무를 표시하여 비교하기 쉽게 간단한 표로 정리하였다.

<표-9> <감은장아기> 그림책 글의 화소 비교

판본 / 주요 화소	**채록 자료**	**이야기책**		**그림책**		
	안사인 본	이.손 본 1980년	서정오 본 2003년	몬테소리 본 2004년	봄봄 본 2012년	을파소 본 2013년
거지 부모	○	○	×	○	×	○
세 딸의 출생에 관여하는 동네사람의 도움	○	○	○	○	○	○
부모 부자 되는 원인	세 딸	세 딸	막내딸	막내딸	세 딸	막내딸
내 배꼽 아래 선그믓 덕	○	○	×	×	×	×
15세	○	×	○	○	×	×
검은 암소	○	○	암소	○	암소	○
의복	○	○	○	○	○	○
쌀	○	○	○	○	○	○
식은 밥에 물 말아 먹고	○	식은 밥	밥	밥	밥	○
두 언니의 변신	청지네, 용달버섯	지네, 버섯	청지네, 말똥버섯	지네, 버섯	지네, 버섯	청지네, 말똥버섯
변신과 주술 관련성	주문	○	○	○	○	○
부모 실명	○	○	○	○	○	○
세 마퉁이에게 길 물음	×	×	○	○	×	○
유숙부탁-거절-허락	○	○	×	×	○	×
초막에서 묵는 장소	부엌	부엌	부엌	방	부엌	방
손님에 대한 두 형의 불평과 막내의 호의	○	○	○	○	○	○
마 대접받기	손님×	손님○	손님○	손님○	손님×	손님×
쌀밥 대접에 대한 세 아들의 반응	○	○	○	○	○	○

발막음할 아들 요청	○	○	×	○	×	×
목욕	○	○(이튿날)	×	×	×	○
새 옷 입기	○	○(이튿날)	○	×	○	○
마 구덩이 속	똥, 지네·뱀, 금·은	똥, 지네·뱀, 금·은	똥, 뱀, 금	똥, 지네·뱀, 금	똥, 지네·뱀, 금	똥, 지네·뱀, 금·은
걸인 잔치(백일)	○	○	○	○	○	○
대접 늑장부리기	○	×	○	○	○	○
부모 눈뜨기	○	○	○	○	○	○
언니 재생	×	×	○	×	○	○
신격	전상신	×	운명신	운명신	운명신	운명신

(1) 무가 본, 이야기책 본, 그림책 본의 글 서사 비교

표-8과 표-9[44]를 보면 각 그림책의 글이 하나의 자료를 저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에서 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고쳐 쓰기 하였음을 알게 된다. 많은 부분에서 안사인 본과 유사한 서사 흐름을 보이지만 중간 중간 김계림 본의 화소가 등장하며 채록 자료에 없는 내용도 삽입되거나 변형되어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자료에 충실하여 다시 쓰기 한 것이 아닌 작가 나름으로 손질을 가해 고쳐 쓰기를 했거나 그러한 선행 작가의 재화를 재수용하여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 그림책의 글 서사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몬테소리 본

몬테소리 본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림책 중 유일하게 발 막음 화소를 살렸다는 것이다.[45] 이야기책에서는 독자 대상인 어린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재화했을 것이 분명한 이원수·손동인 본에만 발 막음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최초의 감은장 그림책에서는 유아들까지 감안했다고 볼 수 있는

44) 표 8은 그림책의 글에 영향을 준 재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 이야기 재화 글을 함께 제시하였다.

45) 그림책 6권 중 발 막아 줄 아들을 보내달라는 감은장의 말을 살린 것은 몬테소리 본이 유일하다. 발 막음 아들 요청은 네 편의 채록 자료 중 두 편에 보이나 본고에서는 이 신화의 핵심 화소로 보고 보편 화소로 다루고 있다.

도서임에도 발 막음 화소를 살려서 썼다. 이는 그 이후로 그림책에 글을 쓰면서 발 막음 화소를 빼거나 변형시킨 작가들이 제시할 수 있는 성적인 부분이어서 민망하다거나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은 근거로서 빈약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하겠다.

이원수·손동인 본의 “저하고 같이 바람을 막아 주면서 누워 잘 아들이나 하나 보내 주십시오.”라는 말은 고대중 본의 “할마님아 할마님아, 마음에 든 아들로 나그네한테 와서 발 막으라고 보냅소서.”라는 말과 닮아 있다. 몬테소리 본의 “할머니, 발이 시려 못 자겠으니 저랑 같이 누울 아들 하나 보내 주십시오.”라는 말은 김계림 본(채록 본)의 “할마님, 어느 아들 하나 보냅서. 나 발 시려완 발이나 따스하게 하고저.”라는 말과 비슷하다. 몬테소리 본의 작가가 선행 작가의 글 뿐 아니라 채록 자료도 참고해서 되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몬테소리 본에서는 감은장이 15세가 되었을 때 집을 떠난다. 박봉춘 본을 제외한 모든 채록 자료에서 15세가 된 감은장이 길을 떠나며 서정오 본의 이야기책에서도 복 문답으로 쫓겨나는 감은장의 나이가 15세이다. 15세는 우리 옛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길 떠나는 일반적 연령이며 인생의 통과의례적인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한 인간이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사회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자아로서 인정받는 시기가 15세 전후이다. 그래서 ‘15세’라는 간단한 말로 독자는 주인공의 떠남을 예상할 수 있고 이야기는 감은장이 집을 떠나야 하는 서사의 필연성을 갖게 된다. 15세를 없애는 것은 이 신화에 대해 어느 날 우연히 감은장의 불효로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이야기의 결말은 감은장의 효로 귀결된다는 오해를 불러오게 한다.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그림책 중 대교 본(조호상 글)과 이수 본(김영란 글)에도 15세가 언급된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길 묻음의 반복을 살린 것과 유숙을 청하는 감은장을 거절 없이 방으로 들이는 것은 안사인 본과 다른 내용으로 제각각 다른 자료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길 물음은 안사인 본을 제외한 채록 본에 모두 등장하며 서정오 본에도 세 차례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온다. 감은장의 유숙 부탁에 그러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게 하는 장면은 박봉춘 본에 나오며 서정오도 같은 내용으로 썼다. 위의 두 장면에서는 몬테소리 본의 작가가 서정오의 이야기책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목욕과 새 옷 입기 과정은 생략했지만 서정오 본의 특징인 언니 구제를 삽입하지 않고 채록 자료의 서사를 살렸다. 선행 작가의 글을 참고하되 선별적으로 따르면서 본래 이야기의 모습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작가의 태도가 엿보인다.

부모와의 복 문답에서 '내 배꼽 아래 선그믓 덕' 대신 '내 복'이라고 한 것은 모든 그림책의 공통점이다. 어린 독자들은 배꼽 아래 선그믓이라는 독특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림책의 글들은 한결같이 '내 복(덕)이라고 쓰고 있다. 그 결과 이야기의 발단에 작용하는 감은장의 여성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린이 문학의 대선배인 이원수·손동인 본을 참고하여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것 역시 육지민담과의 두렷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데서 온 한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2) 봄봄 본

봄봄 본은 15세와 목욕 화소를 탈락하였고 '선그믓 덕' 대신 '내 덕'으로, 검은 암소 대신 암소로, 발 막음할 아들 요청 대신 혼담 신청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언니 재생 화소를 삽입하였다.

목욕 화소의 탈락은 물과 목욕이 갖는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임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봄봄 본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 안사인 본과 이원수·손동인 본에도 목욕 화소는 등장한다. 보편 화소이면서 상징성을 지닌 화소를 빼는 것은 바른 전승의 관점에서 위험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봄봄 본은 검은 암소를 온전하게 가져오지 않고 '암소'라고만 하였다. 단순한 암소가 아닌 검은 암소는 우리나라의 신화에 자주 등장하며 '검은'은 감은장(검은 나무 그릇)이라는 이름과도 연결되는 공통 이미지로 주인공의 신성성과 함께 여성의 생산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화소이다. 간단하지만 신화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검은'을 뺀 작가의 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봄봄 본의 그림 작가는 검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전체적으로 검은 그림자극 형식의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다.

발막음 화소를 혼담 신청으로 바꾼 것과 언니 재생의 삽입은 작가의 창작이 들어간 부분인데 여성의 주도성을 약화하고 이야기 구조체계의 변형을 가져오게 한다. 뒤에서 이어지는 서정오 본과 봄봄 본의 글 비교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3) 을파소 본

을파소 본에도 나타나는 선그믓의 탈락은 모든 그림책에서 보이는 공통 현상이지만 15세·발막음 아들 요청의 탈락과 언니 재생의 삽입은 봄봄 본에서 보이던 양상의 반복이다. 이런 점에서 을파소 본은 봄봄 본과 상당히 유사하며 앞에서 살펴본 서정오의 이야기책도 저본으로 삼았을 거라는 예상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을파소 본에는 목욕 화소가 등장한다. 그런데 목욕하고 새 옷 입은 신랑은 늠름했고 신부는 미인이었다는 작가의 설명은 '목욕'과 '새 옷'이 Ⅱ장에서 밝힌 상징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채록 자료마다 막내 마퉁이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보니 대장, 신선, 절세미남이 되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신부가 미인이었다는 말은 어느 자료에도 없다. 목욕과 새 옷 입기는 막내 마퉁이가 감은장(장차 신성을 지닐)과 결합하기 위한 의식의 과정이며, 마퉁이의 '탈바꿈과 새로 남'을 상징하는 것이다. 늠름한 남자와 결합하는 미인 여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작가의 설명은 '목욕' 과 '새 옷'의 의미 변질뿐 아니라 현대식 미인 콤플렉스를 부지불식간에 부추긴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결국, 목욕 화소를 수용은 했으나 이 신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살리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2) 서정오의 이야기책 본과 그림책 본의 차이점

서정오는 『우리 신화』와 그림책 <감은장아기>의 재화자이다. 현재 옛이야기 전승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작가로 후속 작가들이 그의 글을 저본으로 삼아 재화하고 있음이 앞에서 드러났다. 이렇듯 옛이야기 마당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 그의 글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재화되는 글의 전반적 모습을 살펴보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정오의 재화에서 보이는 특징과 변화를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10> 서정오의 이야기책 글과 그림책 글의 서사 비교

판본 / 주요 화소	『우리 신화』 이야기책으로의 재화 2003년	봄봄 본 그림책 글로의 재화 2012년
거지 부모	강이영성이서불, 구에궁전너설궁이 걸식하던 중에 만나 부부가 됨	**가난한 부부로 시작**
동네 사람들의 도움★	**이웃의 도움 거론 없음**. 이름 짓는 주체도 부모(첫딸이라 귀하다고 은그릇에 밥을 주고 씻겨줘도 모자란다고, 둘째라 아무래도 덜 귀해서 ~ 위에 딸 둘이 있어서 훨씬 덜 귀여워서 ~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쌀죽을 담아주어 먹고 살아남. 이듬해 둘째 놋그릇에 보리죽 담아주어, 그 이듬해 셋째 검은 나무그릇에 겨죽
부모의 부자 되는 원인	**막내딸이 태어나고부터** 살림이 불어남	세 해 지나 소꿉놀이 배울 무렵 되니 작은 부자, 여섯 해 지나 바느질 배울 무렵 되니 중간부자, 아홉 해 지나 부엌일 배울 무렵 되니 큰 부자
복 문답과 배꼽아래 선그믄 덕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 아버지,어머니 덕 하느님, 부모님, 저의 복	누구 덕에 사느냐/ 아버지,어머니 덕/ 하느님, 땅님, 아버님, 어머님, 내 덕
15세 집 떠남	15살	**언급 없음**
암소에 옷(식량) 싣고 떠남★	남자 옷, 여자 옷 한 벌 , 쌀 서 되를 보퉁이에 싸고	옷 몇 벌, 쌀 몇 되 챙겨서 **암소**(검은×) 등에 싣고
두 언니의 거짓말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오니 도망가라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몽둥이 들고 나온다, 홍두깨 들고 나온다.

두 언니의 변신	노둣돌 아래 청지네, 두엄더미 아래 말똥버섯	노둣돌 아래 지네, 거름더미 아래 버섯
부모 실명★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장님 거지됨	**문설주에 눈을 부딪쳐** 장님, 거지됨
세 마퉁이에게 길 물음	사람 사는 집이 어디냐고 물음/ 퉁명하게 대하며 가르쳐주지 않음/ 싹싹하게 잘 가르쳐줌	**과정 없음** 한 고개 두 고개 넘어 깊은 산, 움막 발견
초막 주인	할머니	산 속에 움막, 수수깡 기둥에 나무 돌쩌귀, 거적문을 단 볼품없는 움막, 할머니
초막에서의 문답과 묵는 장소★	방이 좁다고 하며 어서 들어오게 함	**문답과정 있음**: 없다- 부엌이라도- 그러라
손님에 대한 두 형의 불평과 막내의 호의	두형은 화내며 소리 지름 막내는 웃고 반가워하며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다고 말함	두형은 화내며 소리 지름 막내는 함박웃음, 하늘이 보내신 귀한 손님 들였으니 복 받겠습니다.
마 나누어 먹기	두형- 잔동:자기네, 목과꼬리: 어머니,손님 막내- 잔등:부모, 목과꼬리: 손님, 자기	두형- 실한 가운데:자기네, 목과 꼬리: 어머니 막내- 실한 가운데:어머니, 양끝:자기 **(손님 대접 언급 없음)**
쌀밥 대접과 밥에 대한 세 아들 반응	할머니-언급 없음 두 형-맛없는 버러지 밥 막내-맛있는 꿀밥	할머니-드리지만 반응 없음 두 형-버러지 밥, 구더기 밥 막내-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발막음 아들 요청(세 번 묻기)	남자 옷 한 벌 내어 장가들겠는가 물어보라(세 번 문답)	이것도 큰 인연이니 **막내며느리 되어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할머니 허락→막내아들 합의→혼례 (설명)
목욕과 새 옷 입기	목욕×, 새 옷 입고 물 떠 놓고	목욕×, 새 옷 입고
금 획득	똥, 뱀, 금덩이	똥, 지네·뱀, 금덩이
대접 늑장부리기	대접 일부러 늦춤	음식을 주지 말고 끝날 때까지 잡아두게-일꾼들은 일부러 그릇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내고 음식을 안 줬지.
감은장의 내력 문답	옛이야기, 요새들은 말 없다 살아온 이야기 있다	옛이야기-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살아온 이야(네 단계 문답)
부모 눈 뜨기	내쫓는 대목에서 막내딸 여기 있다고 하자 놀라 소리치다가 눈 떠짐, 옛 집 찾아가 언니를 사람으로 환생시킴	막내딸 여기 있다고 하자 놀라 소리치다가 눈 떠짐, 때맞춰 언니들도 사람으로 돌아와 함께 살음.
전상신 좌정	운명신이 되었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운명신이 마련해 준 운명 때문이래.	그 뒤로도 천년만년 잘 살다가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단다.

이야기 글과 그림책 글이 매체의 특성에 따라 글의 분량, 독자 대상, 그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야기책인 『우리 신화』와 그림책인 봄봄 본도 그런 의미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표-10>에서는 화소가 달라진 부분(굵은 글씨)이 여러 곳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량의 축약과 그림과의 역할 분담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약 10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신화』에서 재화한 내용 중 고쳐야 할 부분을 그림책을 통해 수정해서 다시 쓰고자 의도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변화를 보이는 내용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긍정적인 변화는 표의 ★가 있는 부분으로 그중에서도 동네 사람의 도움 화소를 되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쌀죽을 담아 주어, 그걸 먹고 살아났어. 그래서 은장아기라 했지. 이듬해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 또 먹을 것이 없네.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에 보리죽 담아주어, 그걸 먹고 살아났지. 그래서 이름을 놋장아기라 했어. 그 이듬해에 셋째 딸을 낳았는데, 또 먹을 것이 없구나. 동네 사람들이 검은 나무그릇에 겨죽을 담아 주어, 그걸 먹고 살아났어. 그래서 감은장아기라 했지. (봄봄 본)

봄봄 본에는 동네 사람의 도움이 뚜렷이 나타나고 세 딸의 이름도 거기에서 연유되었음이 드러난다. 『우리 신화』에서 삭제했던 공동체 요소를 다시 살린 것은 이 신화에서 공동체적 의식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화』에서 탈락시켰던 소를 봄봄 본에는 복원시켰는데, 온전하게 '검은 암소'를 살린 것이 아니라 검은 이미지는 빼고 '암소'만 살려 나타내었다. 이 부분은 다행히 검은색의 그림자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내 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림 작가의 통찰력 때문

이지 글로 인한 결과라 할 수는 없다.

청지네, 말똥버섯의 구체적 지칭보다는 지네, 버섯의 일반적인 지칭을 사용하였으며 문지방을 넘다 넘어져서 장님이 되었던 내용을 더욱 자연스럽게 문설주에 눈을 부딪쳐 장님이 된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런데 위의 변화에는 작가의 계속된 고민과 연구의 흔적이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으나 『우리 신화』의 문제점이 그림책에서 다시 반복되는 점도 많은 것은 안타깝다 하겠다. 봄봄 본에도 목욕 화소가 빠진 것은 『우리 신화』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욕'이 지니는 상징에 대하여 작가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가 싶다.[46]

채록본 중 두 편의 자료에서 감은장은 할머니께 세 마퉁이 중 하나를 골라 발 막음하러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 부분을 『우리 신화』에서는 남자 옷 한 벌을 꺼내놓고 "이 옷 입고 저한테 장가들려는지 물어보라."로 바뀌었고 봄봄 본에서는 "이것도 큰 인연이니 막내며느리 되어 함께 살고자 합니다."라는 청혼으로 바뀌었다. 아마 작가는 감은장의 말이 성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꾸어 쓴 듯하다. 그러나 따로 성교육도 받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발 막음 아들을 보내달라는 말이 금기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변용으로 인해 문학적 예술성과 여성의 주도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발 막으러 보내달라는 말은 아들(남성)을 보내달라는 말이지만 의도가 숨어있는 문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의 독특한 풍습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중심사회에서나 가능한 여성의 성적 주도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말이다. 작가의 지나친 성의식에서 의한 것이든 가부장적 무의식에 의한 것이든 작가 개인에 의한 변용으로 문학성과 여성성이 약화된 것은 『우리 신화』에 이어 봄봄 본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또한, 신화로 재구성할 때처럼 언니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 함께 잘

46) 본 논문 34, 49쪽 참고

사는 구조가 여전하다. 다만 『우리 신화』에서는 감은장이 진언을 쳐서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그림책에서는 때맞춰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돌아왔든 언니 구제 화소는 민담[47]이나 본풀이 서사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언니들의 재생으로 옛이야기가 갖는 선명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서정오는 『옛이야기 들려주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고를 때 선악을 견주기 위해, 또는 나쁜 짓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쓰인 잔인해 뵈는 대목은 그냥 두는 편이 좋다(2014 : 72)고 하였다. 뚜렷한 상벌이 어린 독자들에게 우애 실천의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언니들은 거짓된 언행으로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스스로의 개선(改善)도 없다. 권선징악은 명쾌함과 선명성이라는 면에서 옛이야기의 미덕이며 이야기를 접하는 다양한 독자의 마음을 도닥여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나쁜 전상의 인물도 잘 되게 하는 변형은 오히려 독자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봄봄 본은 감은장의 신직에 대해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으로 보는 시각 또한 여전히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오 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다.[48]

작가는 재화과정에 공통으로 말의 재미를 살리기 위한 묘사와 설명을 삽입하고 있다. 그런데 봄봄 본에는 쌀죽, 보리죽, 겨죽을 삽입하여 딸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른 차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채록 자료에서 그릇의 종류는 은, 놋, 나무로 달라지지만, 그릇에 담아주는 음식물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위 내용의 삽입으로 인해 해석의 오해도 불러오게 한다. 교보문고의 리뷰 내용을 보면 '이 세 딸이 자랄 때마다 집안 형편이 궁핍해지다가 세 딸이 자라 집안일을 거들면서 형편이 나아지자 (생략)'라는 내용이 있다. 원래의 서사는 세 딸이 자랄 때마다 집안 형편이 차차 나아지는 것이다. 과한 삽입으로 서사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

47) 임석재의 『한국 구전 설화9(전라남도·제주도)』(평민사, 1992)에 <가믄장아기와 마퉁이>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민담이 실려 있다.

48) 본 논문 52쪽 참고

반복의 강조는 다음에도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과 성장에 맞는 여자의 일을 관련지어 작은 부자, 중간 부자, 큰 부자로 변해갔음을 반복구조를 통하여 설명한다. 또 유숙청하기의 거절-허락 과정도 되살렸고 감은장이 주도하는 내력 문답도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꾸었다. 『삼공본』 신화에 반복이 많은 것은 제주신화의 특징이긴 하지만 글의 분량을 줄여야 할 그림책의 글로는 좀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변화는 『우리 신화』 초반부에 나오는 부모의 이야기를 민담식으로 바꾸고 15세 나이의 언급은 빠진 점이다. 또 길 묻기 여정의 반복 문답도 빠졌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부부가 살았어.
늘그막에 첫딸을 낳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지.

봄봄 본에는 거지 부모 대신 가난한 부부로 바꾸어 거지 신분을 숨기고 가난함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늘그막에 첫딸을 낳았다고 했는데 자료 문서에는 없는 내용이며 기복으로 얻은 자식이 아님에도 민담의 관용구처럼 끼워 넣기를 하였다. 신화를 굳이 민담식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야기에서 상징성을 지닌 내용과 화소의 생략은 이야기를 빈약하게 만든다고 생각된다. 성인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15세 언급의 생략과 감은장의 고단한 여정을 상징하는 길 묻기의 삭제는 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마퉁이네 가족의 마 나누기에서 손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신화』에서는 비록 불평하던 두 형도 꼬리나 머리를 손님에게 대접하였다. 그래야 대접만 받기 미안하여 감은장도 쌀밥을 지어 답례하는 서사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또 우리 문화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있는 손님을 외면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줄거리가 길어지는 어려움이 따른다면 그림 속에라도 마 나누기에 감은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글에 없으니 그림 작가도 고려하지 못한 듯하다. 이런 면에서 글

작가와 그림 작가와의 소통이 새삼스럽게 강조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화』와 봄봄 본의 글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여성성의 약화와 중요 화소의 탈락과 삽입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삼공본에 대한 연구의 부족 속에서 선행 작가의 재화를 반복하는 글쓰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함께 작가들의 연구자적인 자세도 필요하며 작가 개인이 관념과 취향에 따라 이야기를 임의로 변형시키는 것은 옛날과 달리 이야기가 문서로 고착·전승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깊이 고려해볼 일이다. 특히 <삼공본풀이>와 같은 민속·문학적 가치가 크면서도 널리 알려지기 이전의 이야기는 우선 제 모습대로 알리는데 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독자를 상대로 하는 작가는 더욱 고쳐 쓰기와 새로 쓰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그림 서사의 변용 양상

몬테소리 본과 을파소 본은 세로가 긴 판형이다. 몬테소리 본은 배경을 많이 나타내었고 을파소 본은 면의 색에 중점을 둔 듯하다. 둘 다 본문이 17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뒤쪽에 부록을 달고 있는데 몬테소리 본은 하나의 펼침 면에, 을파소 본은 세 개의 펼침 면을 부록으로 덧붙이고 있다.

봄봄 본은 가로로 긴 판형으로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였으며 인물 중심으로 그림자극을 보는듯한 효과를 살렸다. 부록 없이 16면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책은 본문 이외에도 표지, 면지, 속지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활용되는 속성이 있다. 이에 따라 표지와 면지, 속지 비교를 통해 각 그림책이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다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양상을 살펴보겠다.

(1) 표지, 면지, 속지

각 책의 표지, 면지, 속표지의 펼침 면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1> 표지, 면지, 속지 비교

그림책의 표지, 면지, 속지는 다른 매체에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표지는 독자가 책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표지를 통해 <감은장아기>의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고자 한다. 면지는 그림책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색채나 무늬로 담아낸다. 요즘엔 작은 그림을 싣기도 한다. 그곳에서도 독자는 감은장을 읽어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속지는 텍스트의 제목과 함께 그림을 동반한다. 본문의 중요 장면이나 제목과 연관 있는 중요 요소, 독자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단서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속지의 제목을 보면서 본문으로 향하는 책 넘김에 속도가 붙게 된다.

세 그림책 중 표지와 면지, 속지의 속성과 역할을 살리면서 <감은장아

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봄봄 본이라 할 수 있다. 봄봄 본의 표지에는 당당한 소녀가 중심에 있다. 소녀는 부유한 가정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을 별이 밝게 비춘다. 별은 뒤표지의 새와 조응하면서 자유로움과 희망을 나타낸다. 면지에는 무지개의 색채가 가득하다.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한다. 감은장이 나아가는 방향에 무지개를 둠으로써 희망을 향해 나아감을 표현한 듯하다. 속지에서는 제목 아래 반짝이는 노란별과 검은 나무그릇, 숟가락이 보인다. 그릇의 검은 바탕에 나무 무늬를 넣어 표현한 것에서 화가의 세심함을 엿보게 한다. 감은장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 독자의 궁금증과 상상을 유발하며 다음 면의 본문 글과 곧장 연결 지을 수 있게 한다.

몬테소리 본의 표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상의 신이 된 여인'으로서 감은장을 표현한 듯하다. 거지 부부와 인간 군상을 치마폭에 거느리고 내려다보는 형상의 천녀(天女)이다. 감은장은 본래 '전상신'으로 앞선 연구자들에 의해 '운명신'이라고 해석될 뿐 하늘의 선녀 형상일 거라는 단서는 없다. 여신=천녀라는 통상적 선입견에 의한 형상화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면지에는 깊고 험난한 산길을 소를 타고 올라가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소의 모습이 속지·본문의 소와는 많이 다르다. 흑백으로 나타낸 산수화풍의 면지 그림은 십우도가 연상이 된다. 소는 우람하고 위에 올라탄 인물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하다. 반면 속지와 본문의 소는 감은장과 비슷한 크기이며 타지 않고 끌고 다닌다.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보는 듯 면지와 속지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속지에 보이는 인물은 낙담한 표정으로 보퉁이 한 개는 들고 또 하나는 소등에 싣고 힘없이 나아간다. 주인공의 모습에서 슬픔만 애처로움이 많이 느껴진다.

을파소 본은 많은 내용을 표지에 담고 있어 중심내용을 찾기 어렵다. 뒤표지까지 펼치고 보면 인물이 많이 보이고 길 따라 이어져 있는 기와집도 두 채가 보인다. 세 마리 말, 맨 앞의 남자 노인, 여자 노인, 뒤쪽의 젊은 부부, 기와집 앞에서 기다리는 두 여인, 초가집 앞 할머니와 대면한 여인과 검은 소, 다시 보이는 젊은 부부 등 많은 인물과 서사 요소들이

나온다.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 감은장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다. 표지그림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지 분간이 어렵다. 면지에서는 화면에 꽉 찬 서구식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밥그릇을 앞에 두고 있는 삼 형제가 보이는데 막내만 웃는 표정으로 떠먹고 있다. 그들이 중심처럼 보인다. 속지에서는 표지의 내용이 반복된다. 뒤표지의 지붕 높은 기와집, 앞표지의 감은장 부부, 할머니와 만나는 감은장의 모습만 부분적으로 나타내었다. 서사적 요소의 단순한 반복으로 해석된다.

(2) 인물 묘사와 배경

세 그림책에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감은장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으며 인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각 편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다.

몬테소리 본	봄봄 본	을파소 본

<그림-2> 그림책 인물 그림 비교

표 가운데에 보이는 봄봄 본의 감은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감은장은 항상 또렷이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본다. 검은 그림자 형상이지만 다부지게 다문 입,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발랄한 모습은 자기표현을 분명히 하는 당찬 감은장을 상상하게 한다. 앞을 향해 약간 추

어올린 턱과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는 자신감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처음 들어간 남의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감은장의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몬테소리 본에서 감은장은 자신감이 약하고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인물로 보인다. 장면마다 대부분 눈을 내리뜨고 있으며 분명하지 않은 표정, 땅바닥을 향하고 있는 고개, 문밖에서 처분만 지켜보는 옆모습은 약하고 주도적이지 못한 성격의 인물로 보이게 한다.

을파소 본에서 감은장은 가부장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존재감 없고 수동적인 인물로 표현되었다. 서사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보다 작게 그려졌으며 표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의 앞부분은 아버지가 위·앞에 위치하고 크게 그려진다. 어머니는 아버지 아래·옆이나 뒤쪽에 위치한다. 감은장은 존재감을 못 느낄 정도로 화면에 없거나 작게 표현된다. 부모 중심의 그림이 이어지다 감은장이 최초로 크고 또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언니들의 변신을 기도하는 장면이다. 감은장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랑을 청하는 장면에서는 할머니가 주된 역할을 하고 감은장은 소극적으로 집 밖에서 지켜보는 모습이다. 부자가 되었을 때 다소 커지는 듯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작아진다. 큰 말을 타고 앞장서는 아버지를 남편 뒷자리에 앉아 따라가는 감은장은 다시 작아지면서 존재감이 약해지고 수동적이 된다.

<감은장아기>는 제주 신화이다. 그러므로 그림에는 제주도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배경은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이다. 세 편의 그림에 나타나는 배경적 특성을 살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몬테소리 본에 나타나는 배경의 특징은 산간과 기와집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초가집이 보이는 곳은 마퉁이네 집의 두 장면뿐이다. 글에서 배경을 나타내는 문장은 다음의 세 부분이다.

▼ 십 년쯤 지나니까 비단옷 입고 푸른 기와집에 살며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지.

▼ 감은장 아기는 이 산 저 산 넘어 이 벌판 저 벌판 지나 정처 없이 걸었어.

▼ “이 산 아래로 가면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근거해서 산간과 기와집 위주로 배경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변화가 없는 그림이 되어 독자가 그림 보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

몬테소리 본	봄봄 본	을파소 본

<그림-3> 그림책 배경 그림 비교

봄봄 본에서 나타나는 배경의 특징은 주로 기와집 중심의 가옥 안에서 서사가 진행되며 인물을 중점으로 나타내기 위해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였다는 점이다.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어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 부분도 산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그런데 마퉁이의 움막은 일관되게 그리지 못하고 있다. 마퉁이네 집을 묘사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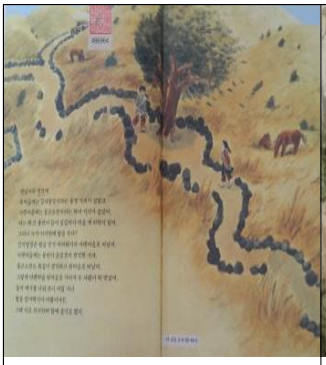
▼ 수수깡 기둥에 나무 돌쩌귀로 거적문을 댄 볼품없는 움막이야

이때 화가는 움막의 모습을 7면에서는 초가지붕으로, 8면에서는 나무판지 지붕으로, 10면에서는 수숫대로 얼기설기 엮은 지붕으로 하늘이 그대로 올려다보이게 그렸다. 이렇듯 달라지는 지붕의 모습은 움막의 형태를 확실히 이미지화하지 못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을파소 본에서 공간배경이 두드러지는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은장아기는 검은 암소를 끌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
▼ 이 고개 저 고개 넘어가면 낡은 초가집이 나올 테니 그리 찾아가십시오.
▼ 수수깡 기둥에 거적문을 단 낡은 초가집이 나왔어.

나무를 많이 그려 넣어 산을 형상화하였는데 특히 소나무로 보이는 것이 많다. 버드나무와 느티나무를 형상화한 모습도 보이는데 숲이라는 장소를 염두에 두고 그렸을지 의문이 든다. 버드나무는 물가에 사는 수종이며 느티나무는 깊은 산 속에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지붕 높은 기와집'이라 표현한 글을 그대로 옮겨 기와집의 지붕을 위로 길게 나타내어 기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수수깡 기둥에 거적문'은 아예 생략되고 초가집만 있으며 초가집에 풍경을 달아 놓은 것도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 밖에도 솥이 걸린 부뚜막이 특이하게 높은 것, 길을 구불구불 긴 선처럼 평면적으로 나타낸 것, 산의 형상을 단순히 중첩한 것 등 사실적이지 못한 표현이 면마다 많이 발견되는 것이 이 그림책의 문제로 지적된다.


한솔 본

대교 본

제주의 올레 사진

<그림-4> 제주 배경의 그림과 올레 사진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한솔 본은 제주도의 돌담과 낮은 구릉지역의 말 목장을 나타내었고 대교 본도 한라산과 백록담, 목장, 바다와 섬으로 제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위의 세 그림책에는 제주의 특징을 살리려는 시도를 엿볼 수가 없다.

박봉춘 본을 제외한 <삼공본풀이>에는 '올레'가 등장한다. 올레는 제주도의 가옥을 특징짓는 구조로 육지의 대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린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로는 '대문'이라 하더라도 그림으로는 올레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제주의 가옥구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화의 전승 지역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글을 따라가면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표현방식에 아쉬움이 남는다.

(3) 사건의 전개

그림책은 이야기책과 달리 글과 그림으로 서사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도 충분히 서사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전체 이야기 화소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서사로 표현한 주요장면을 펼침 면의 차례로 비교하여 보았다.

<표-11> 그림책 펼침 면 비교

출판사 / 화소	몬테소리 본	봄봄 본	을파소 본
거지 부부되기	1	1	1
세 딸 태어나기	2		2
부자 되기		2	3
부녀 문답	3	3	
쫓겨나기	4	4	4
큰언니 변신	5	5	

둘째언니 변신	6	6	5
부모 실명, 거지되기	7	·	·
마퉁이형제에게 길 묻기	8	·	6
유숙 청하기	·	7	7
손님에 대한 반응	9	8	·
마 나누기	10	9	8
밥 대접	11		9
신랑 청하기	12	·	10
부부되기	·	10	11
금 발견	13	11	12
부자 되기	·	12	13
거지 잔치	14	13	14
대접 늦추기	15	14	15
따로 대면하기	16	·	16
눈뜨기·화합	·	15	·
언니 구제	·	16	17
신으로 좌정	17		·

그림 작가들이 공통으로 펼침 면에 표현한 장면은 쫓겨나기, 마·쌀밥 나누기, 금 발견, 거지 잔치, 눈뜨기·신되기 등의 화소와 관련된 장면들이다. 각 그림책에서 다섯 가지 장면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림 양상을 살펴보겠다.

가) 쫓겨나기

몬테소리 본과 봄봄 본에서는 다음의 장면을 순차적으로 펼침 면에 표현하였다. 을파소 본은 두 가지 화소들을 섞어 펼침 면을 구성하였지만,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면서 서사 과정의 표현을 분석하겠다.

<그림-5> 그림책 축출 장면 비교

몬테소리 본은 집을 나가는 감은장의 모습이 유약하게 표현되었고 지네와 버섯을 감은장보다 더 크게 표현하였다. 감은장의 진행방향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에 비해 봄봄 본은 당당하게 집을 떠나는 감은장의 진행 방향이 일관되며 시간의 흐름을 감은장의 위치 변화로 보여준다. 지네, 버섯의 미물이 감은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과장되게 표현되지도 않았다.

다만 서사 내용상 감은장의 모습은 대문밖에 위치해야 맞다. 은장아기가 노둣돌 위에 올라서서 말하기 때문이다. 노둣돌이란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는 큰 돌'을 일컫는 말로 하마석(마팡돌)과 같은 것이다. 노둣돌은 대문 밖에 그려져야 하고 감은장은 길 위에 있어야 맞겠다. 그런데 그림의 은장아기는 대청마루 아래 댓

돌 위에 올라서서 소리치고 지네가 되어 댓돌 아래로 내려간다. 노둣돌과 댓돌의 구분 없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채록 본에는 '올래'에 나가보라 했지만 올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칭인 대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노둣돌을 댓돌로 표현한 것은 기본적인 이해와 실증을 거치지 못한 오류라고 생각되며 어린이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거름더미 아래에 피어있어야 할 버섯을 마당 위에 표현해 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 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허구이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다른 장치 없이 실제 아버지 어머니가 몽둥이 들고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그림만으로도 서사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면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그림 속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몬테소리 본은 쫓겨나는 감은장을 작고 초라하게 나타내었다. 검은 암소와 함께 그렸지만 그들의 신성성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아버지를 크게 그렸고 미물로 환생한 큰언니를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게다가 감은장을 위협하듯 가로막으며 에워싸고 있다. 검은 암소와 지네의 상징에 대한 이해가 없이 흥밋거리의 화소로만 여기고 작품을 이해한 화가의 오류로 보인다. 버섯도 지나치게 크게 그려졌고 감은장의 앞에 놓였는데 버섯의 크기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맥락이 같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감은장은 뒤에서 기도를 올리고 장님이 되어 다시 유리걸식의 길에 들어선 아버지가 앞에서 길을 떠나고 있다. 그림만 놓고 보면 버섯과 안맹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글과 함께 보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존재감이 없던 감은장이 저주의 기도를 올릴 때 커지는 것은 감은장에 대한 부정적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

나) 마·쌀밥 나누기

마와 쌀밥을 나누는 것은 사람 사는 인정이면서 감은장이 새로운

문화로 전이 될 때의 통과의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서사 흐름을 보면 감은장이 신랑을 선택하기 전에 관찰(시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세 편의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그렸는지 살펴보겠다.

몬테소리 본에는 감은장보다 막내 마퉁이가 강조되었다. 글에서는 감은장이 중심인물인데 그림은 마퉁이가 부각되어 보인다. 앞의 그림에서는 모두의 시선이 막내 마퉁이에게로 향하고 있고 그가 가운데에 크게 그려졌다. 뒤의 그림은 다소곳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감은장이 남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닌 막내 마퉁이를 부각해 마퉁이 형제의 됨됨이를 살피는 감은장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에 여성은 수동적으로 남성은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사를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몬테소리 본	봄봄 본	을파소 본

<그림-6> 마·쌀밥 나누는 장면 비교

봄봄 본은 단순한 그림으로 서사 진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였다. 마 나누기와 쌀밥 대접을 한 면씩 구성하여 반복적인 서사 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을파소 본의 그림은 동어를 반복하고 있으며 개연성이 떨어진다. 초가집을 찾아 가는 여정을 다시 반복하여 나타냈으며 할머니가 마 대접 받는 모습만 세 번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글 서사는 세 아들 '시험'인데 그림 서사는 '효'를 말하고 있다. 또 가옥과 부엌의 모습은 개연성이 떨어

진다. 마퉁이네는 마를 채집하여 먹고 살아가는 원시 농경을 상징하는데 부엌에 정리되어 있는 키, 체, 메주 등은 농경문화에 어울리는 살림 도구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의복, 삼 형제의 입성과 넓은 상도 초라한 초가집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다. 처마 끝에 달아놓은 풍경도 일반 초가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며 높다란 부뚜막과 장식 무늬,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 장작의 배치는 서구식 벽난로를 연상시킨다.

다) 금 발견

금 발견은 감은장의 복을 상징하며 그 이후의 서사 전개를 위한 필수 화소이다. 세 편의 그림책은 금 발견을 중요 장면으로 생각하여 펼침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몬테소리 본	봄봄 본	을파소 본

<그림-7> 금 발견 장면 비교

몬테소리 본은 깊은 바위산에서 금을 발견한다. 이때 큰형과 둘째 형이 마 파던 구덩이에서는 똥과 지네·뱀이 발견된다고 글에서 설명하는데 구덩이가 웅덩이를 연상할 정도로 크다. 지네·뱀은 웅덩이가 아닌 동굴에 가득한 것으로 보이며 금덩이도 한 곳에 수북이 쌓여있다. 금덩이의 모습도 둥글 둥근한 자갈·돌이 아니라 골드바를 연상시키는 형태이다.

봄봄 본에서는 마 캐던 장소를 풀과 나무가 있는 낮은 산간지역으로 보여준다. 똥, 지네·뱀, 금덩이가 보이며 검은 암소도 감은장 뒤에서 함께 한다. 신성과 생산성을 상징하는 검은 암소로 인해 서사 전개의 개연

성이 확보된다.

을파소 본에서도 똥, 지네·뱀, 금덩이가 나타나는데 구덩이가 아닌 산골짜기에서 발견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마 구덩이가 깊은 산 속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 어디에도 산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산골짜기를 배경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작가의 선입견에 의해서 억지스럽게 표현되었다.

라) 거지 잔치

세 편 모두 거지 잔치를 주요 장면으로 나타내었다.

몬테소리 본	봄봄 본	을파소 본

<그림-8> 거지 잔치 장면 비교

몬테소리 본은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잔치가 진행되는 안마당과 바깥마당 사이에 짙은 색깔의 기와담장이 둘러치고 있다. 담장 안에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 바깥마당에는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 대문을 들어서는 두 사람뿐이다. 이로 인해 담 밖과 안이 단절된 느낌을 준다. 사람들의 표정도 살아있지 않다. 얼굴이 미소 짓는 입과 눈매로만 일정하게 표현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느낌이 적다. 잔치 참가자가 대부분 남성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의복도 비슷하다. 면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담장과 사람들의 변화 없는 표정, 안마당과 바깥마당의 대조적인 모습이 축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원인으로 보인다.

봄봄 본은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입 벌리고 웃는 사람

들의 표정과 동작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참가자들도 남녀노소 다양하고 그들의 행장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다. 한쪽에서는 악기 연주에 맞춰 춤추는 사람도 있고 음식도 계속 준비되고 분주히 날라진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고 나는 모습도 보인다. 떠들썩하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 그린 그림이다.

을파소 본은 즐거운 잔치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무표정한 인물이 많고 얼굴에 표정을 그려 넣지 않은 사람도 여럿이다. 다양한 사람을 표현하였으나 거지 잔치를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복이 단정하고 화려하다. 대부분 서서 구경만 하고 있고 하얀 천막 아래에는 주인 없는 그릇들만 늘어 놓여 있다. 일하는 일손도 한 명 뿐이고 너른 마당 어디에도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무표정하고 생동감 없는 표현이 즐거운 잔치가 아닌 슬픈 잔치처럼 느껴지게 한다.

마) 눈뜨기 · 신으로 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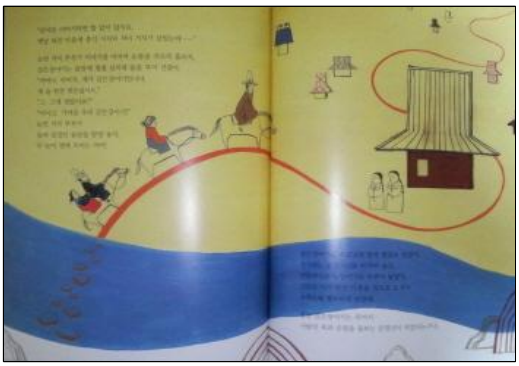
세 작품 모두 부녀 화합과 신으로의 좌정을 중요하게 여겨 펼침으로 나타내었다.

<그림-9> 몬테소리 본의 결말 장면

몬테소리 본은 부모가 눈물 흘리는 마지막 장면에 감은장이 없다. 감은장은 함께 화합의 즐거움을 나누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있다. 부모와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감은장의 신성을 중시하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그림이라 하겠다.

<그림-10> 봄봄 본의 결말 장면

봄봄 본은 부녀화합의 극적인 장면 연출이 뛰어나다. 부모가 눈뜨고 감은장과 만나는 장면에서 온가족이 한데 어울려 환호하며 기뻐한다. 부모와 화합하는 기쁨을 최대한 살렸다. 그런데 그 뒷면에 이어서 지네와 버섯의 환생을 넣음으로써 앞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림이 글을 따라가다 보니 생긴 오류이다. 글에 대한 고증이 있었더라면 글로는 말하되 그림으로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림-11> 을파소 본의 결말 장면

을파소 본은 한 장면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느라 그림이 무척 복잡하다. 그리고 감은장과 부모와의 화합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눈을 뜨고 화합하는 장면 대신 서둘러 옛집을 찾아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언니와 만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화합보다는 온 가족이 만나는 통합에 의미를 둔 작가의 해석을 엿볼 수 있다. 신으로의 좌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한계도 보인다.

3 평가와 제언

앞의 표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삼공본풀이>가 <감은장아기> 그림책으로의 변용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본 들 중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을 골라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선행 작가의 글을 모방한 그림책 글

우선 가장 두드러지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야기책으로의 변용 양상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소의 탈락과 생략, 변형으로 이야기의 구조와 상징체계의 변형을 가져오고 감은장의 여성성과 주도성을 약화시킨 점이다. 이는 작가의 재화 태도 때문이라 하겠다. 그림책의 글 서사를 비교한 표를 보면 작가들은 <삼공본풀이> 신화를 고쳐 쓰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자료를 온전히 참고하지 않고, 선행 작가의 글을 기본으로 여기저기서 화소를 가져다 수정을 가했다. 몬테소리 본에는 이원수·손동인 본과 서정오 본의 양상이 함께 보이며 봄봄 본은 자신의 글인 서정오 본을 근간으로 삼아 수정을 하였다. 을파소 본은 서정오 본을 저본으로 쓴 듯하다. 하지만 앞에서 선행 작가들도 하나의 자료에 충실하지 않고 여러 자료의 화소를 가져다 고쳐 쓰기 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그렇다면 그림책의 글은 고쳐 쓴 글을 다시 고쳐 쓴 것이다. 이런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감은장아기>는 본래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신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바꾸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또한 이야기책의 긴 글을 그림책의 짧은 글로 재구성하면서 화소의 탈락과 생략, 끼워 넣기가 분별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봄봄 본은 길 묻기, 유숙 청하기, 발막음 요청 등의 세 번씩 반복되는 문답 과정이 없고 을파소 본은 길 묻기를 축약하여 세 번의 문답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글을 구성하였다. 또 부모를 만나 내력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문답도 한 단계로 대폭 줄었다. 삼공본풀이의 특징 중 하나가 3의 끊임없는 반복이며 세 번씩 되풀이되는 구조는 통합과 완성으로 나아

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생략은 <감은장아기>가 주는 재미를 줄어들게 하며 힘없던 개인의 통합과 완성보다는 효와 착한 마음씨만 인상에 남게 할 수도 있다.[49]

(2) 화소의 획일화

채록 자료에서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던 내용들이 그림책 세 편에서는 획일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언니 변신이 감은장의 주술에 의해 이루어지고, 마파던 구덩이에서 나오는 내용물이 같아 졌으며, 감은장의 신직을 공통적으로 운명신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글서사로 인한 문제점이긴 하나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채록 본을 보면 언니 변신이 주술과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박봉춘 본, 안사인 본) 감은장의 주문 없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김계림 본, 고대중 본)도 있다. 이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채록 자료와 달리 표에 보이는 세 그림책의 글은 모두 감은장의 주문에 의해 언니들의 변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세 권의 그림책 글에서는 감은장의 주술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솔 본은 “~으로 바뀌겠네.”라고 중얼거리기며 대교 본과 이수 본에서는 언니들의 거짓말 후 덧붙이는 설명 없이 그냥 변한다. “-바뀌겠네.”라는 중얼거림은 감은장이 지닌 예지력을 보여줄 뿐 직접 주문을 외어 변신시키는 주술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글들은 독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집으로 구성되어 구입이 어렵고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은장아기>가 단행본으로 더 다양하게 나올 필요가 있음을

49) 교보문고에 올라온 리뷰 중 ‘감은장아기 공연도 보았지만 감은장아기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꿋꿋하고 당차게 산다는 의미는 약간 빈약하게 느껴지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해야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라는 글이 있다. 이는 신화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3의 반복구조를 생략한 결과로 보여 진다.

시사한다.

그리고 형들의 마파던 구덩이에서 나뭇잎과 자갈, 물개똥과 쇠똥 등이 다양하게 발견되던 채록본과 달리 그림책에서는 모두 똥, 지네·뱀으로 같아졌다. 감은장의 주술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해석으로 다르게 쓰이기도 했으나 이 부분은 6권의 그림책이 모두 같았다. 더욱 극적인 화소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선택적 화소 수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모든 그림책에서 감은장은 '운명신'이 된다. 이어지는 설명은 '운명신'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다. 몬테소리 본은 '운명신이 정해준', 봄봄 본은 '운명을 다스리는', 을파소 본은 '운명을 돌보는'이라고 하였다.[50] 운명을 정해주고 다스리는 것은 운명을 좌우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신화의 전승자들이 '전상신'을 굿판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지배해주기를 소망해서가 아니고 보살펴주기를 기원하고 축원하기 위함일 것이다. '운명'이라는 낱말은 흔히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일컫는다. '운명신'은 어의에서부터 <감은장아기>가 갖는 가치와도 상반된다. 그렇다면 전상신은 운명신과는 다른 의미를 가져야하지 않을까?

'전상신 감은장아기'를 '운명신 감은장아기'로 바꾸는 것은 신직을 바꾸는 것일 수 있다.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말이 현대어 속에 없다면 '전상신'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토템신앙이 우리 생활에서 사라진 것처럼 '전상'이라는 말도 우리 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의미를 뒤틀어서 '운명신'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전상'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운명'을 그대로 써야한다면 을파소 본에서처럼 '돌보는 운명신'[51]이 감은장에게 더 어울린다 하겠다.

---

50) 여섯 권 중 나머지 세 권의 그림책 글에서도 다스리고 정하는 운명신으로 서술된다.
51) 하지만 을파소 본에서도 감은장이 옛집을 찾아가 "청지네는 은장아기로 바꾸어 놓고, 말똥버섯은 놋장아기로 바뀌어 놓았지."라고 하였다. 이는 운명을 '돌보는' 신이

(3) 글 서사와 그림 서사의 불균형

그림책을 이루는 글과 그림 중 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앞에서 살펴 본 세 편 뿐 아니라 모든 그림책이 글이 중심이 되고 그림은 보충하여 보여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글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리다 보니 둘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사가 진행되어야한다. 그래야 독자들이 그림책을 보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서술과 묘사로 글이 서사를 주도하면 그림은 따라가기만 하게 된다.

글 작가는 글을 줄이고 그림 작가는 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함께 자료조사를 치밀하게 하여야 한다. 글을 줄이는 방법은 핵심화소를 생략하는 방식이 아닌 설명을 줄이고 새로운 화소 끼워 넣기를 자제하는 방식이 좋겠다. 더구나 덧붙이기는 무척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전이 아닌 문자로 전승되는 오늘날의 특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변형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고유한 이야기의 가치를 놓칠 수 있으며 이야기가 갖는 매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

(4) 장점이 많은 글과 그림 텍스트

그림책의 글 텍스트만을 놓고 볼 때는 몬테소리 본의 글이 장점이 많다. 화소 비교표에서 보이듯이 최초의 그림책인 몬테소리 본이 다른 글에 비해서는 채록 자료의 서사를 많이 살렸기 때문이다. 이후 그림책에서는 발 막음 아들 요청 화소를 살린 글이 없으므로 장점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이원수·손동인 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그믓’을 살리지 못했고 ‘목욕’과 ‘새 옷’을 탈락시킨 한계도 보인다.

글 텍스트에서 보이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림 텍스트를 비교했을 때 가능성이 엿보이는 작품은 봄봄 본이다. 우선 그림만으로 서사가 읽힌다. 배경을 줄이고 각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잡아 간단하게 표현하여

아닌 운명을 ‘바꾸는’신이라는 관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때 문법상 오류도 발견되는데 “말똥버섯은 놋장아기로 바꾸어 놓았지.”가 옳은 표현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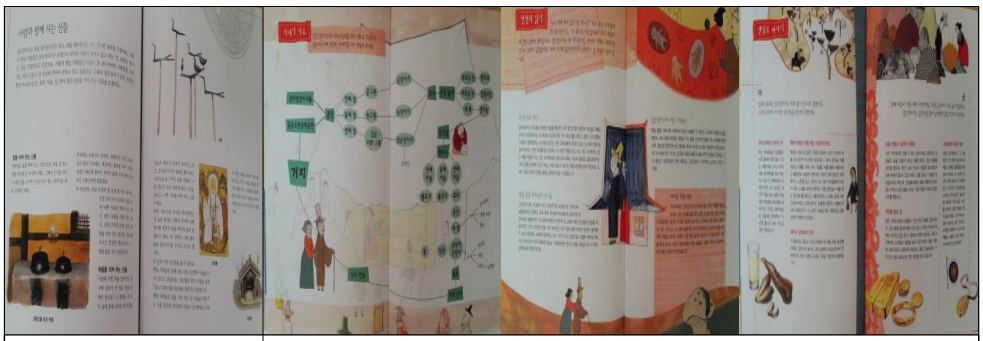
그림만으로도 줄거리 파악이 충분하다. 그리고 검은색의 그림자 그림으로 감은장, 검은 암소의 이름이 갖는 검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절제된 색 사용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표정과 몸짓에서 감은장의 당차고 주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으로 인물들의 개성을 살렸으며 장면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었다. 색 한지에 그린 듯 아름답고 다채로운 바탕색도 이야기에 변화와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글에서 생략한 핵심 화소들을 최대한 살려주고 개연성 있는 사실적 배경 등이 갖추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5살, 길 묻기, 발막음, 목욕은 이 이야기에서 의미 있는 화소로 민망하다거나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삭제해선 안 되는 것들이다. 작가의 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연구를 그림 작가도 했더라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들려줄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지네, 버섯, 가옥, 대문, 돌담 등은 고증을 통해 사실적이면서 지역성을 살린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봄봄 본의 글에서는 '버섯'으로 표현했지만, 채록 자료를 보면 '용달(말똥)버섯'으로 많이 쓰여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버섯 모양보다는 용달(말똥)버섯의 이미지를 살려서 그리는 것이 연구자적인 작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신화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주가옥, 제주대문, 제주 돌담과 들판의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작품에 대한 작가의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이 밖에도 계절의 변화, 한라산과 바다 등을 배경으로 넣는 것도 고려할만한 점이다. 배경그림을 생략하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상징적인 도안이나 바탕색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5) 부록에 대하여

이 글의 끝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어린이 대상의 그림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록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봄봄 본을 제외한 몬테소리 본과 을파소 본은 이야기 뒤에 부록을 실었다. 부록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또는 지침서의 성격을 띤다. 또 이야기와 관련된 민속·문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옛이야기 그림책의 부록인 만큼 출처와 원전 소개, 재화 과정 등을 밝히면 된다.



몬테소리 본	을파소 본

<그림-12> 몬테소리 본과 을파소 본의 부록

그런데 위의 두 부록에서는 이야기의 원전으로 삼은 출처와 개작 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독자들에게는 아직 낯선 <삼공본풀이>에 대한 소개와 표준텍스트로 삼은 저본을 소개하는 것은 이야기 이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또 개작 과정을 밝혀 저본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한, 위의 부록은 불필요한 정보 제공과 섣부른 해석을 달고 있다. 연금술, 메밀가루, 마, 집안과 마을을 지키는 신 등의 <감은장아기> 이해에 불필요하거나 주변적인 정보를 싣고 있다. 그보다는 '본풀이'같은 제주 무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제주 무가 속의 다양한 신화에 대한 정보를 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해석하고 규정짓는 설명은 자칫 신화가 가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독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별책부록도 깊이 생각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Ⅴ. 결론

신화는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문헌신화'와 오랜 세월 민간에서 행해지던 무속 무가 속의 '구전신화'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그중 구전신화는 무속 무가에 전해오는 신들의 내력을 담고 있는 서사로 일제강점기에는 아키바 다카시라는 일본인에 의하여, 해방 후에는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 등의 민속학자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수집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무가 속의 신들의 서사가 '구전신화'로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 100여 년 사이의 일인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소재로 채택하는 데 아주 소극적이다. 유교사상의 의식적 틀 안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교육 관료와 교육자층에게 무속은 미신으로 치부되었고 아직도 그러한 고정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초등학교 3학년 국어과 교과서에 <원천강본풀이>이의 <오늘이>가 애니메이션으로 실렸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사라졌다.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숙고와 논의가 부족했던 원인도 있겠지만, 구전신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가속의 신화라는 이유로 가치 폄하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 현장과는 달리 아동문학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신화를 알리는 것이 소중한 일임을 자각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출판계와 독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무속 신화와 관련 아동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또한 현재의 실정이다. 앞의 분야에 대한 연구 자료의 축적이 교육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은장아기>도 제주 무속 무가 <삼공본풀이>를 저본으로 재화된 신화이다. Ⅱ장에서 제주 무가 <삼공본풀이>의 핵심 서사 분석을 통하여 <감은장아기>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았다. 감은장은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회와 윤리에 맞서는 주체적 자아이며 인습에 반항하는 여

성상이다. 감은장은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운명신이 아니라 억압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운명 개척의 신이다. 이러한 감은장의 성장과 신으로의 좌정을 풀어낸 <삼공본풀이>는 신화가 갖는 많은 문화·기호학적 상징을 담고 있다. 감은장의 통과의례와 관련된 상징들에 대한 해석과 풀이는 고정되지 않고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이론(異論)의 장이 마련된 후에는 어느 정도 통일된 해석으로 논의가 모일 것이라 기대를 해본다. 우선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은장의 삶은 좋은 전상의 본보기로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었을 것이며 언니와 부모의 삶은 나쁜 전상에 대한 경계와 터부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 삶에 교훈과 감동을 주는 <삼공본풀이>가 어린이문학으로 수용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라 하겠다. 무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 이원수·손동인이 전래동화의 신화 편에 소개하고도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여러 작가에 의해 활발히 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림책으로도 나오고 있다.

Ⅲ장에서는 우리 신화를 찾아내 어린이문학을 통해 알리는 노력을 하는 작가들의 이야기 재화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감은장아기>의 바람직한 재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감은장아기>의 어린이 문학적 가능성을 일찍이 깨달은 작가들도 아직 신화 속의 전통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 상징들을 오롯이 살려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조선 시대 이후 도입된 외래사상인 유교적 관념은 현대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은장이 지닌 여성성과 주체성을 약화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었다. 또한, 무리하게 작가의 창작을 시도함으로써 구조와 주제의 변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현재 <감은장아기> 재화가 보이는 문제점으로, 신화라는 속성에 기대어 지극히도 인간적인 삶을 보여주는 감은장에게 주술

성과 절대성을 과도하게 부여한 점도 지적하였다.

현재 그림책이 옛이야기의 대체적인 전승매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Ⅳ장에서는 <감은장아기> 그림책 중 시기와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세 편을 중심으로 글과 그림을 비교 분석하여 장점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림책의 글은 앞의 이야기 재화에서 보인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글 서사가 그림을 압도하고 있다. 그림은 글을 다시 보여주는 역할에 그치고 만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감은장의 서사를 들려주어야 한다. 글이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그림이 따로 들려줄 이야기가 없게 된다. 글을 줄이고 그림의 독자성을 살리는 것이 <감은장아기> 그림책에 주어진 과제라 하겠다.

<삼공본풀이>는 많은 상징체계를 암유한 채 오랜 세월 무가로 불리면서 이미 탄탄한 구성과 구조가 갖추어졌다. 재화함에 있어 무분별한 화소 삽입이나 상징 화소의 탈락과 변형은 신화의 가치와 성격을 변질시키게 된다. 감은장이 지닌 여성으로서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살리는 재화여야 할 것이며 '신화'라는 장르에 기대어 감은장의 신성을 왜곡하여 주술성을 강조하는 것도 곤란하겠다. 현재 '전상신'을 대체하는 말로 '운명신'을 사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지만 감은장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발현하는 존재라면 <감은장아기>의 교육적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감은장은 전생의 업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예지력을 지닌 신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믿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준다. 남을 돕고 화합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런 전상신이기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삶의 고비에 닥쳤을 때마다 불러들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고자 하였다. 어린이 책에서 감은장아기는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힘'의 속성을 드러내는 '운명신'보다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옛말 그대로의 '전상신'으로 알려지길 제안해본다.

<감은장아기>가 지닌 문학 교육적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도서관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

분 봄봄 본의 <감은장아기>만이 검색되고 있으며 가끔 최정원 본도 소장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감은장을 아는 교사·학생은 거의 없다. 이 사실은 고치는 것보다는 우선 제 모습대로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다. 이때 어떻게 재화할 것인가는 작가의 몫이다. 감은장의 통과의례와 재미가 모두 살아나는 재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의 연구도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다.

신화의 주인공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철학과 실천을 배울 수 있다. 어린이문학에서는 결핍된 자아가 길을 떠나 고난을 극복하면서 자아의 성장을 이룬다. 독자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성장을 이룬다. <감은장아기>를 통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체성을 밝히고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을 믿으면서 타자와 통합하는 지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감은장이 그림책 단행본을 통해 이제 막 알려지려 하고 있다. 글과 그림으로 <감은장아기>의 재미와 감동을 가져가는 독자가 더 늘어나기 바라며, 폭넓은 독자에게 감은장의 지혜와 용기를 들려주는 좋은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란다.

최근 신화들이 웹툰,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등으로 변용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믄장아기>도 몇 년 전 연극으로 상연되어 호평을 받았던 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구전 현장이 사라진 오늘날 옛이야기의 주요 전승 매체로 자리매김한 이야기책과 그림책은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시각에서 현재까지의 <감은장아기>의 변용 양상이 지니는 문제점을 밝히고 방향 제시를 고민한 이 연구가 향후 감은장아기가 널리 알려지고 제대로 알려지는데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

참고 문헌

1. 자료

아키바 다카시·아카마쓰 지죠(1937). 朝鮮巫俗の研究·上卷. 심우성. 역 (1991).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장주근(2013).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민속원.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현용준(2007).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김원석(2004). 삼신할미가 된 당곰애기. 대교출판.

김종상(1995). 새로 찾은 우리신화. 예림당.

서정오(200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현암사.

우리누리(2011). 이야기가 술술 우리 신화. 중앙북스.

이승직외(2010). 가믄장아기. 아동문예.

이원수·손동인(1990). 한국 전래 동화집4. (주)창작과비평사.

최정원(2009). (내 복에 산다) 감은장아기. 교학사.

현동훈(2010). 아빠가 들려주는 제주 설화. 스토리하우스.

고순덕 글・주미혜 그림(2014). 감은장아기. 이수미디어.

김영란 글・심수근 그림(2013). 가믄장아기. 대교.

서정오 글・한태희 그림(2012). 감은장아기. 봄봄출판사.

이 안 글・이윤선 그림(2013). 감은장아기. 을파소.

이산하 글・김정화 그림(2004). 감은장아기. 몬테소리.

조호상 글・최선경 그림(2009). 가믄장아기. 한솔교육.

2. 단행본

고대경(1997). 신들의 교향. 중명.
김태곤(1981). 한국의 무속 연구. 집문당.
김태곤외(1988). 한국의 신화. 시인사.
김환희(2007).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김환희(2014). 옛이야기와 어린이책. 창비.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문무병(2013). 설문대할망 손가락. 도서출판각.
서정오(2014).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서정오(2006).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현암사.
신동흔(2004). 살아 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이부영(1995).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이지호(2006). 옛이야기와 어린이 문학. 집문당.
임석재(1992). 임석재전집9 한국 구전 설화. 평민사.
장주근(1998).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제주문화 상징. 하나출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경신인쇄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여성사2-일제 강점기.
조현설(2006).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조희웅(1996). 한국 설화의 유형. 일조각.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Arnold van Gennep(1908). *Les rites de passage*. 전경수. 역(1985).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3. 참고논문

고순덕(2004).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희곡화 과정연구.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김대숙(1987). 여인발복설화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명희(2013). 제주 무가 중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음악극 지도 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속의 여성 원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안효정(2010). <삼공본풀이>서사와 전상의 의미.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윤교임(1996). 여성영웅신화 연구-초공, 삼공,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유경(2006).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적 의미.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정아용(2011).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성격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정진(2001). 유아에게 적합한 구비설화의 특성 및 교육적 가치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현승환(1993). 삼공본풀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호.

김대숙(1995). 한국여성신화에 나타난 남방문화적 요소. 국사관논총 제62집.

황인덕(1997). <내 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황인덕(1988). 불교계 한국 민담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록

<삼공본풀이> 다시 쓰기

옛날 옛적, 윗마을에 강이영성이라는 남자 거지가 살고, 아랫마을에 홍문소천이라는 여자 거지가 살았어. 흉년이 들어 얻어먹기가 어려워진 해, 강이영성은 아랫마을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래로 향하고, 홍문소천은 윗마을이 살기 좋다는 소문을 듣고 위를 향해 길을 떠났어. 그러다가 길 가운데서 딱 마주쳤고, 두 사람은 서로 마음에 들어 부부가 되었어.

하지만 얻어먹고 살다 보니, 첫째 딸이 태어났어도 먹일 것이 없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먹을 것을 가져다 키워주니 은장아기라고 불렀어.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에 먹을 것을 가져다 키워주어 놋장아기라고 불렀지.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검은 나무 그릇에 먹을 걸 가져다 키워주어 감은장아기라고 불렀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감은장아기가 나온 뒤로 살림이 점차 불어나더니 큰 부자로 살게 되었어.

감은장아기가 열다섯 살이 되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 묻는 거야.

"은장아가, 너는 누구 덕에 밥 먹고 호강하며 사느냐?"

"아버지, 어머니 덕입니다."

"허허! 착하다. 네 방으로 들어가라."

"놋장아가, 너는 누구 덕에 밥 먹고 호강하며 사느냐?"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허허! 착하다. 네 방으로 들어가라."

"감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밥 먹고 호강하며 사느냐?"

"하늘님, 땅님, 아버지, 어머니 덕도 크지마는 제 배꼽 아래 있는 검은 선 덕에 잘 삽니다."

"뭐야? 네 덕에 잘 산다고? 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감은장아기 옷가지를 검은 암소 등에 실어놓고 하녀 하나 딸려서 내쫓았어.

부모님은 그래도 마음이 짠해 은장아기를 불러 말했어.

"네 동생이 갔나 보고, 아직 있거든 데려와라."

은장아기는 대문간으로 달려 나가 마팡돌에 올라서서 소리쳤어.

"불쌍한 동생아, 어서 도망가라.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널 때리러 나오신다."

말을 한 뒤 마팡돌을 내려서자 청지네로 변해버렸어.

큰 딸아기 소식 없자 놋장아기 불러내서 말하였어.

"네 동생이 정말 갔나 보고, 아직 있거든 데려와라."

놋장아기는 집 앞 거름더미 위로 올라서서

"불쌍한 동생아, 빨리 도망가라.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널 때리러 나오신다." 말을 한 뒤 거름 더미를 내려오자 말똥버섯으로 변하였어.

딸들이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된 부모님은 급히 달려 나오다 방문 위의 문고리에 눈을 찔려 장님이 되었어. 그 후 재산도 모두 잃고 다시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가 되었대.

집을 나온 감은장아기는 고개를 넘고 넘어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났어. 한참을 가다 보니 마를 캐고 있는 마퉁이가 보였어.

"어디로 가면 사람 사는 집이 나옵니까?"

"여자는 꿈에 봐도 못쓴다는데! 어서 썩 꺼져 가라!"

다시 길을 가다 보니 마를 캐고 있는 두 번째 마퉁이가 보였어.

"어디로 가면 사람 사는 집이 나옵니까?"

"여자는 꿈에 봐도 못쓴다는데! 어서 썩 꺼져 가라!"

하는 수 없이 다시 길을 가다 보니 세 번째 마퉁이가 마를 캐고 있었어.

"어디로 가면 사람 사는 집이 나옵니까?"

"이 고개 넘고 저 고개 넘어 가다보면 할머니가 사는 초라한 초막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개 넘고 저 고개 넘어 가보니 초라한 초막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

"할머님, 이 집에서 묵을 수 있게 해 주세요."

"큰 마퉁이, 작은 마퉁이, 막내 마퉁이 들어오면 나 누울 곳도 없다오. 집이 좁아 어렵겠소."

"그럼 부엌 구석에라도 묵게 해주세요."

"그걸랑 그러시오."

잠시 후 울크르랑 울크르랑 하는 소리가 들려.

"할머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큰 마퉁이 돌아오는 소리라우."

큰 마퉁이가 마 담긴 망태기를 짊어지고 들어와서 누구냐고 물었어.

"방을 빌려 달라는데 방은 없고 부엌 구석을 빌려줬다."

"힘들게 마캐다가 배 불리 먹여줬더니 길가는 여자애나 불러놓고 놀고 있었소?"하고 화를 내.

그리고 마를 삶아 와서는 자기는 살진 한복판을 먹고 어머니껜 모가지를 드리고 손님에겐 꼬랭이를 주는 거야.

잠시 후 올크르랑 올크르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마퉁이가 들어왔어.

형과 같이 화를 내고 마를 삶아 내어 왔어.

"어머님은 나보다 먼저 나왔으니 머리를 드시고, 손님은 나보다 늦게 나왔으니 꼬랑지를 드시오."

그러고 자기는 두꺼운 가운데를 먹어.

다시 올그르랑 소리가 나더니 막내 마퉁이가 들어왔어. 날이 저물어 손님에게 부엌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듣고 “잘 빌려주셨습니다.”하는 거야. 그리고 마를 삶아 내어, 한복판을 둘로 꺾어 어머니 한쪽 손님 한쪽 주고 모가지와 꼬랭이는 자기가 먹어.

잠시 후 감은장아기도 솥을 빌려 하얀 쌀밥을 지어 내왔어.

큰 마퉁이와 작은 마퉁이는

“할아버지 때에도 그런 벌레같이 생긴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으니 안 먹겠어.”

막내 마퉁이는 한쪽을 어머니께 드리고 메추라기 먹는 만큼 병아리가 먹는 만큼씩 먹어갔어.

그러자 형들은

“막내야, 맛있냐? 나도 좀 다오.”

한 숟가락 떼어주니 이리 할짝 저리 할짝 후후 불며 먹어갔어.

저녁밥을 먹고 나서 감은장아기가 말했어.

“할머님, 발이 시려 못 자겠으니 제게 와서 발막아 줄 아들 하나 보내주세요.”

할머니는

“큰 마퉁이야, 손님에게 가서 발막아 줄래?”

“싫어요! 이젠 나를 죽이려 그러시오?”

“작은 마퉁이야, 네가 가서 손님 발막아 줄래?”

“안 가요! 이젠 우릴 죽이려 들으시오?”

“막내 마퉁이야, 네가 갈래?”

“네. 가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갔어.

막내 마퉁이를 보자 감은장아기가 하녀에게 일렀어.

“가마솥에 물을 끓여 내오너라.”

‘나를 끓는 물에 넣으려고 그러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려오는데 태연한 척 앉아 있었지.

“따뜻한 물에 목욕하시지요.”

목욕 뒤에 내어 주는 새 옷을 입으니 헌헌장부가 따로 없네.

그 날 둘은 결혼을 하고 천생배필이 되었어.

다음 날 아침, 형님들이 나가다 말고 막내한테 넙죽 절을 하는 거야.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아이구! 넌 줄 몰라봤다. 마 캐러 같이 갈 테냐?”

“가지 않겠습니다.”

형님들이 나간 뒤 감은장아기가 물었어.

"서방님, 어제 마 캐던 곳에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그걸랑 그러시오."

내외가 손을 잡고 큰 마퉁이 마 캐던 곳에 가 보니 나뭇잎만 수북하고, 작은 마퉁이 마 캐던 곳을 가보니 자갈만 잔뜩 해. 막내 마퉁이가 캐던 곳을 가보니 돌이라고 던져둔 것은 금덩이고, 흙이라고 치워둔 것은 옥덩이야. 모두 검은 암소에 싣고 와서 큰 부자가 되었어.

하루는 감은장아기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었어.

"서방님, 우리가 이 만큼 잘살게 되었는데 거지 잔치를 한 번 열면 어떨까요?"

"그걸랑 그러시오."

다음 날부터 거지 잔치를 벌였어. 굶주린 사람에겐 먹을 것을 내어주고 헐벗은 사람에겐 입을 것을 주었지.

하지만 부모님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늘어갔어.

잔치 마지막 날, 장님 부부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

감은장아기는 음식 하는 사람들에게 일러두었지.

"저어기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그러자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은 장님부부가 위로 가서 앉으면 아래쪽부터 음식을 차려내고, 아래로 가서 앉으면 위쪽부터 차려내어 바로 앞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하는 거야. 끝에 앉아서 그런가하고 가운데로 가면 양쪽 끝에서부터 음식을 차려 내어 또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했어.

"우리에게는 잔치 음식도 안 주는가보다."

하고 나가려는 장님부부에게 감은장아기가 다가가 말을 했어.

"어르신 둘은 우리 집에 와서 아궁이지기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랑 그러시오."

감은장아기가 모셔다가 저녁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 드리자 장님 부부는 밥을 먹으면서 비 오듯 눈물을 흘리는 거야.

다 먹은 후에 감은장아기가 말을 했어.

"어르신들, 옛말이나 본 말이나 들려주십시오."

"본 말도 없고 들은 말도 없소. 옛날 우리 살아온 말은 할 수 있소."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인데 은장아기, 놋장아기, 감은장아기 낳고 부자로 살았지요. 감은장아기가 제 덕에 잘 산다고 하여 내쫓은 후로 우리는 장님이 되고 집안도 망하여 다시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술 한 잔 받으세요. 제가 감은장아기입니다"

술잔이 “쨍그랑!” 깨지면서 장님 눈이 번쩍 떠지더래.

다시 만난 감은장아기와 부모님은 행복하게 잘 살았지. 그 후 감은장아기는 사람들의 전생[52]을 돌보아주는 전상신이 되었단다.[53]

---

52) 불교 용어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생을 현생이라고 하고 그 이전의 모든 생을 전생이라고 한다. 사람은 보통 수십 번의 전생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끝없이 생을 반복하며 윤회한다고 한다.

53) 이 이야기는 고대중 본을 저본으로 다시 쓰기 하였다. 다만 세 군데를 고쳤다. 원서사에서 언니들이 용달버섯, 풋버랭이 순으로 환생하는 내용을 청지네, 말똥버섯 순으로 바꾸었고 할머니의 초막에서 머무는 장소를 마당 구석에서 부엌 구석으로, 마지막에서 술잔을 받으며 눈 뜨는 내용을 술잔이 떨어지는 순간 눈이 떠지는 것으로 고쳤다.

우선 환생 순서를 바꾼 이유는 채록본의 다른 모든 이본에서 은장아기가 청지네(또는 지네)로 환생하며, 대문 앞 돌 밑으로는 용달버섯보다 청지네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용달버섯은 현재 발간된 버섯도감 어디에도 수록되어있지 않았다. 반면 두 편의 채록본에 등장하면서 버섯도감에도 수록된 말똥버섯(말과 소의 똥 위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말과 소를 많이 키우던 감은장의 집 거름더미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이 개연성이 높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은장아기가 초막에서 유숙을 허락받을 때 빌려달라고 한 마당 구석은 검은 암소를 위해서지 여자 둘이 머물 장소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밥을 짓고 물을 끓이는 이후의 서사도 부엌이라는 장소와 더 잘 어울린다.

<삼공본풀이>의 실제 구연 현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공본풀이> 구송 후 <삼공맞이>가 이어진다고 한다. 장님부부와 감은장아기가 만나 눈뜨는 모습을 시연하는 <삼공맞이> 마지막 부분에서 깜짝 놀란 장님부부가 술잔을 떨어뜨리는데, 이때 깨진 술잔의 모습을 보고 굿을 연 사람의 길흉을 점치는 점술적 행위가 이어진다고 한다. <감은장아기>가 비록 굿과는 무관하게 신화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본래 굿의 현장에서 불렸던 무가적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술잔을 떨어뜨리면서 눈을 뜨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Abstract

A Study of the Adaptation of the Cheju Orgin Myth of Samgong into the children's Literature

Song Soon Hee

Major in Children's Liter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Sangwoo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writing aspects after Jeju shaman song <Samgong Bonpoori> accepted to children's book, and to touch off discussion for desirable rewrite. For these, compared and analyzed recorded shaman song data and extract universal story and looked for what is the transmission value of the myth. And studied 8 story books and 6 picture books published so far if they have this kind of value and examine the problem of transformation, and tried to find desirable rewriting way.

Among recorded data currently known, in this study Park Bongchun story recorded from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Ko Daejoong story collected by Korean after liberation, Kim Gyerim story, An Sayin story is analyzed as a basic story. At this point, I applied Van

Gennep's 'a rite of passage' in the way that it is a myth unraveled 'Gameunjang agi''s biographic life. Rewrite aspects showed similar tendency after looking <Gameunjang agi>'s story book and picture book. We picked each 3 representative literature that seems meaningful and cross correlated the recorded book and rewrited book.

As a result, we could find out that <Samgong Bonpoori> is a story of human universal showing symbolically a person named 'Gameunjang agi' having separation, metastasis and the integration of conscious process in living her life. And this myth shows the value of care, respect, share and engagement that individuals and society should have to live harmoniously in community. In addition, in this myth, there is heroic female archetypes which pioneer itself's destiny independently fighting against feudal patriarchy culture. Like this, we could know that currently disappearing shamanism's shaman song <Samgong Bonpoori> has enough value to be transmission to children's literature.

Since 1980s, efforts of telling 'Gameunjang agi' myth aggressively and trying to transmission through children's book is continued.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 for changed aspects about <Samgong Bonpoori> to children's book, we found changed myth traditional symbol system, weakened feminine and independence, imbalance of overall story's structure, distortion of sacredness. Picture story had a limit of showing the story meagerly because of the halfway historical research about the data, it depended on the text. This is the result of rewrite depended on the ancient writer with using the passed down data meanly. Finally, the myth with human universal life and value became a story emphasis on moral and fun, and the young readers who learn this 'changed myth' got in trouble to grow up knowing

the myth just as an "olden people's story".

In the meanwhile, discovery of Lee Wonsu story and Son Dongin story who tried to revive Gameunjang's femininity and independence can say it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story book. The picture book is valued positively because Montessori story's writing tried to show Gameunjang's feminine independence, and Bombom story's picture expressed the character,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and the feature of each scene.

I wish the editor and the writers of children's book should have will to spread our myth futhermore and understand through data with enough historical research and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herefore, we would rewrite to convey the value of ancient people with fun.

Writers who felt attraction with 'Gameunjang agi' are keep trying to rewrite and change. Accordingly, various studies about <Samgong Bonpoori> and active discussion about childrens's book using changed <Samgong Bonpoori> will be a wrecker for better desirable rewrite.

* Keywords : <Samgong Bonpoori>, the changed aspects of children's books, 'Gameunjang agi', the story book <Gameunjang agi>, the picture book <Gameunjang agi'>